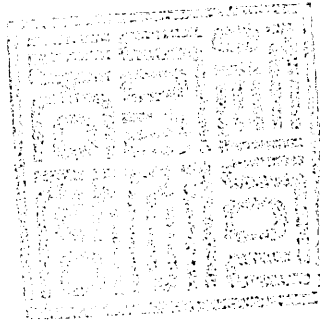


本 『南北對話 年表』는 南北會談 및
기타 南北關係와 관련한 對內 主要動向
· 北韓 主要動向 · 周邊情勢動向 등을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南北韓의 統一對
話 과정에서 研究資料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작성한 것임.

南北對話年表

(1996年 1月 ~ 12月)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目 次

1月	1
2月	33
3月	58
4月	87
5月	119
6月	146
7月	167
8月	196
9月	222
10月	251
11月	274
12月	298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	<p>金泳三 대통령 新年辭</p> <p>* 『제2 건국의 새 역사를 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에게는 우리나라를 세계일류 국가로 만들자는 원대한 포부가 있음. ○ 우리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문민정부를 탄생시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활짝 열었음. ○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 『세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우리 민족의 미래를 힘차게 개척하고 있음. ○ 국민에게는 자유와 행복이, 사회에는 사랑과 화합이, 나라에는 번영과 긍지가 그리고 민족에게는 통합과 자존이 넘치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창조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세계 일류국가 『신한국』의 꿈임. 	<p>黨報·軍報·青年報 共同社說</p> <p>*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당과 인민의 투쟁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인 『정치사상 진지』, 『경제적 진지』, 『군사적 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기 위한 투쟁임. ○ 매국반역과 부정협잡을 일삼는 김○○ 괴뢰정권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며, 김○○ 일당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함. ○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임.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반민족적 반통일적 악법인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큰크리트장벽을 해체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공동투쟁을 벌여 나가야 함. 	<p>獨 슈피켈誌, 『북한 벌목공 실종 신고 70여명』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당국에 공식 실종 신고가 접수된 북한벌목공은 70여명을 넘고 있으며, ○ 실제 탈출·행방 불명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		<p>김정일, 『조총련』 의장등에 축전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총련 한덕수 의장에 신년 축전 ◦ 아·아,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 기구 창립 30돌에 축전 <p>당·정 지도간부들, 금수산 기념궁전 신년 참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강성산 (82일만에 출현), 최광, 김영남 등 	
1. 3	<p>金泳三 대통령, 對北安保態勢 확립 최우선 강조</p> <p>*3부요인 신년 하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새해 이땅에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방식에 의해 南北統一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 北韓의 식량부족과 경제난이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만큼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국가안보태세 확립이 최우선 과제임. 	<p>勞動新聞, 金泳三 대통령의 新年辭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역도가 새해에도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남조선을 외세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내맡기겠다는 것임. ◦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자면 5, 6공 군부독재 세력을 말끔히 청산하고 祖國統一을 가로막는 온갖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여야 함. ◦ 남조선 인민들은 사대매국노, 파쇼폭군, 도적왕초인 김○○ 역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해에도 자기들에게 재난과 고통, 불행밖에 차려질 것이 없음. 	<p>IOC, 『北韓의 애틀랜타 올림픽 參加』 공식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올림픽위원회 박명철 위원장은 IOC의 초청장을 수용하고 제26회 올림픽게임에 참가할 뜻을 공식 확인하였음. <p>*제26회 올림픽 게임은 '96. 7 美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97개국 참가 개최 예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	<p>權五琦 統一 副總理 新年 시 무식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세계로 열려서 세계국가들이 스스로 우리나라가 일류답다는 인식을 하게 해주어야 할 것임. ○ 외세가 갈라놓은 분단이지만 그들 국가와 和氣를 잃지 않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한발 두발 통일에 가까운 條件을 만들어 후세에 넘겨주어야 할 것임. ○ 統一 및 對北關係에 있어서 상상력을 총동원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마음의 준비를 굳건히 하여야 할 것임. 	<p>新年 『共同社說』 관철 각급 쫄기대회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군중대회 ○ 인민무력부 군인 쫄기모임 	<p>러 파노프 외무차관, 『북한식량난 아직 최악 아니다』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식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어느 정도의 비축량은 갖고 있음. ○ 최악의 상황이 도래해 평양당국이 도움을 요청해 올 경우 신중히 검토할 것임.
1. 4	<p>新韓國黨 孫鶴圭 대변인, 『先북한의 태도변화, 後씨지원』 方針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공식요청과 대남 비방 중지, 당국간 협의 등의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한 추가 논의는 불가능함. ○ 孔魯明 외무부장관의 국제기구 실사와 군용방지 	<p>中放, 『쏟데없는 간참』 제하 輕水爐協定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일당이 얼마전에 경수로 협정이 체결되어도 北이 합의한 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음. ○ 경수로제공 문제에 관한한 남조선은 對話一方도 아니고 더더욱 合意文에 수표한 당사자도 아님. ○ 이는 北을 모해하는 구실을 만들 	<p>美國무부 번스 代辯人, 對北 食糧支援 검토용의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미국에 대해 식량원조를 요청할 경우 매우 진지하게 검토할 것임. <p>WHO, 『北韓어린이</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4	<p>등은 美·日의 대북지원 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임.</p>	<p>어 조미관계 개선에 궤방을 놓고 어떻게든 파탄시켜 보려는 불순한 기도임.</p> <p>新年『共同社說』관철 궤기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안남도, 황해남도 군중대회 ○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종업원 궤기모임 	<p>多數餓死危機』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공급이 시급히 늘어나지 않는 한 5세이하 어린이 20%이상이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할 것임. ○ 지난해의 식량원조는 5,140톤에 불과하며 현재의 부족량은 약 116만톤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p>러시아, 『北韓, 核開發 不拋棄 展望』 평가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94까지 7~22kg의 플루토늄(핵폭탄 1~3개분)을 추출하여 영변에 보관하고 있으며 핵탄두 기폭실험을 70회이상 시행하였음. ○ 영변지역 이외에 박천, 함흥, 길주, 구성 등 20여 곳에 주요 핵시설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4			<p>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핵시설 망을 갖추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개발은 북한의 상징이며 김일성 부자의 체제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 ○ 국제사회는 북한 지배계급의 이해를 고려하면서 세계 공동체로의 합류를 유도해야 할 것임.
1. 5	<p>KEDO · 韓國電力, 對北輕水爐 건설 上業용역 계약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측은 사업전 용역체결로 '96. 7까지 1백만불을 들여 부지 조사, 지형 측량, 건설비 산출업무들을 수행하게 되었음. 	<p>新年 『共同社說』 지지 軍중궐기 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안북도, 자강도, 남포시, 개성시, 사회안전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1. 6	<p>孔魯明 外務長官, 『北韓 食糧難 심각한 危機 아니다』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심각한 체제위기에 이른 것은 아니며 최소한 	<p>新年 『共同社說』 지지 軍중궐기 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남도, 황북도, 양강도 등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6	<p>春窮期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하다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는 備蓄米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미국에 공식적으로 지원요청한 바도 없음. ○ 기본적인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대북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 		
1. 7		<p>『祖平統』書記局長 한시해, 新年 『共同社說』 지지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祖國統一의 앞길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세력은 남조선의 문민파소집단임. ○ 사대매국집단 김○○ 일당과 같은 도적왕초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통일 대화가 진행될 수 없고, 북남관계가 개선될 수 없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이룩될 수 없음. ○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김○○ 반역 도당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함. <p>신년 『공동사설』 지지 군중궐기 대회</p>	<p>美 일간지, 『북한, 3~5년내 崩壞』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보스톤 글로브지 ○ 北韓의 식량공급은 수개월후인 4월경 바닥이 날 것이며, 그 이후 상황은 '89 루마니아 붕괴시와 비슷할 것임. ○ 北韓은 식량부족 등 경제난과 그에 따른 軍部の 개입으로 정치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들어 3~5년내에 붕괴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8	<p>高位黨政會議, 對北쌀지원 『2元化 추진 방침』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정부차원의 추가 쌀지원은 불가하나, ○ 韓赤·經實聯 등 민간차원의 대북쌀지원은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함. <p>새政治國民會議 朴智元 대변인, 對北쌀지원 신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쌀지원은 국민감정과 북한태도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되 南北和解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p>孔魯明 外務長官, 『北韓食糧難 3~4월 危機』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식량난이 심각하여 오는 3~4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북도, 강원도, 철도부 등 金正日, 各계층 單位들과 勞動者들 에 感謝文 전달 ○ 안악군내 농촌청년분조등 20개 단위와 근로자 15명에게 감사문 전달 <p>中·平放, 『반역자의 간교한 녀두리』 題下 金大統領의 발언 관련 論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며칠전 김○○괴뢰역도가 신년하례식에서 사회의 安定과 繁榮을 가져오겠다느니, 平和統一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느니 하였음. ○ 김○○일당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악정들로 하여 남조선 사회는 불법무법의 식민지 파쇼독재사회, 인권의 불모지, 사람못살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었음. ○ 김○○일당이야말로 민족안에 더는 살려둘 수 없는 반역의 화신이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극악한 원수임. <p>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書記局長 강태무, 新年 『共同社說』 지지談話</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이런 위기상황의 탈피를 위해 局地戰을 펼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비하고 있음. 		
1. 9	<p>金泳三 大統領, 새해 國政運營에 관한 談話</p> <p>〈남북관계 및 통일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력 유지에 모든 국력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구호를 바라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임. ○ 北韓은 和解와 協力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직시하고 대남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북한이 南北間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적극협조할 것임. ○ 南과 北은 이제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며, 환상적인 통일론은 경계해야 함. 	<p>勞動新聞, 『파멸의 무덤길을 재촉하는 전주곡』 題下 新韓國黨 團拜式 등 비난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이 새해 벽두부터 역사바로세우기요, 세계화요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하나 유리하게 치름으로써 비자금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것임. ○ 남조선 인민들은 김○○ 일당의 검은 속심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들에게 참패를 안기고야 말 것임. 	<p>英 선데이타임스誌, 『北韓의 承繼 遲延은 권력투쟁 때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상당수 정치인과 군부엘리트들이 점차 金正日에 대해 복종을 거부하고 있으며, ○ 주식직 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金正日과 軍高位장성들간의 권력투쟁 때문임. <p>日本 노로타 農産相, 對北 쌀추가지원 前提條件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두번의 쌀지원 관련 북한으로부터 어느地域에 배포했다는 아무런 메모도 받은 바 없음. ○ 대북 추가쌀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이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9			<p>정확한 배분상황을 일본에 알려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p>
1. 10			<p>美·北韓, 美軍遺骸 送還협상 개막 (1.11~13 하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협상에서 유해공동발굴문제, 송환비용, 신원확인문제등을 중점 협의하게 됨. ○ 쌍방은 유해문제 외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등 공동 관심사도 논의할 것으로 보임. <p>* 북측대표단은 외교부 국제국장 김병홍을 단장으로 하여 7명으로 구성</p> <p>日 관방장관, 對北쌀 지원 2차분 일부전달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노사카 관방장관은 대북지원 2차분 물량 20만톤중 7만9천톤은 이미 전달이 끝났으며,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1	<p>權五琦 統一副總理, 訪韓중 인 샘 년 美상원의원 接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견에서 權부총리는 北韓의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비축분 등을 감안할 때 체제위기에 이르렀다고는 평가하지 않으며, ○ 대북 지원문제와 관련, 이는 어디까지나 북측의 태도변화에 달렸음을 재확인 강조하였음. <p>國防部, 『'96 國防計劃』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경제난과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96. 4 總選과 미국의 '96. 11 大選을 악용해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음. ○ 효율적인 위기관리 태세를 유지하고 침투작전 및 局地挑發에 대비하는 한편, 완벽한 전면전 수행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p>勞動新聞, 金泳三 대통령의 새해 國政演說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은 권력에 앉자마자 T/S 훈련재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휴지화하고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 악수할 수 없다면서 北南對話를 전면 동결시켰음. ○ 뜻밖에 발생한 동족의 유고에 비상경계령을 내려 총부리를 돌려댐으로써 北南關係를 반목과 對決에로 몰아갔음. ○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해결에서 암적 존재인 김○○이 제거되면 북남관계도 개선되고 나라의 정세도 완화될 것임. <p>中放, 美 핵잠함 鎭海入港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基本合意文('94.10.21)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지적되어 있음. ○ 미국이 미사일이 장착된 핵잠함을 남조선에 끌어들인 것은 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머지 12만 1천 톤도 계속 선적중이며 곧 수송될 것이라고 밝혔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1	<p>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켜 현존 위협에 대비키로 함.</p>	<p>순한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며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난폭한 유린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비자금 사건으로 파벌의 위기에 있는 김○○일당에게 입김을 불어넣고 전쟁도발에로 부추김으로써 괴뢰들을 구원하고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임. 	
1. 12	<p>金泳三 大統領, 하시모토 日 신임 총리와 電話 通話</p> <p>〈金泳三 大統領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현재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측에서는 다각적이고도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對北問題는 韓·日 양국 간 긴밀한 협의아래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바임. <p>〈하시모토 日총리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日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안보적인 면에서도 이해를 같이하고 있음. 	<p>『祖平統』 서기국, 美 핵잠함 진해 입항 관련 報道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 基本合意文 이행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는 시기에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음. ○ 미국은 한편으로는 우리와 대화하고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양면전술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임. ○ 선의에는 선의로, 군사적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확고 부동한 입장임. 	<p>샘 년 美상원의원, 對北쌀지원 관련 離韓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고위 협의회(1.25, 하와이)에서는 북한 식량난 문제외에 장기적인 대북경제 접근방법도 논의될 것임. ○ 북한의 위협이 완화되면 미국은 한반도 방위문제를 제고할 수 있음. ○ 대북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군사예산 및 연습의 정보교환, 대치 지역 군사움직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韓國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나아갈 것임. 외무부, 駐잠비아 北韓외교관의 妻 최수봉 1. 7 亡命 발표 ○ 지난 1. 7 駐잠비아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현성일의 처 최수봉(36)이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하여 왔음. ○ 최수봉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망명 신청이며, 한국사회를 동경하는 사상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 ○ 잠비아 정부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UANHCR)과의 협의하에 본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하고 국제관행에 따른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p>사전통보, 위험방지센터 설립문제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p> <p>美 국무부, 美·北韓 遺骸協商 결렬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韓은 1. 11~13 하와이에 서 인도적 차원의 유해송환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주요문제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풀지 못했음. ○ 쌍방은 '93, '94년 미국측에 반환된 유해 162구에 관한 보상문제, 추가적 유해확인을 위한 협조방안 등을 토의하였음.
1. 14	<p>對北輕水爐 지원장비 『첫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KEDO간 경수로 공급협정체결(95.12.15) 	<p>『祖平統』 서기국, 『'96국방계획』 관련 報道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뢰 국방부장관은 올해가 절대적 고비라느니 경각심을 늦추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4	<p>에 따라 지질조사용 시추 장비 운반선이 1.14 부산을 출발하여 1.16 나진항에 도착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 기술진 17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제4차 경수로건설 부지조사단은 신포지역에 대한 지질 및 지진반응 등을 조사하게 됨. 	<p>말라느니 하면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자금 사건의 공모자, 5.18 학살주범의 비호자로 낙인되어 파멸에 직면한 김○○일당의 전쟁광증은 새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음. ○ 만일 김○○일당이 북남대결과 전쟁책동에서 위기의 출로를 찾아보려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전쟁의 길로 나아간다면 도발자들에게 천백배의 참패를 안기고야 말 것임. 	
1. 15	<p>金壽煥 추기경 등 6대 宗團 指導者, 北韓同胞구호동참 呼訴文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생활난과 수재로 고통을 겪고있는 북한동포들을 위해 민족애의 입장에서 범국민적 지원을 펼쳐야 할 것임. ○ 북한 동포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함. 	<p>勞動新聞, 『汎民聯』 남측의장 구속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이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것은 전민족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써 그것은 백번 정당함. ○ 남조선에서 쇠고랑을 차야할 범 죄자는 범민련 등 통일애국인사들이 아니라 반역질과 도적질, 반통일 행위를 일삼는 김○○일당임. ○ 김○○일당의 통일애국 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비밀자금 함정에 빠져 다 죽게된 심각한 통치 	<p>짐 콜스 駐韓미8군 代辯人, 『美軍捕虜 북한 生存』 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동란중에 실종된 미군이 지금까지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일부 보도는 전적으로 틀린 것임. ○ 하와이에서 열린 미·북한 유해협상(1.11~13)에서도 미군유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5		<p>위기로부터 출발한 최후발악적 행동임.</p>	<p>○ 미군의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음.</p>
1. 16	<p>權五琦 통일부총리, 訪韓 KEDO 사무총장 보스워스 接見</p> <p>* 통일원 대변인 브리핑</p> <p>○ 統一副總理는 대북 경수로 지원 과정은 국제협조 하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韓·美·日의 긴밀한 협조아래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p> <p>○ 보스워스 사무총장은 대북 경수로 지원 세부이행 협정 마련을 위해 2~3주 내 KEDO·북한간 실무 협상이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p> <p>○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은 신중한 낙관론을 기반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p> <p>亡命 최수봉·차성근 서울 到着</p>	<p>『祖國戰線』·『祖平統』·기독교도 연맹, 文益煥목사 3주기 즈음 慰問 電文</p> <p>○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열렬히 주장하던 애국정신을 겨레는 잊지 않을 것임.</p> <p>○ 우리는 유가족들과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가 목사의 생전의 뜻을 이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함.</p> <p>제4차 KEDO 敷地調査團 平壤到着 및 제3차 조사단 평양 출발 平放, 『'96.2 韓·美 聯合訓練』 관련 시사논평</p> <p>○ 미핵잠수함과의 연합훈련에 이어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하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압살 정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p> <p>○ 미국의 평화보장체계 수립제안</p>	<p>美 국방부 代辯人, 『美軍捕虜 北韓生存』 계속 탐문조사 표명</p> <p>○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는 60년대 4명이 탈영 월북하여 북한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에 등장한 사실임.</p> <p>○ 6.25 동란이후 미군 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일부 보도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잠비아 북한외교관 부인 최수봉(36세)에 이어 1.10 망명 요청한 차성근(29세, 태권도 사범)이 각각 서울에 도착하였음. ○ 잠비아 정부와 유엔난민 고등판무관(UHCHR)이 이들을 조사한 결과 자유의사에 의한 정치적 망명 요청임이 인정되었음. 	<p>계속 도전, 힘의 정책을 강요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예상의외 엄중한 국면으로 몰아가게 될 것임.</p> <p>『社勞青』 창립 50돌 기념중앙보고대회</p> <p>*백학림, 김중린, 장철, 최용해 등 참석</p>	
1. 17	<p>韓國 국방연구원 · 美랜드연구소, 統一後에도 韓美 安保同盟 필요 연구보고서 발표</p> <p>*공동연구보고서 : 『21세기의 새로운 동맹 : 한·미 안보협력의 미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半島 통일 이후에도 주변안보 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美軍을 주둔시키는 『地域安保同盟』이 바람직함. ○ 현재의 남북대치단계(제1단계)에서는 미국주도의 『韓半島 防衛同盟』을 유지하되, ○ 남북 화해 및 통합의 제2단계와 통일이후의 제3단계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地域安保 	<p>『祖平統』 서기국, 韓·美合同軍事訓練 '96.2 실시관련 보도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軍部가 B-1, B-52 전략 폭격기들에 핵폭탄을 싣고 전쟁연습을 벌이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실전으로 이행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음. ○ 미국이 전쟁연습을 계속벌이면서 우리를 위협해 나선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부득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p>『社勞青』 대표자회 開幕(1.17, 4.25 문화회관)</p> <p>*백학림, 조명록, 김중린, 장철 등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는 『조선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을 『김일성 사회주 	<p>美 국무부 代辯人, 韓·美·日 高位官吏會議 개최 계획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美·日은 북한에 관한 정책조율을 위해 1.24 하와이에서 고위 관리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同 회의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논의, 조정하고 북한의 대외개방을 고무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p>日本 시사잡지 사피오, 『북한군 장교 등 집단탈주』 보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7	를 유지하는 『地域安保同盟』의 형태가 가장 유리함.	의 청년동맹』으로 고철데 대하여가 의정으로 채택되었음.	○ 다수의 북한장교를 포함한 수십명의 북한군인이 食糧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집단 탈출하였음.
1. 18	<p>統一院, 『'95 南北交易동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역이 시작된 '91이후 2억불 수준이었으나 '95에는 3억불 수준으로 교역규모가 확대되었음. · '94년도 : 228,944천불 · '95년도 : 299,307천불 ○ 주요特徴으로는 '94대비 반출은 180% 증가, 직교역 9% 증가, 교역 품목 140% 증가, 교역 참가업체 130% 증가 등임. 	<p>『社勞靑』 대표자회 閉幕(1.18~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 김정일, 최광, 이을설, 최태복, 조명록, 백학립 등 ○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할데 대한 決定書를 채택 ○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규약 제정 · 同 청년동맹 기관지를 『청년전위』로 명명 · 중앙위원회와 도·시·군 위원회 기능 수행 · 중앙위원회는 『1비서』와 『부비서』로 직제 조정 <p>駐 잠비아 외교관 현성일(망명 최수봉 남편) 관련 談話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의 안기부는 북한의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기 위하여 우리 외교관들을 협박, 납치해 가고는 마치 그들이 남조선 사회를 동경하여 제발로 찾아간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음. ○ 남조선 당국은 이번에는 외교관의 유부녀까지 유괴하여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반인륜적인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중 16명은 중국군에 의해 체포되어 국경도시 丹東의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 <p>世界食糧計劃(WFP), 對北 食糧지원 참여 呼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식량 원조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원은 일단 확보했으나(향후 2달분) 북한 전역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追加支援이 필요함. ○ 북한에서는 250만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백만명의 주민이 기아의 위험에 처하여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8		<p>를 저질러 그들이 떠드는 이산 가족 재결합의 허위성도 날날이 드러났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비아 정부가 이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공정한 국제여론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모략책동을 당장 중지시키고 妻를 돌려보내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기대함. 	
1. 19	<p>宋榮大 統一院次官, 『南北關係 現況과 統一政策 추진방향』 강연</p> <p>* 정부주요정책 설명회(세종 문화회관)</p> <p>〈南北關係 現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사망이후 북한상황은 『불안정 속의 안정』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임. ◦ 북한의 작년 식량 생산량과 그동안 비축량을 감안할 때 금년 8~9월까지의 견딜 것으로 보며, 당장 큰 혼란이나 위기가 올것 같지는 않음. ◦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해 대남 긴장관계 유지와 실리추구의 2중적 대남전략 	<p>金正日, 『社勞青』 代表者會 제2일 회의 참석(4.25 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깃발 수여및 사로청 대표자회를 지도하였음. 	<p>國際蹴球聯盟(FIFA), 대한축구협회에 『北韓의 월드컵 共同開催 제의』 관련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조선축구협회는 1.8, 15일 2002년 월드컵 남북공동개최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실무적인 조언을 요청하였음. ◦ FIFA측은 1.18 답신에서 북측의 공동개최 아이디어는 대한축구협회와 직접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 월드컵 유치경쟁이 진행중인 현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9	<p>을 지속적으로 구사해 나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는 북한의 대남 긴장·대결상황 유지전략으로 당분간 당국간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p>〈統一政策 推進方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자간 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당국자간 대화는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과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가야 함. ○ 북한 사회가 폐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공존공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북한 사회의 변화와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 <p>統一安保政策調整會議, 對北 쌀지원 문제 등 懸案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장완화를 비롯한 북한의 대남 관계개선노력을 촉구하고, 식량등의 대북 		<p>계에서는 FIFA가 이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대북 통보하였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9	<p>지원문제는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변화가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문제 역시 식량사정에 관한 실태 확인과 군사목적으로의 전용방지 조치 강구,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1. 20	<p>鄭夢準 대한축구협회장,北韓의 월드컵 共同開催 제의 환영 記者會見(L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제의는 우리에게 또다른 명분을 주는 것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며, ○ 남북한이 합의만 한다면 國際蹴球聯盟(FIFA)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 북한측 진의를 파악하는 대로 일본의 최고위 유치 관계자를 만나 2002년 월드컵 유치 포기를 제의할 생각임. <p>김상진 大韓蹴球協會 부회장,北韓의 월드컵 공동개최 제의관련 기자회견</p>	<p>外交部 代辯人, 對北 水害지원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불순세력들은 국제적인 수해지원을 정치화해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음. ○ 우리 군대는 인도주의적 지원문제가 제기된 초기에 그것이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려는 시도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었으며, ○ 우리 군대의 이러한 의심은 식량 지원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불순세력들의 온당치 못한 행동으로 더욱 커가고 있음. ○ 우리는 지원 아닌 지원에 더는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자체의 결심과 판단에 따라 우리가 할바를 하게 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2차례나 전문을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공동개최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공동개최는 기술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남북관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임. ○ 북한의 이에 대한 관심도 등 사태추이를 지켜본 후 정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임. 	<p>外交部 代辯人, 美軍 遺骸발굴팀 해체위협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한 유해협상이 1.11~14 하와이에서 개최되었으나 미측의 비이성적 태도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 미측은 인도된 유해들의 적절한 보상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음. ○ 우리는 유해발굴 기술진 해체와 관련 조만간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향후 문제해결은 미측의 자세에 달려있음. <p>김정일, 조선인민군 체육선수들 접견 및 기념촬영</p> <p>*배석자 :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등</p>	
1. 21			<p>레이니 주한美대사, 對北食糧 원조시사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식량원조를 하지 않는 것이 생존위협으로 인식되면 북한 정부는 흔들리거나 와해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식량을 사용치는 않을 것이며 식량을 언제 주는가 하는 시점이 문제임. ○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합작회사』와 같은 것이며, 한국보다 앞서가거나 압력을 넣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임.
1. 22	<p>權五琦 통일 부총리, 『北韓의 食糧사정 危機아니다』 표명</p> <p>*SBS-TV 특별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식량 사정이 모자라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체제존립위기에 다다른 것은 아님. ○ 북한의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3백45만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하루 곡물소비량이 1만톤 정도로서 당분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 남북간 민간 교류를 지 	<p>勞動新聞, 韓美合同 군사훈련 '96.2 실시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조선 위협론과 중국 위협론을 들어 조선반도 주변에서 전쟁연습을 벌이며 美·日·南朝鮮 3자 軍事同盟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朝美 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 제공협정이 체결되고 실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핵 위협 소동을 벌여놓고 있음. ○ 우리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 하면 할수록 침략자 미국의 정체는 더욱 드러날 것이며 反美 감정만을 불러일으킬 따름임. 	<p>도모토 日 참의원, 『北韓, 南北會談 開催 希望』 기자회견</p> <p>*北韓 수해상황 조사 차 1.13~21 訪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아·태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은 『구체적 내용이 있으며 南北對話를 開催하고 싶다』고 표명하였음. ○ 북측은 일본의 쌀 50만톤을 전국에 배포하였다고 하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2	<p>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나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도 당국간 회담은 필요함.</p>	<p>勞動新聞, 韓·美 對 潛艦訓練(1. 20~29)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부 계층은 핵문제가 명분을 잃게되자 北의 위협론을 내돌리며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음. ○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데로 나간다면 천백배의 징벌을 가할 것임. 	<p>면서 쌀을 추가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음.</p> <p>하야시 日외무차관, 3차 대북 쌀지원 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추가 쌀지원 희망관련, 지금까지의 지원은 긴급 수입쌀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취한 예외적 조치였으며, ○ 3차 대북 쌀지원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1. 23	<p>統一院 『'96 業務計劃』 발표 * 통일원 대변인 브리핑 〈3대 추진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가치를 구현하는 통일논의의 세계化 ○ 북한당국뿐만 아니라 주민도 함께 보는 複眼化 ○ 통일대비의 各論化 〈대북태도 변화 유도〉 ○ 경수로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p>金正日, 조총련 代表團과 조선인민군협주단 公演관람 * 참석자 : 김용순, 최용해 등</p> <p>국제적십자사 대표단 평양도착</p> <p>제4차 국제원자력기구 협상대표단 평양 도착</p>	<p>朝總聯 기관지 조선신보, 『북한, 애틀란타 올림픽 9종목 出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애틀란타 올림픽에 육상, 체조, 사격, 역도, 유도, 탁구, 레슬링, 권투, 수상경기 등 9개 종목에 출전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의 단계적 확대 ○ 『민족발전 공동계획』 마련 ○ 북한 인권개선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환경 조성〉 ○ 평화체제구축 3원칙 후속 조치 강구 ○ 북한의 대미 평화체제 공세대비 대책 ○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제협력 체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대화 재개대책〉 ○ 회담운영 체제 정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사항〉 ○ 대북정보 역량강화 ○ 북한변화 대비책 강화 ○ 국민적 합의기반 확대 ○ 통일정책의 각론화와 종합조정 기능강화 <p>韓美日 高位政策協議會 참가 우리측 대표단 出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 전반적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3국 고위정책협의회 (1.24~25, 하와이) 참가 한국대표단(潘基文 외무부 제1차관보) 9명 출국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4	<p>權五琦 統一副總理, 對北 쌀 지원 관련 記者懇談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공식 절차를 통해 북경회담을 제의해 올 경우 나머지의 조건만 만족 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지금까지의 일관성 원칙에 맞지 않음. ○ 레이니 주한미대사의 쌀을 미끼로 한 북한개방 발언(1.21)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대북경협을 통한 지원이 적절할 것임. 	<p>中放, 『北侵을 위한 武力增強 策 동』 제하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은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대량살육무기에 이르기까지 살인전쟁장비들로 꽉 들어찬 거대한 전쟁화약고임. ○ 나라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김○○ 일당이야말로 북남대결만을 꿈꾸는 민족 반역자, 통일의 원수, 전쟁 광신자들임. ○ 겉으로만 평화통일 운운하며 전쟁의 길로만 나가는 김○○을 인민들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임. 	<p>韓美日, 대북쌀지원 高位政策協議會 개최 (하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日側은 국제적십자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對北食糧지원 의사를 한국측에 전달해 왔음. ○ 한국측은 북한주민에 전달된다는 透明性만 보장되면 반대하지 않을 것과 同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p>유엔 人道支援局(DHA), 『대북 확대지원 요청』 呼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이며 보다는 많은 원조를 필요로 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5	<p>최광혁(25세, 인민군 하사) 등 귀순 3명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은 동계훈련('95. 12~'96.4)에서 주·야간 일과변경, 강도적응훈련, 야간훈련을 집중 강화하고 있음. ○ '95.10~11월경 2회에 걸쳐 한국쌀로 보이는 노란 포대로 된 쌀 5포대와 車 1대분이 우리 중대(강원도 소재)에 지급되었음. <p>李壽成 국무총리, 臨時國會 국정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남북대화를 외면하고 적대적 자세와 전략을 견지하는 한 대북지원은 어려움. ○ 그러나 대남비방중지, 북한당국의 공식요청, 당사자간의 협의 등 기본조건이 충족될 경우 쌀지원등 대북협력이 가능할 것임. <p>韓美日 고위협의회, 공동『言論發表文』 發表(호놀룰루)</p>	<p>『汎民聯』 북측본부 백인준·의장, 同 결성 5돌 즈음 담화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족공동위원회를 시급히 내오고 전면적이며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우리는 연방제 통일실현을 위한 투쟁과 결합시켜 북·남·해외의 3자가 연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p>美 국제경제연구소, 北韓의 공식 代表團 2.5 訪美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2.5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한경제개혁에 관한 회의 참석차 북한대표단이 미국을 공식방문하게 됨. ○ 북한 외교부 미주국장 이형철이 무역부와 경제정책위원회 관리 7명을 인솔할 것임. <p>美 백악관 代辯人, 『北韓軍 訓練 우려수준 아니다』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軍의 훈련은 통상적으로 겨울에 활발해지고 있으나 우려할 만한 특별한 병력증강이 탐지되고 있지는 않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國 대표단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南北關係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 南北對話의 開催가 필수적이라는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향후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수개월 이내에 차기 고위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1. 26	<p>權五琦 統一副總理, 대북 쌀 문제 등 주요懸案 보고</p> <p>*국회 통일외무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쌀지원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북측의 공식적인 지원요청, ii) 남북회담의 한반도내 개최, iii) 대남 비방, 증상중지 등 북측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 북한의 식량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1회 	<p>『祖平統』 대변인, 南韓의 강원도 고성 核發電所 건설계획 관련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핵발전소들이 건설되면 세계적 명승지인 금강산과 설악산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그 어떤 우발적 군사적 충돌에 의해서도 온 겨레가 무서운 핵재난을 당하게 될 것임. ○ 대규모의 핵기지를 건설하려는 김○○일당의 책동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고의 	<p>야케다 日외상, 對北 쌀지원 韓·美와 계속 협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제공 문제를 韓·美 양국과 계속 협의하여 추진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6	<p>성의 지원을 넘어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日 등 국제적 지원문제는 i) 실태 파악 선행, ii) 주민들에게의 투명적 전달, iii) 남북관계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p>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규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핵기지를 우리측 지역 가까이에 건설하려는 데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음. <p>中放, 南韓의 정운영(48, 前민자당 선전부장) 1.25 入北 보도</p>	
1. 27	<p>金鴻來 공군참모총장, 北韓 군사동향 豫測不許 발언</p> <p>*공군 지휘관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체제불안, 심각한 식량난, 국제적 고립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임. ○ 북한 군부내 強硬派의 득세와 함께 戰鬪機 전방배치 등으로 예측불허의 군사동향을 보이고 있음. 	<p>中放, 李壽成 국무총리의 國政報告 관련 시사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는 1.25 임시국회 국정보고에서 北이 남북대화를 외면하고 있다는니, 휴전선일대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는니 뭐니하였음. ○ 그것은 북남대화의 결렬과 긴장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쓰워 막다른 정권위기에서 벗어나며 최악의 경우에 전쟁을 도발하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임. ○ 그가 떠벌이는 변화와 개혁이란 자본주의 바람을 불어넣어 변질시켜 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임. <p>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 세계 경제 연단연차회의(스위스) 참가차 평양 출발</p>	<p>이집트 가제트紙, 北韓의 食糧難 위기상황 아니라고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식량난은 군량미를 방출할 경우 해결이 가능할 것이므로 위기 상황으로 간주할 수 없음. ○ 북한은 임시방편적인 외부원조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배분, 농기술 및 비료개발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집중하여야 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7		기독교도연맹 대표단(위원장 강영섭) 마카오 향발	
1. 28		<p>中·平放, 南韓 漁夫들 집단적으로 入北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어부들이 작년말 어선 『707 대영호』를 타고 제주도 성산항을 떠나 최근 동해의 김책항(*성진항)에 도착하였음. <p>中·平放, 入北 대영호 선원들 記者會見 보도</p> <p>*참석자 : 김정언, 김정현, 고천권, 이길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배는 제주도 근해 어선인데 이번에 갈치잡이 하러 바다에 나간 기회에 공해로 빠져 북한에 의거하였음. ○ 남한에서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우리는 인간답게 참되게 살 수 있는 북한에 의거할 결심을 갖게 되었음. 	<p>유엔, 國際機構 등의 對北食糧支援, 2,800 만불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는 1. 23 현재 2,800만 불을 대북지원했다고 유엔 인도지원국(DHA)이 밝혔다.
1. 29		<p>朝鮮反核平和委, 남한의 강원도 고성 核發電所 건설계획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 북반부 가까이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김○○일당의 책동은 北南關係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도발로, 온 민족과 조 	<p>日 요미우리신문, 中國의 對北 2차지원 方針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지원방침은 북한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증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9		<p>국강토를 핵참화속에 빠뜨리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로서 이를 규탄함.</p> <p>○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핵기지건설을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임.</p>	<p>와 식량난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임.</p> <p>○ 대북 2차지원 규모는 북한의 동절기 부족분 식량 60~70만톤 정도 추계에 따라 20~30만톤 정도 지원이 예상됨.</p> <p>*1차지원 : 구호품 362만불('95.10)</p> <p>國際赤十字聯盟(IFRC) 사이먼 부국장, 對北水害 追加支援 방침 발표</p> <p>○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추가지원 요청에 따라 '96.8까지 2차 대북지원 비상계획을 운영할 것임.</p> <p>○ 韓赤에서 보내준 모포, 양말, 라면 등 구호물품이 수재민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0	<p>亡命 北韓 外交官 현성일 (37) 서울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무부 당국자 브리핑 ○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인 현성일이 지난 1.23 우리측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해와 이를 허용하였음. ○ 잠비아 정부 유엔난민 고등판무관(UHCR)에 의한 自由意思 확인절차를 마쳤으며 1.30 서울에 도착함. *최수봉(현성일의 처) 1.16 서울 도착 <p>韓國開發研究院(KDI), 北韓의 食糧實態 관련 보고서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시사점」 ○ 북한의 지난해 생산량 약 4백만톤에 비해 올해 수요량은 약6백만톤으로 약 2백만톤이 부족함. ○ 작년 생산량 4백만톤은 8개월분에 해당되며 이는 금년 6월까지의 소비량에 	<p>中央通信, IAEA와의 第4次 협상결과 報 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원자력총국과 IAEA 대표단이 1.24~29 평양과 영변에서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凍結된 핵시설 감시문제에 관한 제4차 협상을 가졌음. ○ 조미 기본합의문에 의거 북한·KEDO간 경수로 공급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未凍結 핵시설에 대한 IAEA의 定期 및 臨時查察을 허용할 것임을 IAEA측에 통보하였음. <p>黨 군사위원회, 越北者 優待에 관한 「決定」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거자들에게 생활보장금 지급, 敵에게 손실을 준 功勳에 따라 해당한 표창 및 상금을 지급함. <p>『農勤盟』 創立 50돌 紀念 중앙보고 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 이종옥, 김중린, 최성숙(농근맹위원장)등 ○ 부주석 이종옥은 당축하문 전달에서 김정일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위해 투쟁하자고 역설하였음. 	<p>IAEC대변인, 북한이 주요핵시설에 대한 사찰 여전히 거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IAEA가 신고된 대부분의 주요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미·북한간 합의에 따른 동결시설 및 원료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이 없었음. <p>世界食糧計劃(WFP) 평양사무소장, 北韓 주민 餓死보다도 오히려 病死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주민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량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화돼 폐렴이나 기관지염 증세로 죽어가고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0	<p>해당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일부의 주장처럼 올 봄에 식량이 바다나 수백 만명이 饑餓危機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p>安企部, 北韓 住民4명 귀순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순자 4명은 북한을 탈출 제3국을 경유하여 1. 30 入京하였으며 귀순동기들은 조사중임. <p>*남 수(38, 온성 우산공장 지배인) 홍진희(27, 인민군 제7군단 수산부업지도원) 이성현(40, 대동강 건설회사 러시아 현장 운전수) 김정용(26, 재령 노동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 饑餓로 인한 사망자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곡물재고가 바다나면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일부 국가에서 구호물자가 軍事 專用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음.
1. 31		<p>『정당·단체 연합회의』, 남한과 해외의 정당·단체·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p> <p>*참석자 : 양형섭, 김용순, 유미영, 김용호, 주성일, 백남준, 한시해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1996년에는 북남, 해외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1		<p>다같이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만들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 해외에서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합동군사연습 반대배격, 반전 반핵운동,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 등 전민족적 운동을 벌여나가야 함. ○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적인 억압체제를 청산하여 전민족 대단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함. ○ 올해에 평화와 민족대단결로 연방제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을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올해를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만들기 위하여 북남, 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계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접촉과 대화를 실현하여야 함. ○ 우리는 북남, 해외의 정당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 사이의 접촉과 대화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어도 좋을 것이라고 인정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	<p>統一院 대변인, 北韓의 政黨 · 團體 聯合會議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북한측의 연합회의 보고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내용으로서 새로운 것이 없으며, 정당·사회단체와의 대화·접촉을 주장함으로써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배제하고 있음. ○ 북한이 진정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이 마주앉아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임. <p>權五琦 統一副總理, 離散家族相逢 최우선추진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회담이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가 실현되도록 힘쓸 것임. ○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을 적극 지원해 나아갈 것임. 	<p>북한기독교도연맹 강영섭위원장, 수해피해대책 필요성 강조(마카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나눔과 연대회의』 ○ 이번 큰물로 8개도의 145개 市·郡에서 520만명의 주민(이중 信者 2,600명)이 피해를 당했으며, 그 피해액은 150억달러에 달함. ○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2,567만달러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자들이 도착(주로 의약품)하여 수재민들에게 제 때 골고루 전달되었으며 많은 도움을 주었음. ○ 뜻밖의 이런 상황으로 주민들간에 매우 긴장한 국면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1년간 보충적으로 필요한 양곡은 약 320만톤에 달함. 	<p>日 경제신문, 日本의 국제기구 통한 대북 쌀지원 방침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정부는 직접적인 대북쌀지원은 자제하는 대신에 세계식량계획(WFP)등 유엔기구를 통한 지원은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 북한 식량사정은 지난해 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나 당장 체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2. 2	<p>金雲龍 대한올림픽위원장, 北韓體育人 서울방문 招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4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생활체육총회(4.21~24, 워커히 호텔)에 북한대표단(조선국가체육위원장 박명철)을 초청함. <p>孔魯明 외무장관, 安承運 목사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안목사를 납치해간 것은 사실이고, 현재 중국이 범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송환은 당연함. ○ 정부는 북한이 납치해간 안승운 목사의 원상을 촉구하도록 중국측에 요청하였음. 	<p>外交部 대변인, 한·미·일 고위협의회(1.25, 하와이)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국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식량부족난이 구조적 문제에 기인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체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였음. ○ 이는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로서 조미기본합의문의 기초를 허물어 버리는 행동으로밖에 될 수 없음. ○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남대화를 걸고 유엔기구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의 우리에게 대한 식량지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 ○ 남조선에는 우리와 마주앉을 대화의 상대자가 없으며 있다면 반대화 반통일 집단만이 있을 뿐임. <p>對外經濟委員長 이성대, 北韓의 식량문제 등 관련 기자회견(스위스 다보스)</p> <p>*세계경제포럼</p>	<p>日 외무성 하시모토 대변인, 對北쌀문제 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기아가 야기된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 日本은 재정원조나 긴급식량지원을 할 새로운 계획은 없음. <p>美 국무부 代辯人, 對北食糧지원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호소에 응해 북한의 흉수피해를 구호하는데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음. ○ 대북구호 식량지원을 위해 대외재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국간 지원보다는 일본이 직접 지원을 해주는 2국간 방식의 지원 확대를 바람. ○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쌀 50만 톤은 수재민에게 대부분 무사히 배급되었으며 추가적 원조를 요청함. ○ 김정일의 국가주석 및 당총비서 취임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탈상이 끝난 뒤가 될 것으로 이해함. 	<p>난구호기금(FD A)가운데 2백만 달러를 지원할 것임.</p>
2. 3	<p>韓 · 日 外相會談, 日 · 北 修交문제 관련 意見 合意(태국 푸케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일 · 북 관계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조화 병행되어야 함. ○ 북한의 대남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재개하지 않기로 하였음. 		
2. 4		<p>労働新聞, 日本 정부의 對北關係 개선 발언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새정부는 조일관계 정상화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4		<p>면서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관계정상화 증진을 원한다면 일본정부는 남조선 괴뢰들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행동을 삼가해야 할 것임. ○ 일본이 조선에 대한 공정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들의 체면은 개선되고 조·일 관계 정상화의 진전은 이뤄질 것임. 	
2. 5	<p>孔魯明 외무장관, 레이크美 대통령 안보보좌관 面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지난 1.24~25간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韓美日 3자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강화시키 나가기로 하였음. ○ 미측은 한국을 배제한 미·북 접근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남·북관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북관계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하였음. ○ 미국측은 금번 WFP에의 200만불 기탁조치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상징적 조치로서 제한된 	<p>勞動新聞, 李養鎬 국방장관의 對北 대비태세만전 지시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는 北의 異常 動向이니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니하면서 안보취약시기인 총선기간에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음. ○ 우리는 최근에 정당·단체연합회의에서 올해를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만들데 대한 평화애호적인 제안을 내놓았음. ○ 김○○일당은 저들이 처한 절망적인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반공화국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에서 찾으려고 날뛰고 있음. ○ 김○○일당이 떠들어대는 北의 위협론은 곧 뒤집어 놓은 북침전쟁 구호임. 	<p>日시사통신, 美國의 중유비용 對日요청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일본에 대해 '94.10 미·북한 합의에 의한 대북중유제공 비용 1,200만불을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p>美 국무부 대변인, 北韓의 테러포기 書翰 접수 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으로부터 테러를 포기하는 서한을 받았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5	<p>목적에 위한 것임을 설명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경수로 지원, 중유제공을 비롯한 미·북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양국간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p>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對北 食糧支援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나눔과 연대회의』(1.29~2.2, 마카오)참가보고 ○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가 중심이 되어 전세계 개신교가 인도적 차원에서 수재로 고통받는 북한을 돕기로 합의했음. ○ 대북지원 합의에 따라 국내 각 교단도 구체적 북한수해에 대한 지원방법을 논의키로 했음. ○ 북측과 오는 4. 7남북공동부활절 예배문을 사용키로 합의했으며 이에따라 조만간 교계내 논의를 거쳐 북측과 협의할 방침임. 		전혀 아는 바 없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6	<p>統一院 代辯人, 北韓난민수용소 설치 報道관련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통』주최 토론회시(2. 6) “대한적십자사가 대량 탈북자 발생에 대비, 한강 이북의 초·중학교 시설 270개소를 임시수용시설로 활용 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 등은 정부에서 검토한 바 없음. ○ 탈북·귀순자들에 대해서는 귀순동포보호법등에 따라 사안별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 난민수용소 설치계획은 검토치 않고 있음을 거듭 강조함. 	<p>社會民主黨 대변인, 政黨·團體 연합회의 제의 支持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연합회의의 제의는 현정세의 요구로 보나 거래의 염원으로 보나 매우 시기적절하고 합리적인 발기로서 이를 지지함. ○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는 朝·美사이에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는 것임. ○ 우리는 평화와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온다면 남조선의 그 어느 政黨과도 過去를 묻지않고 接觸하고 對話할 것임. <p>合營 『페레그린 대성은행』 개업식 진행(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대성은행과 홍콩페레그린 투자주식회사가 합영 <p>政務院 총리 강성산, 中國 서북부 地震관련 이봉총리에게 慰問 電文</p> <p>中國 당대외연락부 代表團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장 : 부부장 대병국 	<p>로드 美동아태차관보, 美北關係 진전은 南北對話와 연계 強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경제제재 추가완화 등 전반적인 美北 관계 진전여부는 南北對話와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음. ○ 美·北 연락사무소 관련 우리는 북한에 의해 제기된 일부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음. ○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은 유엔을 채널로 한 긴급하며 인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韓·日의 식량 원조와는 구별되어야 함. <p>美 태평양 공군사령관, 北韓 戰爭挑發 가능성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계속 번영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6			<p>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경제적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들은 飢餓로 인해 전쟁의 길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를 피해야 함.
2. 7		<p>天道教 청우당 代辯人, 政黨·團體 연합회의 提議 支持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과 南, 海의 온겨레가 민족대 단결의 기치밑에 뭉쳐 평화 화해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함. ○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민족적인 입장에서 조국통일실현에 나선다면 그 누구와도 過去를 묻지 않고 接觸하고 對話할 것임. ○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金正日장군 두리에 뭉쳐 민족대단합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p>世界食糧計劃(WFP) 평양 사무소장, 北韓 곡물 등 販賣허용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당국은 정상적인분배가 어려운 食糧問題에 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關係規定을 완화하였음. ○ 北韓 농부들이 현지 시장에서 食糧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과일, 야채, 닭, 의복 등 판매시장이 다수 목격되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8	<p>權五琦 통일부총리 주재 統一安保政策調整會議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각적인 탈북자 수용대책 및 韓·美·日협력체제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음. 	<p>中通, 美國의 2백만불 對北 수해지원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정부는 식량구입을 위한 인도적 조치로써 세계식량 계획을 통해 200만불을 지원한다고 지난 2. 2 통보해 왔음. ○ 비정부적 기구들과 미국인들이 정부의 허가없이도 구제물자 제공·자금기증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할 것이라 함. ○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朝·美 기본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임. <p>勞動新聞, 孔魯明 외무장관의 日·北 關係 발언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는 일본측에게 남북관계진전시까지 대북 수교교섭차제, 남북 대화에 응하도록 대북 설득 등을 애걸복걸하였음. ○ 김○○일당이 떠드는 南北關係改善·對話再開 등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며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과 朝·日관계 개선을 가로막아 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임. <p>李升基(91, 과학원 함흥분원장, 비낱론 발명)사망</p> <p>*'50. 6월북 화학자</p>	<p>美 NYT지, 北韓 식량지원 中斷요청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교부 부부장 최수현은 지난 2. 2 국제 구호단체들에게 식량지원 활동의 중단을 요청하였음. ○ 이같은 북한정책의 변화는 식량지원에 대하여 北韓軍部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p>美國무부, 對北 2백만불 支援 예정대로 推進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국제기구들의 새로운 식량지원 사업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하여 왔으나, ○ 對北 2백만불 지원계획 관련 북한은 공식적인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 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 중앙인민위 · 정무원 에서는 장의식을 『國葬』으로 결 정하고 이종욱 · 김병식(부주석) 등 30명으로 國家葬儀委員會를 구성하였음. 	
2. 9		<p>『제707 대영호』 선원들 기자회견 (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기자회견(1.28) ○ 작년 12.26 성산항을 출항하였 으나 풍랑을 만나 고생만 하다 가 이북으로 가자고 의견이 서 로 맞아 '95.1.28 김책항에 도착 하게 되었음. <p>『金正日の 위대성』에 관한 人民武 力部 발표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日생일(2.16)을 기념하여 조 명록, 김영춘, 김광진, 박재경 등 이 연사로 출연하여 위대성 칭송 <p>현철규(귀순 현성일 父)함남도당 책에서 경질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임 이태연(전 남포시 행정경제 위원장) 	
2. 11		<p>北韓 적십자회 代辯人, 北韓 주민 大量脫出說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 적십자사와 보도들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1		<p>은 北에서 대량 탈출사태가 예상된다면서 대규모 난민수용소를 설치한다느니, 난민 임시수용 대형천막과 급식처를 마련했다느니 떠들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에게 있어서 난민이란 있을 수 없으며, 남조선과 해외에서 번민하던 사람들까지 찾아와 인덕정치하에서 재생의 길을 걷고 있음. ○ 김○○일당이 전쟁과 충들을 가져올 수 있는 흡수통일야망까지 드러내 놓고 있는데 대하여 수수방관할 수 없음. 	
2. 12	<p>姜英勳 『韓赤』총재, 『제707 대영호』선원 送還요구 對北 放送通知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07 대영호』는 성산 포항 출항시 8명이 승선 하였으나 귀측보도에 의하면 선장 김정연등 4명만 월북한 것으로 발표되고 나머지 4명의 행방과 안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음. ○ 귀측 방송은 의거 월북하였다고 하나 가족들은 그들이 일시적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믿고 있으며 조 	<p>平放,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은 평화통일의 전제』題下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와 미국 사이에 새로운 平和保障體系가 수립되면 조선반도 정세는 완화되고 北南合意書의 이행도 순조롭게 될 것임. ○ 停戰協定 체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軍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은 새로운 평화보장 체결 수립에 끼어들 자격이 없음. ○ 그들로서는 北과 南이 민족 앞에 확약한 불가침 선언을 이행하는 일이나 하면 될 것임. 	<p>LA타임스, 北韓 崩壞 過程 進入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행정부는 북한이 식량난과 만성적 경제난으로 붕괴 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 북한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계태세에 들어 갔음. ○ 이같은 상황을 감안,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의 돌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2	<p>속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 적십자회가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4명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제707대영호』선원 모두가 조속 송환되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람. 	<p>『제707 대영호』 船員 歡迎 평양시 群衆集會(중앙노동자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해(조평통 서기국장), 신안방(평양시 행정경제위부위원장) 등 참석 	<p>적인 붕괴나 대규모 주민탈출, 또는 전쟁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시키려는 정책을 취하여 왔음.</p> <p>北韓 국제쌀지원 選別 수용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유엔 북한대표부 발표 ○ 외부에 식량지원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은 軍部の 강력한 반발 때문임. ○ 또한 일부 적대국가와 불순세력이 식량지원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려하기 때문임. ○ 국가간의 쌍무적 지원은 종전과 같이 받아들여되 국제 구호단체들의 원조는 선별 수용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3	<p>歸順 현성일 夫婦 · 차성근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주석 및 당총비서 승계 지연은 김정일에 대한 『孝誠』부각작전이며, 승계시기는 3년상이 지난 '96.7 이후가 유력함. ○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하여 문학·예술밖에 모르고 경제는 전혀 무관심하여 인민을 위한 정치는 말뿐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김정일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朝·美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核과 戰爭카드를 계속 활용할 것임. ○ 북한 당국은 '95.9~10해 외공관에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활동전개를 강요하는 전문을 여러차례 하달하였음. 	<p>平放, 북한주민 大量脫出對備計劃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 괴뢰들은 북의 住民 大量脫出說을 집요하게 유포시키면서 대규모 난민수용소를 설치, 부·처별로 통합대비계획을 마련한다하며 일대 분주탕을 피우고 있음. ○ 그러나 대량 난민탈주는 공화국의 주민들속에서가 아니라 남조선 어선 707대영호 선원들이 집단적으로 의거한데서 명백히 드러났음. ○ 김○○일당은 또다시 모략극을 꾸며냄으로서 지금까지 떠들어온 對話와 協力이 위선에 불과했다는 것을 드러내었음. 	<p>북한 成惠琳(김정일의 본처) 一行 4명 제3국 脫出 (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혜림(59), 성혜랑(61), 이남옥(30), 수행원 1명 ○ 成惠琳은 '83부터 신병치료차 러시아 체류중 지난 1.20경 모스크바를 탈출하여 현재 잠적중임. * 이한영(36,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아들) '82귀순 <p>北韓, 애틀란타 올림픽 아시아지역 卓球 예선 參加申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탁구협회 발표 ○ 북한은 3.26~28 일본 지바현에서 개최되는 同 예선 대회에 참가 엔트리를 보내왔음. ○ 북한 선수단(단장 김희진 탁구협회 전무이사)은 임원 4명, 남녀선수 각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3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음.
2.14	<p>安企部, 成惠琳 일행 亡命관련 言論發表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언론의 『정부당국이 성혜림 자매의 국내 입국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급파했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 『성혜림 자매가 조만간 서울로 올 것이다』라고 보도한 내용과 이들의 현재 체류지 및 향후 행선지에 대해서도 확인 할 수 없음. ○ 현재로서는 이들의 신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 당국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p>國防部, '96 T/S訓練 中止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94, '95에 이어 4번째 중단 ○ 韓·美 양국은 韓半島안보상황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美·北合意 	<p>平放, 『對決관념을 버려야 한다』題下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美해군의 96-2K 훈련(2.9~18) 관련 ○ 美國이 2월 중순 조선반도 주변에서 벌이는 전례없는 군사광란은 의연히 우리를 군사적으로 壓殺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임. ○ 美國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이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해야 하며, 그것은 곧 우리가 내놓은 새로운 平和保障體系수립 제안임. <p>金正日 生日즈음「陸·海·空軍 장병 결의모임」進行(백두산 밀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록, 김영춘, 김광진, 이하일, 김하규, 이종산, 박재경 등 참석 ○ 金正일에 혼연일체 忠誠을 다짐하는 합동낙하훈련, 축포발사 등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음. 	<p>北韓 보안요원, 러시아 貿易代表部 무장 亂入 亡命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경비보안요원으로 밝혀진 무장청년이 북한 경비병 3명을 사살하고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였음. ○ 러시아 당국은 亡命 許容與否를 신중 檢討하고 있으며 러시아 대사관 측도 북한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4	<p>의 지속적 이행을 위한 신뢰증진 차원에서 '96훈련을 중지키로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 T/S 훈련관련 北韓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치 않거나 심각한 군사위협을 가할 경우 재개될 것임. 		
2.15	<p>外務部 대변인, 北韓 경비병 러시아 대표부 亡命관련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측의 통보에 의하면 망명을 요구해온 청년은 북한 社會安全部 소속 下士官인 조명길(25, 정치범수용소 경비원)로 밝혀졌음. 망명동기는 불분명하며, 우리로서는 이 사건이 러·北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전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임. <p>統一安保政策調整會議, 최근 北韓정세 評價 및 對策협의</p> <p>〈언론 발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北韓 권력승계 지연, 군부발언권이 높아지는 경향, 탈북자 증가등 사회 	<p>中通, 成惠琳 亡命說 관련 단호한 보복 對南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조선 괴뢰들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지도부를 악랄하게 혈투는 놀음을 벌여놓은 것은 우리에게 대한 전면도전과 대결을 선언한 것과 같음.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남조선 괴뢰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정정당당한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 우리의 보복은 빈말이 아니며 무자비하고도 철저할 것이며 그들 자신은 물론 그 족속들까지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임. <p>金正日 生日 5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개최(4.25 문화회관)</p> <p>*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최 광, 김영남, 계응태 등 참석(김정일,</p>	<p>러시아 政府 代辯人, 北韓무장망명 경비병 自殺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길 하사는 북한인 3명을 죽인 범죄로하여 정치적 망명으로 볼 수 없어 자수를 요구하였음. 자수 요구가 거부됨에 따라 북측 특공대 진압을 허용하게 되었으며 작전과정에서 자살하였음. <p>*외무부 徐大源 대변인, 러시아 정부의 『자살』공식 통보 표명</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5	<p>일탈 현상과 불안정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남비방 등 대남정책 및 태도에 변함이 없으며 작년 말 전진 배치한 항공 무력을 철수하지 않고 장기 배치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였음. ○ 정부는 북한의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보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p>孔魯明 외무장관, 귀순탈북자 문제 등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경제난과 정국 불안으로 탈북자의 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북한 동포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탈북 귀순하는 경우 가급적 전원 수용할 것임. ○ 대북쌀지원 관련 북한의 대남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이나 추가지원은 고려될 수 없음. 	<p>강성산, 김영주 不參)</p> <p>〈당비서 최태복 『報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日是 창조형의 영재, 명장형의 위인,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수령과 사상·뜻·목표에 있어서 같음. ○ 金正日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정치 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6		<p>中央通信, 무장 亡命요구 『조명길』 生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나라 보도계는 이타르타스 통신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라면 서 무기를 휴대한 우리 공민이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였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 여론을 유포시키고 있음. ○ 그 자는 이미 전에 重한 정신병 자이며 살인범죄 행위를 감행한 자로서, 그러한 유포놀음은 의학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어리석고 가소로운 논리임. ○ 러시아측도 이 자가 심한 정신병 자로서 살인범죄 행위를 감행하였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측에 인도하는데 협조하였던 것임. ○ 그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며, 사실이 이러할진대 일부 나라 보도계의 비열한 반공화국 책동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 	
2. 17	<p>韓國開發研究院(KDI), 南北統一 2010~20년 달성 展望</p> <p>*정부 신경제 장기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은 '90~2000까지 신뢰 구축과 협력 증진, 		<p>러시아 大使館, 조명길하사 生存說 否認</p> <p>*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조명길 하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2010년에 남북연합 단계 형성, - 2010~2020년에 남북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외교 및 국방문제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상품 및 자본의 이동을 보장하는 2국가 2체제의 과도기 형태임. 		<p>사가 생존해 있다는 아무런 정보도 없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정부 대변인이 지난 2.15 발표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음.
2. 20		<p>金正日, 음력설 즈음 各種行事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군 협주단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2.18) ○ 집단체조『장군님따라 붉은기 지키리』관람(2.19) ○ 조선인민군 제963부대 여성중대 방문(2.20) <p>北韓 佛教徒聯盟, 南北佛教徒 예비 접촉문제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의 불교인권위원회는 올해 또 다시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 협의를 위해 음력설인 2월 19일에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여 왔음. ○ 이번 예비회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일당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였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남조선 불교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지 성원할 것이며 어느 때든 회담장에 나갈 준비가 되어있음. 	
2.22	<p>合同參謀本部, 韓·美 합동 對테러훈련 실시 計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成惠琳 일행의 서방국가 탈출관련 국내외에서의 요인 압해 및 국지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보복행위를 초전에 격멸하기 위해 韓·美 합동으로 '96. 3부터 3회에 걸쳐 對테러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p>外交部 대변인, 平和保障體系 수립 관련 談話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서 무장 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관련 전개된 제안을 내놓음. ○ 첫째로, 조선반도에서 무장 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 사이에 暫定協定이 체결되어야 함. ○ 둘째로, 잠정협정을 이행·감독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朝美共同軍事機構가 조직·운영되어야 함. ○ 셋째로, 잠정협정을 채택하며 조·미 공동군사기구를 내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해당쪽에서 協商이 진행되어야 함. 	<p>亡命 成惠琳일행 美 國行 유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 고위당국자 ○ 프랑스에 체류중인 성혜림 일행의 신변안전을 고려하여 망명지는 미국으로 잠정 결정 될 것임. ○ 망명지 결정과정에서 북한의 노골적인 테러 위협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종착지는 한국이 될 것임. <p>北韓, 海外 체류 高位 層 자녀 歸還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 ○ 북한은 잠비아 대사관 현성일 부부의 망명을 계기로 해외 고위층 자녀들에 대해 귀국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2			<p>소환령을 내렸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당국은 소환령을 받은 외교관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하여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음.
2.23	<p>統一院 대변인, 北韓의 暫定協定체결 對美제의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제의는 現 정전체제를 무실화하고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미국과의 양자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종래의 그릇된 주장을 반복한 것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남북 당사자가 주체가 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등 기존합의를 존중하며 관련국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함. ○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現 정전상태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때까지 現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군사정전위원회에 하루속히 복귀해야 할 것임. 	<p>北韓, 政黨·團體 聯合會議(1.31)에서의 채택便紙 대남·해외 인사들에게 發送</p> <p>*김윤환, 김대중, 김수환, 송월주 등 政黨·단체·각계인사 91명</p> <p>중방, 北韓의 잠정협정 對美 제의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정전체제는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고 군사정전위원회 기능마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임. ○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과도적으로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라도 마련하자는 것임, ○ 조·미 기본합의문이 채택·이행되고 잠정협정까지 체결되어 군사문제에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신뢰조성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임. 	<p>번스 美國무부 代辯人, 北韓의 暫定協定 제의 관련 言明</p> <p>*정레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맹방인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어떠한 협정체결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잠정협정에 앞서 군사정전위원회에 복귀하는 문제부터 재고하여야 할 것임. <p>北韓, 日本적십자사에 쌀 配給內譯 통보 (1월 중순)</p> <p>*산케이신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지원 받은 쌀 15만톤에 대한 배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3			<p>급처를 통보하여 왔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급내역중 수해가 큰 평안남북도 보다는 강원도에 가장 많이 배급된 것은 군용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시사함. <p>※ 배급내역</p> <p>강원도 34,300톤 자강도 28,500톤 함남도 23,000톤 평북도 20,500톤 평 양 11,000톤 평남도 10,000톤</p> <p>미국무부, 북한을 “여행경고 대상국가”에서 제외</p>
2. 24	<p>統一院 『'95년도 南北交易』 보고서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남북교역 규모는 승인기준 3억 1천만불, 통관기준 2억 8천 7백만불을 기록하였음. (쌀 15만톤 2억 5천만불 제외) ○ '89남북교역 이래 처음으로 	<p>勞動新聞, 4월 『總選』즈음 反政府 선동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도당의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이르고 전쟁의 위험은 시시각각 커지고 있음. ○ 김○○일당이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것은 막다른 고비에 처할 경우 외세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4	<p>로 3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中·日에 이어 3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가공교역이 '94대비 60%증가하였으며, 반입과 반출의 비율이 3.2對 1로 개선된 것이 특징임. 	<p>와 함께 북침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겠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대중의 눈밖에 난 김○○일당은 이미 산송장에 지나지 않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에 김○○집단을 심판하여야 할 것임. 	
2.25	<p>金泳三 대통령 就任 3주년 記者懇談會(뉴텔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현재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북한이 불행한 종말을 맞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 우리는 국방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비하고 있으며 韓美關係도 어느때보다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음. <p>民族統一研究院, 『'96北韓人權 白書』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는 80년대말 동구권 붕괴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약 20만명 정도 수용되어 있음. ○ '55이후 강제납북 남한인은 3,738명이며 이중 3,296명 송환되고 442명이 		<p>KEDO 제4차 敷地調査團, 신포 방문후 歸還(1.16~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는 이번 조사를 끝으로 신포시 금호리 지역을 경수로 건설부지로 선정할 예정임. ○ KEDO측은 이어 경수로 비용산정, 主계약자인 韓電과 상업계약 및 북한과의 후속협정 체결협상을 벌일 것임. <p>泰國 인민경찰청장, 僞裝入國 北韓人 감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북한인 8~9명이 한국인으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5	<p>아직 抑留되어 있음.</p> <p>〈억류자 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부 407명 · 해군 20명 · KAL피납 12명 · 기타 3명(고상문, 이재환, 안승운) 		<p>신원을 속이고 위장 입국함으로써 이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음.</p>
2.26	<p>『韓赤』李柄雄 사무총장, 對北水災 지원관련 北側의 答信內容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통보 ○북한은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은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고, 『담요』는 많은 량이 이미 분배되었다면서 추가 지원을 사양하였으며, ○『건축자재』는 자금만 확보되면 북측지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여 왔음. ○『韓赤』이 희망한 물자의 육로수송과 『韓赤』代表의 북한 방문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 왔음. 	<p>勞働新聞. 日本의 남한 偏向政策 시정 촉구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의 對조선정책은 철두철미 反공화국 적대시 정책, 남조선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되게 특징지어 지고 있음. ○ 조·일 사이에 3당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 부간 회담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의 압력을 받아 모처럼 마련된 조·일 회담은 결렬되었음. ○ 우리는 일본의 새정부가 독자적 인 외교 自立外交를 표방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의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금후 대조선 정책을 평가하는 시금석으로 될 것임. 	<p>유럽聯合(EU), KEDO 에 625만불 支援 決議(브뤼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각료회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625만불 지원안을 결의하였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6	<p>統一院, 『'95 北韓貿易잠정 평가』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95년 무역규모는 20.6억불로 '94(21.1억) 대비 3.4%감소하였음. ○ 지난해 수출은 5.9억불, 수입은 14.7억불로서 '88년 이래 7년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국가별로 일본이 처음으로 최대 교역국(5.9억불)으로 등장하였으며 다음으로 중국(5.5억불), 한국(2.9억불)순임. 		
2.27	<p>남북종교대표자회의, 「공동 합의문」 채택(북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통일이 우리민족의 최상 과제임을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는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종교인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였음. ○ 남북 종교대표자들은 조국통일의 성업실현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대를 굳게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운동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p>勞動新聞, 4월 『총선』즈음 『선진세력』교체촉구 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자면 단순한 연령적 세대교체가 아니라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선진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남조선 인민들은 사대매국과 반공대결, 분열과 전쟁, 부정부패의 김○○집단과 진부한 보수세력을 축출하고 선진세력들을 정계에 들여앉혀야 함. 	<p>日本정부, 北韓붕괴시 대응 시나리오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니혼게자이 신문 보도 ○ 日정부는 북한의 식량에너지난에 따른 경제위기의 가속, 연쇄망명 사건 등을 통제력의 약화 조짐으로 보고 있음. ○ 北韓이 중장기적으로 체제붕괴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7	<p>※ 南北宗教人會議『정례화』 개최 잠정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韓 양측은 종교인 회의를 서울과 평양에서 정례적으로 번갈아 개최 하되, · 정치적 유동성 때문에 여 의치 않을 경우 제2차 회 의를 6월중 도쿄에서 갖 기로 하였음. 	<p>『祖平統』서기국, 南側의 군사연습 관련 보도 703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지역을 목표로 한 전쟁연 습소동은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최악의 정권위기와 국회의원 선 거를 앞둔 신한국당 패거리들의 위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음. <p>金正日, 동부전선 351고지 軍部隊 現地 指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접자 : 이하일(차수), 김명국· 전재선(대장), 박재경(상장) 등 	<p>대비 『위기대처 시나리오』를 검토 하고 있음.</p>
2.28		<p>『汎民聯』北·海外本部 議長團 비 상회의(평양)</p> <p>*참석자</p> <p>백인준(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서만술·양동민(同 해외본부 부 의장) 임민식(同 해외본부 사무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는 지난해 11월말 체포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부의장들을 비롯한 핵심 성원들 과 통일애국인사들의 석방을 위 한 앞으로의 투쟁대책을 협의하 였음. ○ 회의에서는 구속된 남조선 통일 애국인사 석방대책 北·海外 공 	<p>조던 CNN 副社長, 『北韓崩壞 조짐없다』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訪北中 북한당비서 김용순면담(2.26) ○ 북한의 식량난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이나 붕괴 조 짐은 발견할 수 없 었음. ○ 북한 김정일은 3 년 탈상인 오는 7 월이후 취임식을 갖고 금년 중에 권 력을 공식 승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8		<p>동위원회를 내오며, 회의 명의로 세계 각국 정당·단체들과 국제기구들에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음.</p>	<p>할 것임.</p>
2.29	<p>國防部, 北韓 船員 2명 구조 및 屍體2구 인양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낮 강원도 강릉 180km해상에서 표류중 이던 북한 구명정 1척을 발견하여 선원 2명을 구조하고 시체 2구를 인양하였음. ○ 이들 생존선원들은 북한 석탄화물선 『염분진호』(9,955톤)가 침몰한 후 해류를 따라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흘러내려 온 것으로 보임. ○ 북한선원 송환 등 신병처리 문제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끝난 뒤에나 결정될 것임. 	<p>最高人民會議 통일정책위원회, 『政黨·團體연합회의 채택便紙』 각국國會·團體에 發送</p> <p>3·1 人民蜂起 77돌 기념 平壤市 보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제안에 하루 빨리 긍정적으로 응해 나와야 함, ○ 일본이 진정으로 조·일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 보다 과거의 침략적 죄행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남조선의 정당·단체·각계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대화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 <p>金正日, 제436비행군부대 현지도</p> <p>*참석 :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오금철</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	<p>金泳三 大統領, 南北對話 조속재개 促求</p> <p>* 3·1절 77주년 기념사</p> <p>○ 우리는 3·1운동을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와 당당한 민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잘못된 역사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바로잡아야 함.</p> <p>○ 북한도 불신과 반목의 자세를 청산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광장으로 나와야 하며,</p> <p>○ 우리는 南과 北이 진정한 민족의 화해를 위한 對話를 조속히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음.</p>	<p>勞動新聞, 統一對備要員 해외파견 對南비난 論評</p> <p>○ 민족지상의 과제인 統一問題를 남에게 청탁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쓸개빠진 자들의 행동이 아닐 수 없음.</p> <p>○ 괴뢰들이 떠벌이는 南北對話 재개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마치도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려는 것에 불과함.</p> <p>○ 괴뢰들이 진정으로 北南對話를 再開할 의사가 있다면 민족앞에 저지른 반인륜적 죄행을 사죄하고 악명높은 법적, 제도적 장치와 물리적 장벽을 철폐하여야 함.</p>	<p>도쿄신문, 北·日 修交協商을 위한 實務接觸 보도</p> <p>○ 북한과 일본은 '95. 4이후 북경에서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벌여 왔음.</p> <p>○ 북한은 수교협상을 평양과 도쿄에서 교환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일본측은 이에 동의 하였음.</p> <p>○ 북측은 교섭단장에 정태화(외교부참사)를 임명하고 이를 일본측에 통보하였음.</p>
3. 2	<p>高麗大 경제연구소, 對北投資 『觀光部門』 유망 발표</p> <p>* 『북한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p> <p>○ 남한의 국토경쟁력은 km² 당 379.5만 달러로서 북한의 15만 달러에 비해 24.3배임. ('94 기준, 국토경쟁력은 면적 對比 국민총생산임.)</p>	<p>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염분진』호 선원송환 요청 對南電 通文</p> <p>○ 우리 무역집배 『염분진』호가 동해 공해상에서 심한 파도로 조난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음.</p> <p>○ 보도에 의하면 조난당한 우리측 선원 2명과 시신 2구를 귀축해 군경비정이 실어갔다고 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회가 개방된 후 건설진출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觀光부문임. 權五琦 통일부총리, 對北식량지원 정부입장 불변 강조 *매일신문 창간 50주년 회견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할 만큼 인식돼 있으므로, 북한의 실질적인 정권책임자가 책임있는 자리를 이어받게 되면 정상회담 문제가 재론될 수 있다고 봄. ○ 북한의 식량난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식량난만으로 곧 체제가 어찌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곤란함. ○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전과 같음. 즉 북한측의 공식적인 요청, 관련회담의 한반도내 개최, 대남비방·증상 중지임. ○ 경협확대는 앞으로 경수로 지원사업의 진전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귀측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입장에서 우리 선원 2명과 시신 2구를 시급히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	등을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임.		
3. 3	<p>金泳三 大統領 · 존 브루튼 아일랜드 총리 정상회담 (방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KEDO가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한·EU관계가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p>대만연합보, 대만의 북민간대표단 초청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민간대표단의 대만 파견에 잠정 동의했다면서, ○ 경제관리들의 말을 인용, 대만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과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
3. 4	<p>姜英勳 『韓赤』총재,北韓 화물선 선원 송환관련 對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9 동해상에서 우리측 해군경비함에 의해 구조된 귀축 화물선 염분진호 생존선원 2명을 치료·보호 중이며 사망자 시신 2구도 안치하고 있음. ○ 본인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적 견지에서 이들을 '96. 3. 5, 11:00 판 	<p>북한외교부 대변인, 對北 식량지원 문제관련 언론보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서방의 일부 보도매체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당장 큰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여론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가소로운 일임. ○ 우리 인민이 일시적인 난관 앞에서 신념과 의리를 버리고 자기의 생활이고 생명인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버릴 수 있다고 	<p>국제사면위, 러시아에 이연선씨 송환과정 재조사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가까이 탈북을 시도하다 지난해 9월 북한으로 송환된 이연선씨와 관련하여 러시아측에 이씨 송환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4	<p>문점을 통해 귀측에 송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측의 상응하는 조치를 바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동진호, 대영호 선원 등을 포함하여 귀측에 억류하고있는 우리측 인원들도 조속히 송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임. 	<p>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기 그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주의적 지원은 어디까지나 고유한 의미에서의 지원으로 되어야 함. 만약 인도주의를 악용하여 우리 제도와 정책을 헐뜯고 약화시키려 한다면 우리 인민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 <p>토지개혁법령발표 5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p> <p>*참석 : 이종옥, 한성룡, 최대복, 홍성남, 김중린, 서관희, 윤기복 등</p> <p>노동新聞, 金泳三 大統領의 3.1절 기념사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역도에게는 대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쥐뿔만큼도 없음. ○ 교류와 협력이니 대화재개니 하는 괴뢰역도의 낚두리는 저들의 반통일적, 호전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내들리는 기만용어에 지나지 않음. 	<p>日, 표류 북한어부 4명 송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 동해해상 표류중 구조된 북한어부 4명이 북한 화물선 돌봉호편으로 귀환 <p>러 미하일로프 核에너지 장관, 北에 核기술판매 사실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북한의 핵시설 건설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으며 앞으로도 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제휴할 것을 바라고 있음.
3. 5	<p>金泳三 大統領 · 메이저 영국총리 정상회담(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통령은 영국이 KED 	<p>中通, 『염분진호』 선원들 歸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선원들은 당의 은혜로운 품을 그리며 혁명적 신념을 굳히 	<p>WFP 방콕주재요원 앨런 매휴, 對北원조용 태국산 쌀 5,600톤 선적 사실 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5	<p>○에 기여키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p> <p>○ 메이저총리는 남북간 상호신뢰회복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여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지지를 표명</p> <p>北韓 화물선 『염분진호』선원 판문점 통해 送還</p> <p>○ 3. 5, 11 : 00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선원(2명), 시신(2구)을 송환하였음.</p> <p>- 선원 : 리진규(기관수), 김일철(요리사)</p> <p>- 사망자 : 김순종(의사), 오승택(전기공)</p> <p>외무부 대변인, 美, 北여행 경고국 지정 해제 사실 확인</p> <p>○ 美국무부가 2.23자로 북한을 여행경고 대상국가에서 제외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음.</p>	<p>지 않았으며 사랑하는 조국의 품으로 기어이 돌아왔음.</p> <p>○ 그들은 판문점 중앙분리선을 넘자마자 김정일 만세를 목청껏 불렀음.</p> <p>金正日, 인민군최고사령부 군악단 창립 50주년 경축연주회 관람</p> <p>*참석 : 조명록,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계웅태, 최태복, 김기남 등</p> <p>『범청화련』 북측본부, 정민주·이혜정 석방을 위한 비상회의 진행 (평양고려호텔)</p>	<p>○ WFP는 북한에 원조할 태국산 쌀 5,635t을 방콕항 외곽에서 주말까지 선적완료할 것이며, 주말께 남포항을 향해 출항 예정임.</p> <p>월리스 그린피스 대변인, 日, 아시아국가에 핵연료판매 추진 주장</p> <p>○ 일본은 몬주사로 핵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핵연료 판매를 추진하고 있음.</p> <p>美재무부, 해외자산 통제 규정완화 조치</p> <p>○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對北 구호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해외자산통제규정을 일부 완화시켜 3. 5</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5			<p>발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따라 미국정부의 사전승인없이 미국인이 제3국으로부터 『기본적인 인도적 요구』에 따라 물자를 기증할 수 있게 됨.
3. 6	<p>『민주평통』, 北돌발사태발생 가능성 주장</p> <p>*북한체제위기론에 대한 평가와 분석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돌발적인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p>勞動新聞, 金泳三 大統領의 아시아 순방 외교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역도의 이번 행각은 사대매국적인 구걸행각, 청탁외교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 ○ 김○○ 역도가 통일정책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는니 뭐니하고 너스레를 떤것도 사람들의 조소만 자아냈음. ○ 김○○ 역도가 행각기간 외교공조체제 강화와 불력불가담 나라들에 대한 외교강화에 열을 올렸지만 망신만 당하였음. <p>조선종교인협의회, 남한종교단체들에 편지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부터 기독교, 불교, 천주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어용종교인들이 대북종교발송을 	<p>미국두루, 北인권상황 최악의 상태 지속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례 세계인권 보고서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부정되고 초법적인 살인과 실종이 빈발하고 있으며, 고문과 강제수용이 계속되는 등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됨이 없이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p>유엔, 北식량난 북한 농업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6		<p>통하여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중상비방하면서 우리내부의 불화와 반목을 조성해보려는 악랄한 목적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무분별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모처럼 싹트기 시작한 북남종교인들사이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물론 소속 종단에 대한 신뢰와 영상을 흐리게 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함. ○ 참 종교인들이라면 응당 북남종교인들 사이의 광범한 대화와 접촉을 실현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야 함. <p>국제부녀절 8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진행(3. 6~7, 중앙노동자회관)</p> <p>*참석 : 박성철, 김중린, 김복신, 강관선, 최용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12. 9~12. 16 기간중 FAO, WFP 북한현지실사 보고 자료 ○ 북한의 현 식량위기가 지난 해 내린 폭우등 천재지변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됨. ○ 경작가능지역이 국토의 5분의 1에 불과해 절대적인 농지부족, 단일재배, 집약농, 과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력약화 등에 주요문제가 있음. ○ '95년도 수확분이 바닥나는 오는 8월~9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임.
3. 7		<p>金正日, 청년협주단 공연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김정일, 김기남, 김중린, 최용해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7		<p>동해표류 北어선(즈소 6052호) 선원 4명 청진항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들은 지난해 12.31 나진항을 출항 고기잡이를 하던 중 96. 1. 2 기계고장으로 50여일간 표류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음. * 귀환자 : 박성일(선장), 최택모, 김영일, 진동운(선원) 	
3. 8		<p>『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평화보장체계수립 관련 『비망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정전협정 서명 직후부터 동협정의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군정위를 마비시키는 한편 중감위의 중립성과 공정성까지 파괴해 버렸음. ○ 이러한 결과 조선반도에는 정전을 담보할 군사적 제동장치가 결여된 상태에 있으며 도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지게될 것임. ○ 만일 미측이 우리의 협상제외에 응해 나오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우리는 낡은 정전체제를 새로운 장치로 바꾸기 위한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로 나갈 것임. 	

■ 3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9	폴 크리블랜드 美경수로 담 당대사 대북경수로 사업논 의차 방한		日 산케이신문, 北대 학생 청진서 2월말 反정부 데모설 보도 ○ 지난 2월말 청진에 서 대학생 2백명이 반정부 데모를 일 으켜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등 치안 당국이 경계상태에 들어갔다고 보도
3.10			대만연합보, 北선박 서 무기용 화학물질 압수 보도 ○ 대만 항만경찰은 파키스탄으로 향 하던 북한선박 전 승호에서 무기제 조용으로 보이는 34.8t의 화학물질 을 발견, 조사를 벌이고 있음.
3.11	金泳三 대통령, 北군사모험 가능성 경계 강조 * 제52회 육사졸업식 치사 ○ 북한은 체제의 불안정성 과 함께 흑심한 경제난을 겪고있음.		싱가포르 통상대표 단, 對北 경협논의차 방북 ○ 싱가포르 무역개 발원 관리들과 6 개기업대표 등 10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체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엉뚱한 군사적 모험을 택할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함. ○ 국가안보에 관한한 우리는 한치의 허점도 용납해서는 안되며, 평화는 힘이 있을때만 지킬 수 있는 것임. <p>韓·美, 對北 輕水爐사업 한국의 중심적 역할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 클리브랜드 美경수로 담당대사·장선섭 경수로 기획단장 회의 ○ 對北 경수로 사업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돼야 하며 조속한 시일내 한전이 주계약자로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로 합의 		<p>명으로 구성 6일간 방문</p> <p>WFP, 對北지원 2차분 쌀 선적화물선 向北 확인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로 태국에서 구입한 쌀 2차분 5,636t과 원조기구인 '카리타스'가 의뢰한 903t을 선적한 화물선이 3.11 방콕을 출발, 북한으로 떠났음. <p>박경서 WCC아주국장, 대북지원 쌀 『한국』 표기 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北 수제시찰(3.2~9) 귀국 기자회견 ○ WFP(세계식량계획)평양주재 대표 트레이버 페이지에게서 북한 큰물복구 대책위원회가 WFP프로그램차원에서 원조되는 식량이라면 남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1			에서 보내는 쌀임을 알 수 있는 표기를 명시해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음.
3.12	<p>政府, 화학무기금지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비준안 의결 <p>金泳三 대통령, 탈북자 700명 입국 희망, 선별 수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북 5도민 대표 청와대 초청오찬 ○ 현재 제3국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가 700명 가량 있으나, 정부는 이들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고 선별적으로 받고 있음. ○ 이북 5도민들이 이들의 의식전환과 적응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바람. ○ ASEM에서 합의된 한반 	<p>平放, 日산계이 신문의 北대학생 反정부 시위설 보도관련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반정부 시위설은 우리 사회에 위대한 일심단결이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져지고 있는데 겁을 집어 먹은 남조선 괴뢰들의 단말마적인 비명에 불과함. ○ 우리는 지난해에 산계이 신문이 우리의 큰물피해를 두고 남조선 괴뢰들의 모략에 놀아나면서 과장설을 내들렸을 때 이미 그들에게 남조선 괴뢰들의 정치적 시녀노릇을 더는 하지말데 대하여 엄중경고한 바 있음. ○ 만약 산계이 신문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열한 반공화국 모략에 매달린다면 반드시 비싼대가를 치루게 될 것임. <p>泰國주재 북한대사 李三魯, 北·美 平和會談 성사땀 한국 움저버자격 참가 검토 발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2	<p>도 관통 유라시아 철도건설은 통일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변 국가들과 함께 북한측을 설득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53년 한국전을 중단케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첫조치로 2.22 북한 외교부가 제의한 잠정 평화협정을 수락해야 할 것임. ○ 만약 북·미간 잠정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앞으로 평양측과 워싱턴측간에 갖게될 平和會談에 한국이 읍저버로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임. <p>독일 동아시아협회 대표단, 평양 도착</p> <p>* 단장 : 에드가 E. 놀드만</p>	
3.13	<p>金泳三 대통령, 주권 훼손 단호히 격퇴 강조</p> <p>* 海士졸업식 참석 치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어떠한 도전도 단호히 격퇴해야 함. ○ 북한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군비증강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체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무모한 행동을 저지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p>외교부대변인, 美국무부의 연례 세계인권보고서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미국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연례행사처럼 다른나라들의 인권실태를 제멋대로 날조해서 시비질하는 인권보고서를 만들어 내돌리는 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음. ○ 가소로운 것은 세계적인 인권불모지로 공인된 제 처지도 모르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상전의 궤변을 모방하여 주제넘게도 그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운운해 나선것임. 	<p>게리 러 駐韓미사령관, 北붕괴 시기·방법문제만 남았다고 언급</p> <p>* 美하원 국가안보 세출소위 증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상황을 지켜볼 때 문제는 북한이 붕괴할 것인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붕괴할 것인가로 자체붕괴냐, 남침이나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인권이 가장 철저히 담보되고 있는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음. 	<p>을 뿐임.</p>
3.14	<p>金泳三 대통령 · 엘친 러시아 대통령, 映像頂上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大統領은 한 · 러간 동반협력관계가 보다 심화되기를 희망하며 러시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협력의 중계자 역할도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엘친대통령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동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한간 대화개를 희망하며 이웃인 한국이 러시아에 우호적이고 번영된 통일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p>『祖平統』 대변인, 남북대화 문제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 당국자는 북남대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여론을 오도했었음. ○ 남조선 당국자의 언동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전쟁접경으로 끌여가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임. ○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통치배들의 반대화 반통일 책동 때문임. ○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대화에 나설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유고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여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체포 구금된 통일애국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하여야 함. 	<p>러 · 북 국경통제 협력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 이타르타스 통신 보도 ○ 러시아 국경수비대장 비탈리 세드호 중장과 함북 수비여단장 박연수 소장이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에서 만나 러 · 북 국경조약의 내용에 따른 국경통제협력 방안을 논의 <p>北, 『한적』지원 라면 주민에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주재 국제적십자 연맹 요원 ○ 북한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월 보낸 라면 10만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4			<p>를 그동안 세관에 쌓아놓고 있었으나 지난주부터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p>
3.15	<p>金泳三 대통령, 北, 교류·협력의 場에 나올 것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空士졸업식 치사 ○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불안정한 체제속에서도 군사력의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음. ○ 북한이 하루빨리 `군사모험주의를 포기하고 민족공영의 길로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함. ○ 북한은 폐쇄의 빙장을 풀고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이것만이 북한이 오늘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 <p>천주교, 北수재민돕기 성금 1억7천만원 『韓赤』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15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p>북한 올림픽위원회 전무이사 張雄, 남북한 월드컵 공동개최안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張雄 전무이사가 북한을 방문중인 가와테이 에이치 아시아 테니스연맹회장겸 일본 올림픽 위원회 국제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2002년 월드컵 남북한 공동개최안을 부정했다고 보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5	<p>를 방문, 북한 수재민들을 돕기위해 신자들이 모금한 성금 1억7천8백만원 을 전달</p> <p>孔奘明 외무장관, 총선이후 대북관계 개선 시사 발언</p> <p>*외교협회 초청 강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급변 상황이 우리에게 지우게 될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함. ○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북한의 개방 및 개혁을 유도하는 것임. ○ 북한과의 직접 접촉에 의한 변화유도와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북 개입 정책을 병행 추진해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3.16		<p>해운부, 『염분진호』 선원·유가족 표창 및 선물 수여식</p> <p>*공화국 노력영웅칭호 수여 : 이종선(선장), 이배문(정치부장), 박광식(무전장)</p>	<p>클린턴 美대통령, 北 美관계 진전 남북대화 연계 강조</p> <p>*'96 국가안보전략 보고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6		<p>金正日, 경기용 총탄공장 현지지도</p> <p>* 수행 : 계응태, 최태복, 조명국, 이하일, 김기남, 김용순, 채문덕</p> <p>金正日, 조선인민군 4.25 예술영화 촬영소작 경희극 "약속"관람</p> <p>* 수행 : 조명록, 이하일, 김명국,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p>	<p>○ 북·미관계진전은 북핵타결에 대한 평양측의 지속적인 협조와 남북관계 개선 및 미사일 확산방지문제등과 균형있게 이루어질 것임.</p>
3.18	<p>金泳三 대통령, 對北 경계 유지 강조</p> <p>* 제12기 경찰대학 졸업식 치사</p> <p>○ 북한의 앞날을 희망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없음.</p> <p>○ 북한이 체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함.</p> <p>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주계약자로 『韓電』 공식 指定(뉴욕)</p> <p>* 참석 : 장선섭 경수로 기획단장·클리블랜드 美대사·세키 히로모토 日本대사</p>	<p>중방, 美국방대학 『96년 전략보고서』 관련 비난 論評</p> <p>○ '96년 전략보고서에서 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北 조선이라고 걸고든 것은 아시아 침략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美 국방성 우두머리들이 고안해낸 날조품이고 정치모략임.</p> <p>○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고 미국정부에 거듭 새로운 평화제안을 내놓고 있음.</p> <p>○ 미국은 그러한 제안에 선의를 가지고 대할 대신에 오히려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행동만 하고 있음.</p> <p>○ 미국이 지금처럼 우리의 평화제안을 계속 외면하고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응당 그에대한</p>	<p>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 核동결 검증 불응 비난</p> <p>* IAEA이사회 보고</p> <p>○ 북한은 94년 미국과 맺은 제네바협정에 따른 폐쇄된 실험용 원자로에 사용된 플루토늄의 양을 서방기술자들이 측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8		<p>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p> <p>金正日, 서부전선 대덕산 哨所 軍部隊 방문</p> <p>○ 조명록·이하일(차수), 김명국·김하규(대장), 박재경 상장등이 동행하였음.</p> <p>※ '96 金正日 공식등장 日誌</p> <p>'96. 1.19 사로청 대표자회의 참석</p> <p>1.20 조선인민군 체육선수단 면담</p> <p>1.23 조선인민군 협주단 공연 관람</p> <p>2.28 조선인민군 합창단 공연 관람</p> <p>2.19 집단체조 관람</p> <p>2.20 제963부대 여성중대 방문</p> <p>2.27 동부전선 351군부대 현지지도</p> <p>2.29 제436 비행부대 현지지도</p> <p>3. 5 최고사령부 군악대 연주 관람</p> <p>3. 6 청년협주단 연주관람</p> <p>3.16 4.25예술영화촬영소 공연 관람</p> <p>3.16 경기용 총탄공장 현지지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9		<p>노동新聞, 孔魯明 外務長官의 南北 對話 발언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며칠전 공로명은 北이 남북직접 회담을 가질 용의를 가져야 평화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 朝·美간 기본합의문이 이행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관계가 개선된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게 될 것임. ○ 조·미 관계개선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절실하고도 必須不可缺한 요소임. ○ 김○○일당은 속에도 없는 北과의 대화요 관계개선이요 위장할 것이 아니라 패륜패덕을 사죄하여야 함. 	<p>KEDO 執行理事會 閉幕(3.18~19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美日 3국 집행이사국은 韓國電力을 대북경수로 사업 主계약자로 공식 지정하였음. ○ 한국전력이 주계약자로 지정됨으로써 앞으로 대북경수로 사업을 일괄(턴키 베이스 방식)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KEDO는 대북경수로 공급협정체결에 따른 북한과의 1차 後續議定書 協商을 오는 4월 둘째주 중에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임. <p>美 國務部 로드 차관보, 美北 關係改善 관련 發言</p> <p>*美하원 아·태소위 청문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체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9			<p>는 남북한 당사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남북대화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필수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간 관계개선의 진전, 경제제재 추가완화 등을 위해서 남북대화가 선행되어야 함. ○ 북한의 잠정협정 제의관련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갖지 않을 것임.
3.20	<p>孔魯明 외무장관, 中國 錢其琛 외교부장과 會談(북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暫定協定은 실현성이 없으며 한반도의 停戰體制는 유효하다는데 합의하였음. ○ 중국 錢部長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하였음. 	<p>金正日, 中部戰線 오성산 軍部隊 및 512부대 革命史跡地 방문</p> <p>*이하일(차수), 김명국·김하규(대장), 박재경·오금철(상장) 등이 동행</p>	<p>유엔식량계획(WFP), 對北 쌀 輸送船 침몰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수재 쌀지원 선박 淸多號(중국선적 2,819t)가 3.19 대만해협에서 침몰하였음. ○ 美·濠·스위스 등이 기부한 쌀 6,500여톤을 선적한 동 선박은 3.11 방콕을 출발하여 3.23 남포항에 도착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0	<p>KEDO－韓國電力, 主契約者 합의서 署名(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電은 對北 텀키베이스로 제공되는 1천MW급 경수로 2기 건설사업에서 법적지위를 확보하며 책임적으로 수행함. 		<p>할 예정이었음.</p> <p>유엔 訪北대표단장 마드센, 北韓 崩壞 狀況 아니라고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인도지원국 (UN DHA)크엘 마드센 기자회견 ○ 북한의 식량난이 극도로 심각한 지경이기는 하나 대외 원조, 내핍생활 전통 등으로 추가적 지원 없이도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는 북한이 식량난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음. <p>北韓, 暫定協定 관련 公翰 유엔 安保理에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안보리 공개 ○ 미국이 평화체제 전환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잠정협정을 새로운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0			장치로 대체하기 위한 『최종조치』를 취할 것임.
3.21	<p>金泳三 대통령, 조셉 프루어 美태평양 사령관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美는 北韓이 식량난 사회일탈 현상 등으로 인한 도발 가능성에 3개 대응책을 강구기로 함. ○ 첫째, 북한의 군사적 동향 신속파악을 위한 군사 정보 교류체제 강화, ○ 둘째,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한 격퇴의지 전달, ○ 셋째, 실제로 도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양국은 충분한 연합전력을 유지 강화토록 함. 	<p>勞動新聞, 『투쟁의 불은 지펴졌다』 題下 노동자들의 春鬪 선동 對南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도당은 이른바 고통분담과 욕구자제를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극히 낮은 수준에 묶어놓았음. ○ 내외 여론은 남조선을 가리켜 노동 3권이 박탈된 땅, 영원한 노동자 고통 전담의 땅, 놓고 먹는 자들이 흥청거리는 사회라고 비평하고 있음. ○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 노동자들과 노조단체들의 투쟁과 요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 	
3.22	<p>孔魯明 외무장관, 南北對話 중재 對中 요청(북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江澤民 주석 예방 ○ 北韓의 잠정협정 대미 제의는 한국을 배제하고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임. ○ 남북한간 직접대화가 이 		<p>國際赤十字聯盟(IFRC), 北韓의 식량원조 要請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최근 심각한 식량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총 6백만 달러의 원조를 요청하였는데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2	<p>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함.</p> <p>統一院, '95 北韓經濟 마이너스 6% 成長 잠정 평가</p> <p>* 『95 하반기 북한경제 동향』 보고</p> <p>○ 北韓은 지난해 7·8월 수해와 체제의 경직성, 생산의욕 감퇴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p> <p>○ '90~'94기간 연평균 마이너스 4.5%보다 크게 악화되어 외부지원없이 자생력 회복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음.</p>		이번이 두번째임.
3.23	<p>韓國農村經濟研究院, 北韓의 '95 식량자급률 41.5% 發表</p> <p>○ 북한의 '95 식량소요량 622.4만t이나 생산량은 258.3만t으로서 지급률은 41.5%임.</p> <p>○ 80년대말까지 90% 정도 이던 식량자급률이 '90 이후 하락세가 가속되고 있음.</p>	<p>中放, 『민족반역자는 對話相對로 될 수 없다』 제하 報道</p> <p>○ 최근에 김○○이 동남아 나라들을 돌아 다니면서 마치 北이 대화를 거부하는 듯이 왜곡하면서 북남대화 재개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청탁하였음.</p> <p>○ 김○○은 핵을 가진 상대와는 악수할 수 없다면서 북남대화를 전면 동결시키고 동족을 모해하</p>	<p>美 국방정보국, 북한 化學戰 可能性 發表 (최근)</p> <p>* 『북한 군사력 기초』 보고서</p> <p>○ 북한은 화학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을 보유함으로써 화학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공격할 능력</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3	<p>(연도) (자급률) (부족량, 만)</p> <p>'90 83.6% 65.8</p> <p>'91 76.8% 133.5</p> <p>'92 66.1% 199.6</p> <p>'93 48.2% 314.2</p> <p>'94 61.2% 238.8</p> <p>'95 41.5% 336.9</p>	<p>는 국제공조체제를 악랄하게 추구해 나섰음.</p> <p>○ 온 민족이 최대의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김○○은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조의를 표시하는 애국인사들을 체포 구금하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음.</p> <p>○ 김○○ 괴뢰들이 북남대화 중단책임을 남에게 넘겨썩우는 것은 저들의 정권위기를 모면하고 조·미, 조·일 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임.</p>	<p>을 갖고 있음.</p> <p>○ 또한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사용할 생물무기 생산능력도 갖고 있음.</p> <p>○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은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으며, 『대포동』은 아직 설계단계에 있음.</p>
3.25	<p>孔魯明 외무장관, 北韓의 安定的 變化誘導 對美 促求 (뉴욕)</p> <p>* 『코리아 소사이어티』 강연회</p> <p>○ 韓·美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설적인 관여정책이어야 하며,</p> <p>○ 무원칙한 접근 또는 임시방편적인 방식은 북한의 오판을 유발하여 한반도 안정유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p> <p>○ 미국의 안보공약 및 주한</p>	<p>中·平放, 南韓의 『護國 '96 訓練』 관련 時事論評</p> <p>○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3.28~4. 2 전선 중부지역 일대와 동·서해안, 그리고 영공에서 호국 '96훈련을 벌인다고 발표했다.</p> <p>○ 괴뢰들은 종합적인 입체전으로 군사분계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모험적인 행동을 하려하고 있음.</p> <p>○ 김○○일당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쟁의 길에서 살구멍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임.</p>	<p>駐韓美軍, 北韓 7단계 崩壞過程 報告(최근)</p> <p>* 『북한 하부구조 붕괴 유형』</p> <p>〈붕괴 7단계〉</p> <p>① 식량난</p> <p>② 자원공급 차별화</p> <p>③ 지역독립</p> <p>④ 중앙정부 억압</p> <p>⑤ 저항</p> <p>⑥ 균열</p> <p>⑦ 권력의 재편</p> <p>○ 북한은 초기 붕괴 과정이 시작되었으</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5	<p>한미군 계속 주둔 등 안보체제 구축은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p>	<p>○ 남조선 인민들은 평화와 통일의 원수이고 부정협잡의 원흉인 김○○에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참패를 안겨야 할 것임.</p>	<p>며 2단계를 지나 3단계 붕괴가 시작되었음. ○ 북한의 붕괴는 가상이 아닌 현실적 상황이며 단계별 붕괴 대응책이 필요함.</p>
3.26	<p>安企部, 對北지원쌀 15만톤 使用處 미확인 기자 브리핑</p> <p>○ 지난해 7월이후 국제기구의 지원쌀 6만톤의 배급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韓·日의 지원 65만톤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p> <p>○ 북한은 식량 암거래자, 양곡 공출거부자에 대해 총살형을 집행하는 등 식량회수를 위해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음.</p> <p>○ 북한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곡물이 백만톤에 달한다고 자체 평가하고 '95.11 암거래 금지에 관한 포고문을 발표하였음.</p> <p>孔魯明 외무장관, 北미사일 한반도 안보에 중대문제 규정</p>	<p>中放, 4월 總選관련 反政府 煽動 시 事 論評</p> <p>○ 최근 괴뢰 국무총리가 공직자의 엄정증립자세요, 공명선거요 하면서 마치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의사라도 있는 것처럼 떠들었음.</p> <p>○ 지난 4년동안 여당이 한 짓이란 파쇼폭압과 전쟁소동, 매국배족과 부정부패로 사회에 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고 사회악과 도적질만 만연시킨 것뿐임.</p> <p>○ 김○○일당이 그 무슨 신경제정책을 떠들어댔으나 경제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무역적자와 외채만이 늘어났음.</p> <p>○ 남조선 인민들은 신한국당에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선거장을 심판장으로 전변시키고 다시 한번 대참패를 안겨야 할 것임.</p>	<p>KEDO 總長團 6명 訪北</p> <p>○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보스워스 사무총장, 崔英鎭 사무차장 등 대표단은 3.26~30 방북하여 신포지역을 시찰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핵 문제에 이어 논의돼야 할 중요한 문제임.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南北對話는 美北관계의 기본전제이며, 남북한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임. <p>방미 공로명 외무장관, 北붕괴대비 한·미 안보협력 논의</p> <p>*공로명 외무·페리 美국 방장관(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상황이 예측불허인 만큼 북한 붕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 		
3.27	<p>歸順 최세웅 夫婦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무력부가 아편 국제밀매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김정일의 개인비자금 조성규모가 연간 6천만~7천만 달러에 달함. ○ 원자재 및 전력난으로 200여개에 달하는 평양의 방직공장중 5개 정도만 가동되고 있음. 	<p>中放, “남북대화문제는 내부문제” 주장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북남대화 문제를 놓고서 일부 세력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임. ○ 北南對話는 그것이 안고있는 성격으로 보아서 칠두철미 조선내부문제로서 조선인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해결해야할 문제로서 이웃나라들이 끼어들 명분이 없음. 	<p>갈리 유엔사무총장, 남북대화 중재 희망 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에 평양을 방문, 그들(북한)과 남북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길 기대함. ○ 나는 이미 양국간 화해를 증진하기 위해 남북간의 충실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이 직접 자신의 여동생인 김경희를 송배토록 하는 교양사업을 지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입장은 남조선에 북남대화를 할만한 환경이 마련되면 그 어느때나 대화를 하지는 것임. ○ 김○○역도가 우리와 대화를 하자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동족이 당한 유고시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온민족앞에 사죄해야 함. <p>UNDP, 두만강 통신 및 하부구조 실무회의 개최(3.27~28 선봉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두만강지역 통신 및 하부구조 실무분과 선봉회의가 지난 27, 28일 이틀간 나진-선봉시에서 개최되었음. ○ 이 회의에서는 두만강지역의 통신 및 하부구조 건설, 중계화물수송에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북한이 羅津과 중국의 延吉사이에 국제관광열차를 새로 운영하는 문제도 제기되었음. ○ 두만강지역을 통하여 아시아와 구라파 나라들에 화물을 수송하면 수송거리와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는데 대해 주목을 돌리었음. ○ 유엔개발계획(UNDP) 두만강사무국장 마이크 언더다운은 오 	<p>한 중재자 역할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7		<p>는 9월에 유엔개발계획 사무국 주관하에 나진-선봉시에서 세계적인 투자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p>	
3.28	<p>統一院 代辯人, 北側의 北京 接觸 재개제의 關聯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95.9 북경 제3차 남북접촉에서 앞으로의 회담은 한반도내 개최, 남북당국간 제의, 대남비방·중상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측은 최근 북경접촉 재개 의사를 전해온 바 있음. ○ 우리측은 이러한 북측 주장이 정상적 대화방법이 아니라고 보며 한반도 내 당국회담 개최와 대남 비방중지 등의 우리측 입장에 호응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 ○ 북측이 총리급 회담을 위시해서 새로운 제의를 해온 일은 없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임. 	<p>北韓 큰물피해대책위원회 代辯人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美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민간급에 적용하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시행에 들어갔다고 함. ○ 우리는 이번에 미 행정부에서 취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조치는 조·미 두나라 관계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임. ○ 그런데 남조선 당국자들은 남조선 인민들과 민간단체들이 하려고 하는 지원을 가로막고 지어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의 구호물자와 자금 제공까지 방해하고 있음. ○ 남조선 당국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대화와 협력을 떠들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길에 나와야 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9		<p>人民武力部 제1부부장 김광진, 非武装地帶에서의 모종조치 威脅 對南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자는 최근 우리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연발하면서 남북한 문제는 군사적 힘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다고 폭언하였음. ○ 우리의 평화보장체제안 마저 거부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대화의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우리의 대응책에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된 상황에 따르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임. 	<p>니컬러스 번스 美 국무부 대변인, 北韓 김광진 次帥 談話관련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안정되어 있으며 정전체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p>카리신 러시아 外務部 代辯人, 北韓 김광진 次수 담화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지지입장을 재강조함. ○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은 새로운 협정이 마련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3.30	<p>國防部, 北韓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 談話 관련 聲明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자신의 체제내부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p>平放, 南北베이징접촉 北側 단장 전금철의 3.20일자 對南電文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 고위당국자들이 마치도 우리측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제기도 하지 않아 제4차 접촉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3.20 우리측 대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기정사실이라는 등 호전적 발언으로 커다란 물의와 우려를 일으키고 있음. ○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책동과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 	<p>단 단장은 제4차 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하는 모사문을 다음과 같이 보냈음.</p> <p>※ 우리측의 일관된 노력과 선의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3차 베이징 접촉이 있는 후 장기간 중단되어 왔음. 우리측에서 제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공인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이며 제4차 접촉을 3.27경에 베이징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p> <p>勞動新聞, 美·北韓 잠정협정 締結 주장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은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에 편승하여 올해 초부터 T/S에 대신하는 각종 모험적인 전쟁연습에 이어 3.28부터는 호국96이라는 전쟁 불장난을 벌여 놓고 있음. ○ 이러한 무분별한 전쟁소동이 북침을 위한 실전으로 번져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음. ○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합의서가 채택되고 군사공동기구까지 발족되어 있는 조건에서 미·북 잠정협정이 체결되면 긴장 완화에 획기적인 국면이 조성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	<p>財政經濟院, 유엔개발계획 關聯會議 결과 發表</p> <p>* 남·북한, 중, 러, 몽골 등 참가</p> <p>○ 북한 선봉 지역에서 3. 27~28 UNDP 주관 豆 滿江개발사업(TRADP) 회의가 개최되었음.</p> <p>○ 5개국 회의에서는 『通信 및 인프라개발방안』에 관 한 협의가 진행되었음.</p> <p>○ 북한은 중·러를 포함한 3개국만으로(남한·몽골 제외) 별도의 통신작업반 구성을 제외하였음.</p>	<p>平放, 『反공화국 소동은 비싼 대가 를 치를 것』 題下 論評</p> <p>○ 남조선 괴뢰들은 일본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 등을 통해 우리가 쌀암거래자와 탈출기도자에 공 개충살하였다는 모략보도를 하 게 하였음.</p> <p>○ 괴뢰들의 모략소동은 그들이 대 화가 아니라 대결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떠들어온 대남 비방중지·남북대화가 기만임을 증명해주고 있음.</p> <p>○ 우리에게 대한 괴뢰들의 이번 모략 책동은 계획적인 중상비방이고 허위 날조임.</p> <p>○ 끝내 북남관계를 악화시켜 전쟁 도발로 나간다면 우리는 도발자 들을 영영 쓸어버릴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p>	<p>駐제네바 北韓代表部 박덕훈 代辯人, 유엔 의 援助활동에 동의 表明</p> <p>○ 우리는 아직도 식 량 등의 원조가 시급하며 유엔의 원조활동에 동의 하는 서한을 同인 도지원국(DHA) 에 전달하였음.</p> <p>○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구호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96.10까지 120만 톤의 곡물이 긴급 필요함.</p> <p>○ 순수한 인도적 원 조는 환영하지만 불순한 목적에 이 용하려는 기도는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p>
4. 2	<p>李洪九 신한국당 選對委 고 문, 對北支援 관련 發言</p> <p>○ 대북지원 문제 등 남북관 계의 추진문제는 이에 대 한 북한의 호응여하에 달</p>	<p>平放, 캄보디아에서의 달러 偽造事 件 관련 報道</p> <p>○ 남조선과 일본의 언론들은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알아보지도 않 고 조총련계 재일동포라고 단정</p>	<p>갈리 유엔事務總長, 남북문제 仲裁 翁의 表明(서울)</p> <p>○ 한반도 문제가 무 력충돌이 아닌 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	<p>려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북측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면 대북 지원은 자연히 증가하게 될 것임. 	<p>하면서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려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이 내들린 가짜 달러 사건이란 밝고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음. ○ 망명해온 前일본 적군파 성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사람이며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님. ○ 위조지폐 행위는 부정협잡과 사기범죄가 성행하는 남조선에서나 있을 수 있음. <p>손성필 駐러시아 大使, 김광진 次師 담화(3.29) 관련 발언(모스크바)</p> <p>*러시아 하원 地政學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서는 전쟁전야의 팽팽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며 정전협정은 중지부를 찍었음. ○ 남측이 군최고사령관 김정일을 계속 모욕하는 한 對話는 없으며, 북한군은 조국수호를 위해 필기할 것임. <p>김정일, 북한군 「4·25 국방체육선수단」 현지지도</p> <p>*참석자 :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 조명록,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등</p>	<p>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모두 유엔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이 남북간 대화 채널로 활용될 수 있음.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엔은 언제라도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3	<p>崔英鎮 KEDO 事務次長, 對北경수로 공사 '96. 6~7 着工 기자회견</p> <p>* 3.26~4.2 KEDO 사무총장단 북한 방문</p> <p>○ 북한은 신포지역 100m 산등성이를 30m로 整地하고 함흥-신포간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였음.</p> <p>○ 영사보호, 통신통행협정, 부지인수의정서 등 부속합의서 협상은 4.8부터 뉴욕·평양 등에서 열림.</p> <p>○ 부속합의서 협상이 마무리되는 '96.6~7경 본격적인 경수로 공사가 착공될 것임.</p>		<p>유엔 人道支援局(DH A), 對北支援 국제회의 開催(뉴욕)</p> <p>* UN DHA 대변인 발표</p> <p>○ 북한은 4.1 국제사회의 식량원조 거부 의사(1.20)를 철회하고 긴급지원 요청을 재개하였음.</p> <p>○ '95. 9 시작된 유엔 및 非政府 기구들의 대북 추가 지원이 아직도 매우 絶실한 상황임.</p> <p>日本 게이오대 오코노기 교수 南北關係 관련 發言</p> <p>○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긴 하나 특별히 궁핍하거나 배고픔에 허덕이는 표정은 아니었음.</p> <p>○ 남한에 대해선 상당히 反感을 갖고 있으며 제4차 북</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3			<p>경접촉 제의도 總選을 앞둔 정치적 전술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진의 3.29 담화는 군사적 의미보다는 대남 경고성 성격이 강함. ○ 남북대화는 아직 시기가 아니며 총선후 美·日을 지렛대로 한 대북주도권 확보가 필요함.
4. 4		<p>勞動新聞, 남한의 重水爐 3개 建設 工事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은 저들의 중수로개발이 상업적 목적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임. ○ 우리는 조선반도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과 인연이 없음에도 흑연감속로 동결조치를 취하였음. ○ 그런데 괴뢰들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 기본합의문 이행에 역행하여 핵무기개발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음. ○ 우리는 이미 북침전쟁의 擊發器 	<p>駐韓 유엔군사령부 對北경고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담화내용은 정전협정을 파기하려는 일련의 조치로서 「분명히 위협」한 조치임. ○ 이는 군사적 대화 과정에 효과를 감소시킬 뿐 한반도 평화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4		<p>를 당긴 상태에서 핵무기개발 책동에 몰두하고 있는 김○○집단의 행동을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음.</p> <p>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DMZ 불인정』 담화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은 완충지대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의무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북침을 위한 무장지대로, 하나의 새로운 공격 출발진지로 전변되었음. ○ 우리는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른 자위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하기로 하였음을 공포함. ○ 첫째로 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함. ○ 둘째로 조선인민군측은 상기임무를 포기하는데 따른 조치로서 판문점공동경비 구역과 비무장지대 출입 우리측 인원·차량들에 식별 표지를 착용치 않도록 할 것임. <p>『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발표 3 돌 기념 平壤市보고회</p> <p style="text-align: center;">〈양형섭 기념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의 대결과 전쟁책동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4		<p>등으로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남으로부터 밀려오는 전쟁위험으로하여 언제 터지는가 하는 시점이 문제일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 	
4. 5	<p>國防部, 北韓의 DMZ 不認定 선언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의 담화는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군사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 우리는 현 정전협정이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될 수 없으며, 남북간 합의를 통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엄수되어야 함을 재차 분명히 함. ○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도발 행위라도 감행한다면 우리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의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 	<p>南北베이징접촉 북측단장 전금철 2 번째 모사문 방송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20 우리가 제4차 북남접촉을 정식 제안한 것은 베이징 합의 이행을 위한 주동적인 발기이며 귀측 입장도 고려한 아량있는 조치였음. ○ 그런데 이번에 보내온 모사문에서 귀측이 대남비방중상 중지, 한반도내 당국간회담 개최등을 들고 나온 것은 베이징합의에 대한 엄중한 위반임. ○ 지금까지 우리측의 공식인사들이 대남비방선전을 한 일이 없으며 한반도내 남북 당국간회담 개최문제는 쌍방 단장들의 권능에 속하는 문제가 아님. ○ 귀측이 진실로 서로 마주앉을 의사가 있다면 모든 부당한 주장들을 철회하고 무조건 제4차 베이징접촉에 나와야 함. 	<p>日 하시모토 총리, 대북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서 즉각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북한의 움직임은 『매우 위험』한 사태임. <p>중국 외교부, 현 정전협정 유지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함. <p>러 파노프 외무부차관, 기존의 정전체제 유지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체제가 성립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5	<p>*워치콘-Ⅱ 발령</p> <p>통일원 대변인, 북측의 대남 전문 관련 기자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현재 북한측이 전 금철 명의로 보냈다는 팩스전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 ○ 북측이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전쟁위협 등 긴장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칙적 대화를 주장하는 양면전술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앞으로의 남북회담은 한반도내에서 공식적인 당국회담으로 열려야 하며, 대남비방·중상 중지 등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힘. 	<p>북한군, 중무장 1개중대 판문점 공동구역 투입</p> <p>*주한 유엔군사령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 18:00경 박격포 1문, 무반동총 2정, 기관총 4정으로 무장한 120여명이 판문각 부근에서 陣地구축후 同 20:30경 전원 철수하였음. 	
4. 6	<p>金泳三 대통령, 北韓의 DMZ 도발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p> <p>*청와대 대변인 발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조치는 종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고의적 	<p>북한군 JSA 2차투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 19:00경 북한군 260여명이 중무장한 채 진입, 同 22:00경 철수 <p>中·平放, 金泳三 대통령의 中部戰線 시찰관련 論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6	<p>이고 장기적인 구도하에 서 취해진 의도적 도발행 위라고 말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대통령은 우리 軍은 韓·美간의 확고한 군사공 조체제를 바탕으로 북한 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철통같은 대북경 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 했음. ○ 金대통령은 국민들은 북 한의 어떤 협박이나 도발 에도 흔들림이 없이 政府 와 軍을 믿고 생업에 충 실해 줄 것을 당부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일 김○○은 전선중부 최전방 부대에 나타나 실전능력을 점검 한데 이어 軍이 완벽한 경계태 세와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고 떠들었음. ○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남쪽 지역이 북침을 위한 공격출발진 지로 전변된 형편에서 전쟁위험 은 더욱 더 현실적이며 북침전 쟁 도발의 격발기는 이미 당겨 진 상태임. ○ 김○○일당이 전쟁에 불을 지른 다면 인민들과 인민군대는 강력 한 자위적 조치로 침략자들을 씨도 남지 않게 무자비하게 짓 몽겔 것임. <p>제1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식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 4.7, 4·25 문화회관 ○ 참석자 : 박성철, 김영남, 장철, 강현수 등 	
4. 7	<p>國防部, 北韓 武裝軍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3차 투입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무장 북한군 230여명이 4.7, 20:07 침투진지훈련 후 同 22:35 완전 철수하 였음. 		<p>駐韓유엔사령부 聲明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무장군 판문 점 공동경비구역 침투관련, 북한의 攻撃이 임박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우리측은 1사단 소속 전진타격대를 긴급 출동시키고 긴급조치반을 소집하였음. 		<p>을 나타내는 징후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북한측의 비정상적 움직임에 憂慮하고 있음. <p>美 NYT지, 韓半島 전쟁 可能性 희박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파멸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 재발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음. ○ 그러나 북한이 오관하거나 절망상태에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하여 憂慮하고 있음.
4. 8	<p>金泳三 대통령, 北韓의 挑發 관련 軍수뇌부 조찬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군은 높은 사기속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북한이 한치라도 우리 땅 	<p>勞動新聞, 南韓의 國家安全保障會議 개최관련 論評</p> <p>*『분별없이 날뛰지 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군사적 모험가능성, 예측불가능한 위협설 등을 유포시키면서 불의에 기습 공격하기 위한 전쟁광란을 미친듯이 벌이고 있음. 	<p>매커리 美 백악관 代辯人, 北韓의 武裝軍 투입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3일째 중무장군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침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교전사태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8	<p>을 침범하거나 우리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가 되어있음.</p> <p>李養鎬 국방장관, 緊急指針 하달</p> <p>*국방부·합참간부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연속적이고도 계획된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인내심을 갖고 신중히 대응토록 함. ○ 북한이 우리땅을 침범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위해 할 때는 응징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그들이 무례하고 무분별한 행위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자제력과 인내성은 한계점을 넘어섰음. ○ 우리는 실속이 없는 빈말을 하지 않으며 불몽치와 몽둥이는 어느 때든 그것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 <p>中放,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軍入隊 단원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조선반도에는 새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음. ○ 온나라 청년들이 침략자들의 도발 책동을 짓부시기 위해 성스러운 길에 앞다투어 단원하고 있음. <p>靑年學生들의 人民軍 入隊 단원대회 進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시(4. 7) ○ 신의주시(4. 10) 	<p>발생할 징후는 없음.</p>
4. 9	<p>陸·海·空 參謀總長 北韓 軍의 領士 침범시 即刻 응징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한발짝이라도 들여놓을 경우 交戰規則에 	<p>金正日の 國防委員長 推戴 3돌 慶祝 중앙보고대회(4.25 문화회관)</p> <p>*참석자 : 이종옥, 박성철, 김병식, 최광, 김영남, 계응태 등</p> <p>〈次師 김광진 慶祝報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괴뢰들의 호전적 책동으 	<p>유엔 安保理, 北韓 挑發관련 긴급의제 採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토의사안에 따라 대북결의안, 의장성명, 의장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9	<p>따라 즉각 조치토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해상으로 도발할 경우에 대비 출동대기 합정이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며, ○ 영공 침범시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응징해 일순간에 궤멸시킬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함. <p>大宇 北京지시장 經協 논의 入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그룹과 북한 삼천리 총 회사간의 남포공단 합영계약 체결 등 북한과의 경협문제를 논의함. 	<p>로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은 완충지대로서의 고유 임무를 상실하고 북침을 위한 무장지대로, 새로운 공격 출발진지로 전변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괴뢰들에 의하여 북침격발기가 이미 당겨진 상태에서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가 아니라 언제 전쟁이 터지겠는가에 있음. ○ 인민군과 인민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단 한치라도 침범한다면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짓뭇개 버리고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내고야 말 것임. <p>勞動新聞, 金正日의 國防委員長 추대 3돌기념 社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인민과 인민군은 김정일장군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모시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음. ○ 금번 김정일장군의 전선동부 351고지, 전선서부 대덕산 초소, 전선중부 오성산일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전선시찰은 혁명적 무장력의 불패의 위력을 백배로 다진 뜻깊은 사변으로 됨. ○ 김정일장군의 영도를 받는 우리 	<p>한, 언론발표문 등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음.</p> <p>中國 외교부 陳健 대변인, 停戰協定 有效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이 끝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평화체제가 정전협정을 대신하여야 할 것이나, ○ 평화협정 수립 이전에는 당연히 정전협정이 유효하며 관련 당사국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함. <p>타노프 美 國무차관, 南北當事者 원칙 遵守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한의 DMZ 병력투입 중지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직 응답은 받지 못했음. ○ 우리는 북한과 평화조약에 관해 협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9		<p>의 무장력은 백전백승할 것이며 침략자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낼 것임.</p>	<p>상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은 어떤 것이든 남북간에 이루어져야 함.</p>
4. 10	<p>韓·美, 北韓도발 對應 긴급 안보협의회</p> <p>*孔魯明외무·李養鎬국방 장관, 레이니 美대사·게리 러크 주한미군사령관</p> <p>○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韓·美 연합방위능력을 바탕으로 단호히 응징키로 함.</p> <p>○ 북한도발 억제를 위해 韓·美 대규모 연합훈련을 검토키로 함.</p> <p>○ 韓·美 양국은 북한도발에 관계없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키로 함.</p>	<p>外交部, '96 발간 『유엔연감』 관련 비망기 발표</p> <p>○ 유엔이 '50년에 북한을 반대하는 군사적 조치를 공격으로 묘사한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편견임.</p>	
4. 11	<p>국방부, 무장북한군 군사분계선 월선발표</p> <p>○ 무장북한군 3명이 4.11 중동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200m까지 월선후 복귀했음.</p>	<p>勞動新聞, 北韓의 DMZ 不認定 宣言 관련 論評</p> <p>○ 우리는 김○○일당이 고의적인 군사적 소동을 벌여 사태를 전쟁접경으로 끌여가고 있는데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음.</p> <p>○ 북침을 위한 실전을 작정한 김</p>	<p>유엔安保理, 北韓의 DMZ挑發 관련 『議長 言論發表文』 채택</p> <p>○ 북한의 정전협정 체제 위협과 비무장지대에서의 무력시위 등에 대하</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1		<p>○○일당에 의하여 정전협정은 유명무실하며 북침의 격발기는 이미 당겨졌음.</p> <p>○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적들이 우리의 영토를 단 한치라도 침공한다면 무자비하게 짓밟겠 것이며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낼 것임.</p> <p>駐유엔 신임대사에 김형우(62)임명(최근)</p> <p>*日 아사히 신문</p> <p>〈김형우 약력〉</p> <p>77.9~83.11 외교부 부부장</p> <p>84.1~현재 당 국제부 부부장</p> <p>92.1 김용순·센터 美 국무차관고위급 회담(뉴욕)시 배석</p>	<p>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p> <p>○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한 북한당국에 정전협정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p> <p>페리 美국방장관, 北, 생물전 수행능력 보유 언급</p> <p>○ 미·북기본협정으로 북한핵개발능력을 통제하는데 큰 진전을 이뤘으나 장기적으로 아직도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p> <p>○ 북한은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며, 생물전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음.</p>
4. 12		<p>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긴장상태 관련 談話</p> <p>○ 남조선당국자들과 일부 불순세력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그</p>	<p>파노프 러외무차관, 北, 對美직접대화 원칙 고수 언급</p> <p>○ 러북간 정무협상</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2		<p>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그 무슨 특정한 목적을 노린 정치적으로 발발이라느니, 그 누구를 상대로 한 외교적 압력전술이라느니 하면서 우리를 자극해나서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무장력이 전쟁의 발발을 미연에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것임. ○ 불순세력들이 이성을 잃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춘다면 훗날 역사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초래한 무거운 책임에서 그들을 결코 예외로 하지 않을 것임. ○ 자기의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는 그 누가 무엇이 라 하던지 개의치 않을 것이며, 우리자신이 결정하고 채택한 입장을 절대 변동시키지 않을 것임. <p>北韓 · 러시아 經濟科學협조위 제1차 회의 議定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남 부총리, 러시아 이그나텐코 부총리 署名 ○ 쌍방은 통상, 경공업, 임업, 합작회사, 건설, 광산개발, 나진 · 선봉 경제특구, 정유 등 8개 분 	<p>에서 북한측은 한반도 평화정착방안과 관련 제3자나 중재자는 필요 없으며 단지 미국과의 직접 대화만을 주장했음.</p> <p>中, 한반도 새평화보장체제 참여 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는 미국과 남조선이 충분히 협의해야만 하며 장래 이 평화체제에 중국도 참가하도록 제안이 있으면 검토할 것임.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에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2		<p>야의 협력에 합의하고, 러시아측은 김책제철소 재건, 석유지원, 안주 탄광개발 등 지원을 약속하였음.</p>	
4. 13	<p>김수환 추기경, 北 나진·선봉에 병원건립 추진 언급</p> <p>○ 北韓의 나진·선봉지구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근로인들을 상대로 건립기금모금운동을 벌이겠음.</p>		
4. 14		<p>金日成출생 84돌기념 중앙보고대회 (평양체육관)</p> <p>*참석 :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최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김철만, 최태복 등</p> <p>〈최태복 보고요지〉</p> <p>○ 최근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각일각 접근해 가고 있음.</p> <p>○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고도의 경각성과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며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함으로써 온나라에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함.</p> <p>○ 만약 원수들이 우리조국의 한치</p>	<p>美 뉴욕타임즈紙, 남북한 전쟁때 北崩壞 경고</p> <p>○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미 양국군은 북한에 대해 신속하게 공군과 해군력의 우위력을 확보하고 반격을 가해 결국은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게 될 것임.</p> <p>○ 북한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병력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4		<p>의 땅, 한포기의 풀이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우리인민과 인민군대는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적들을 단매에 짓뭇개 버릴것임.</p> <p>『조평통』, 남조선의 對北비방중상선전 주장 報道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도당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구실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발발 전야로 몰아가며, 우리에게 대한 비방중상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우리의 최고지도부까지 중상하는 범죄를 자행함으로써 우리와 대화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놓고 있음. ○ 남조선통치배들이 감히 무모하게 덤벼든다면, 조선반도에서 모략과 비방중상, 대결과 전쟁의 근원을 드러내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p>확실한 만큼 북한 의 전쟁 승산은 없으며 따라서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p>
4. 15		<p>駐태국 북한대사 이삼로, 잠정협정 체결 거둬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무장지대 임무포기 선언은 남쪽의 비무장지대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장지대로 전변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자 	<p>파노프 러외무차관, 한반도주변국 『8者會 議』 개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이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5		<p>위조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협정이 잠정협정으로 대체 되면 이 잠정협정에서 정전협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조항을 현실에 맞게 새로이 규정할 수 있을 것임. 	<p>며 핵문제를 停戰 유지와 분리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美·日·러·中과 유엔 및 IAEA등 관련당사자가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소집되어야 함. ○ 북한은 모든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같은 접근방식은 상황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p>존슨 백악관 副대변인, 中, 美·北 협상서 중요역할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對北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은 KEDO를 탄생시킨 美·北 기본협정이 진행되면서 점차 확실해졌으며,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중국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5			<p>아주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음.</p>
4. 16	<p>韓·美 정상회담, 『한반도 4자회담』 제의</p> <p>*김영삼 대통령·클린턴 미대통령(제주)</p> <p>〈공동발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 ○ 한국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북한대표와 정부차원에서 만날 용의가 있음을 확인 ○ 한국·북한·중국 및 미국 대표간의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 ○ 4자회담에서는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다는데 의견일치 <p>權五琦 통일 부총리, 韓半島 『4자회담』 제의관련 기자회견</p>	<p>勞動新聞, 南韓은 韓半島안보문제에 기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정전협정은 우리와 미국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남조선괴뢰들은 여기에 기여하지조차 못할 신세임. ○ 정전협정을 파기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정전협정과 감독기구들을 체계적, 역사적으로 파괴유린해온 미국과 그의 비호를 받는 남조선당국자들임. ○ 남조선 괴뢰들이 정전협정파괴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하면서 그것을 국제화하려고 시도한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음. ○ 남조선 괴뢰들은 제 처지를 똑바로 알고 어리석은 놀음을 그만 두어야 함. <p>駐러 북한대사 손성필, 『4者會談』 提議 관련 拒否表明</p>	<p>北, 120만 병력유지</p> <p>*獨 BICC국제군사력연구센터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306만, 러시아 190만, 미국 173만, 인도 127만명에 이어 북한의 병력은 94년기준 120만명으로 세계 5위임. <p>中國 沈國放 외교부代辦人, 『4자회담』 관련發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에서는 우선 4당국이 회담하나 南北韓이 주체이며, 中·美는 중간에서 협조하고 결과를 보증하는 입장임. ○ 北·美間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됨. ○ 4자회담 제의는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으로서 평화체제를 여는 첫발이 되기를 기대함. ○ 금번 제의내용은 中·美는 물론 北韓에도 적절한 채널을 통해 4.14 통보하였음. <p>韓·美 국방장관회담, 現정전체제 유지 의견일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에서는 現정전체제가 유지돼야 하며 이를 대체하는 어떠한 협약도 당사자 원칙이 존중되는 기본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다른 나라들은 한반도문제에 관해 아무런 역할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전혀 없음. ○ 미국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서명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미국과만 협상할 것이며, 신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중재자는 필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체제는 모든 관계국들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 제의관련 중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 <p>하시모토 日本 總理, 『4자회담』 제의 支持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4자회담 개최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큰 의의를 갖는 조치로 이를 지지함.
4. 17	<p>金泳三 대통령, 北韓 4者會談 수용전망 언급</p>		<p>클린턴 美대통령·하시모토 日총리 정상</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7	<p>* 국무위원 · 3부요인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정상회담은 우리민족 사이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회담이며, 4者會談은 어디까지나 남북이 주체가 될 것임. ○ 미국은 4자회담이 美 · 中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北韓이 4자회담을 거부한 듯한 일부보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를 결국 수용할 것으로 봄. 		<p>회담, 한반도 문제 긴밀협력기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안정은 美 · 日 양국에 있어 사활적으로 중요하며 양국은 지역안보를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다짐.
4. 18	<p>統一院 代辯人, 北側의 4者會談 反應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 제의에 관한 4. 18일자 북한측 반응에 따르면 북한측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으며, ○ 현 시점에서 4자회담제의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 우리는 북한측이 4자회담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하며, 북한측의 태도를 지켜볼 	<p>勞動新聞, 北미사일 문제는 자위권 주장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부 보수세력들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 및 배비에 대해 운운하면서 우리가 마치도 미사일로 그 누구를 공격하려 하고 있는 듯이 여론을 유포시키고 있음. ○ 우리는 있지도 않는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저들의 무력증강과 군사적 위협 책동을 정당화하려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음. ○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위적 방위노력에 대해 의혹을 가질 근거가 없으며, 우리의 진실성을 제멋대 	<p>世界食糧計劃(WFP), 2차對北 지원쌀 남포항 도착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대북제공 쌀 8,265톤을 실은 화물선이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하였음. ○ 향후 6개월동안 북한의 식량사정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8	것임.	<p>로 왜곡하지 말아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부 보수세력은 우리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며 우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반공화국 군사행동을 견어치워야 함. <p>金正日, 새로 발굴 조성된 『용문대굴』 參觀</p> <p>* 용문대굴 : 평북 구장군 용문산 소재 천연동굴로서 관광차원에서 개발</p> <p>外交部 대변인, 4者會談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6 美대통령 클린턴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과정 개시를 위해 북과 남, 미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제안을 발표했음. ○ 조선반도 평화보장 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미국측이 왜 갑자기 4자회담 제안을 내놓았는지 그 취지와 목적이 명백치 않음. ○ 4자회담 제안이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아직 알 수 없음. ○ 우리는 어쨌든 미국측의 제안에 다른 기도가 깔려있지 않은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8		<p>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는 중임.</p> <p>청년들의 人民軍입대 탄원대회 계속 進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천공작기계 종합공장 ○ 해산청년광산 	
4. 19		<p>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政府代表團 訪北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외교부 부부장간 정치협상에서 쌍방관계를 새롭게 확대 발전시킬데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음. <p>中放, 『위험한 단계에 이른 북침전쟁 책동』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전쟁책동으로 해서 남조선 전역은 전쟁분위기에 휩싸여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는 초긴장 상태에 있음. ○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불의의 침략책동을 짓부셔 버릴 수 있는 만단의 준비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0	<p>國防部, 北韓 海軍경비정 2척 境界선 침범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9, 11:50 북한 경비정 7척이 북방한계선(NLL) 북방 6km 지점에서 기동 훈련중 2척이 NLL 남방 1km 지점까지 越線하였음. ○ 이들은 긴급출동한 우리 해군의 차단을 받고 동 13:20경 복귀하였음. 		
4. 21			<p>美·北 미사일會談 제1차 會議 종료(4. 20~21 베를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외교부 이형철 미주국장, 로버트 아인혼 美국무부 부차관보 참석 ○ 쌍방 기조연설에서 미국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주장한 반면, ○ 북측은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자위권 주장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음. ○ 쌍방은 조만간 의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1			<p>교경로를 통하여 재접촉키로 합의 하였음.</p> <p>中國 江澤民 주석, 4 者會談 支持 金泳三 대통령에 親書(최근)</p> <p>* 조선일보(4. 21)</p> <p>○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다할 것임.</p>
4. 22		<p>平放, 暫定協定 提議 2개월 經過 관련 論評</p> <p>○ 잠정협정 제안이 발표된지 2개월이 됐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긍정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p> <p>○ 우리의 제안은 미국의 對조선정책과 현 조미관계 수준을 고려하고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조치임.</p> <p>○ 미국은 우리의 선의적인 제의에 대해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p> <p>對外經濟委 부위원장 김정우, 輸出 增大에 역점(워싱턴)</p> <p>*美 조지 워싱턴大 주최 국제학술회의</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개척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한 생산증대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에 필요한 환경조성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p>『汎靑學聯』 제5차 共同議長團회의 進行(북경)</p> <p>*참가 : 북측대표 및 해외본부의장단, 공동사무국 성원들(남측은 전화 및 모사형식으로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는 '96 범청학련 운동 전망과 조직운영문제, 강령·규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4. 23		<p>北韓軍 創建日(4.25)을 국가적 『名節』로 제정</p> <p>*중앙인민위 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4.25일을 국가적 명절로 하며 휴무함. ○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가정등에서 국기를 게양함. 	<p>美 의회조사국 보고서,北韓 軍糧米 生産量의 20% 과다 備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식량생산의 약 20%를 군사용으로 비축하기 때문에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음. ○ '95의 경우 670만톤 소요에 260만톤이나 부족하였으며 '96년도에는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3			<p>더욱 심각하여질 것임.</p> <p>日本 하시모토 총리, 金泳三大통령에 4者 회담 支持 親書 전달</p> <p>*야마사키 자민당 정조회장 방한시 전달</p> <p>○ 일본 정부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지지하며, 韓·美·日 공조체제를 통해 현안이 해결되기를 바램.</p> <p>○ 日·北 관계를 남북한 관계보다 앞서 진전시키는 일은 없을 것임.</p>
4. 24	<p>權五琦 統一副總理, 4자회담 成事관련 對日 협조 促求</p> <p>*訪韓 日연립여당 대표단 (야마사키 자민당 정조회장)</p> <p>○ 權副總理는 日北 관계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p>	<p>北韓軍 創建 64돌 慶祝 중앙보고대회(4·25 문화회관)</p> <p><총참모장 김영춘 경축보고></p> <p>○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발발이 시한문제로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위적 조치를 취한 것은 지극히 응당함.</p>	<p>中國, 4자회담 成事 積極 協調표명</p> <p>*제3차 한·중 고위 정책협의회(서울)</p> <p>○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 지속과 한반도의 평화안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4	<p>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하도록 일본측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日本側은 우리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인민군대는 원수들의 어떠한 침공도 즉시 섬멸적인 방어 공격으로 짓밟게 버릴 것임. ○ 만일 남조선 괴뢰도당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한놈도 남김없이 격멸소탕하고 전쟁의 근원을 드러낼 것임. <p>中放, 美·北韓 미사일회담 관련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대표단은 4.20~21 베를린에서 미사일협상을 진행하였음. ○ 협상에서는 미사일 전파방지 관련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호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토의하였음. ○ 협상은 앞으로 계속되게 됨. 	<p>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 성사관련 남북간의 안정적인 대화채널구축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임.
4. 25		<p>金正日, 軍창건 64돌 즈음 西部戰線 연합부대 지휘부 訪問</p> <p>*조명록, 김광진, 이하일, 김하규, 현철해, 김정각, 박제경 등 참석</p> <p>駐러시아 손성필 大使, 4자회담 관련 『檢討中』 기자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당국은 4자회담 제의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음. ○ 북한은 미국을 주된 협상파트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5		<p>로 보고있는 반면에 한국은 신뢰할만한 당사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의 주된 과제는 정전협정을 새로운 한반도 평화유지체제로 대치하는 것이어야 함. ○ 우리는 미국과 평화보장 문제를 결정지어야하며, 원칙적으로 국제적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반대함. 	
4. 26	<p>韓國大學教育協議會, 남북한 『대학총장회담』 개최 對北 提議</p> <p>*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관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대학교육 교류방안의 일환으로 남북한 대학총장 회담을 개최(8.15 전후)할 것을 제의함. ○ 同 회담의 성사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로 쌍방이 同數의 총장을 선임하고 장소·시간, 일정·운영 방식 등은 양측 실무회담을 통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p>美 국무부, 經濟制裁 解除 條件 對北 通告 (최근)</p> <p>* 日 산케이 신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한을 4 자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제재완화방안을 방미중인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에 제시하였음. ○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건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테러리즘 포기 ii) 미군유해 반환 iii) 미사일협상 계속 등을 통고하였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6			<p>데이비스 美국무부 代辯人, 北韓 4者會 談 수용기대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검토중』이라는 것이며 우리는 이 사실에 고무받고 있음. ○ 한편, 현재 국무부 가 규정한 테러국 명단은 北韓 포함 쿠바, 이란, 이라 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개국 임.
4. 27	<p>統一院, 3개업체에 對北 『협 력사업자』 承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는 조선체신 회사와 합작으로 700만불 을 투자, 나진·선봉지역 에 통신센터를 건설·운 영하며, ○ 『태창』은 능라 888 무역 회사와 합작으로 580만불 을 투자, 금강산 샘물을 개발·판매하게 되며, ○ 『대우전자』는 조선삼천 	<p>中·平放, 江原道 고성 산불관련 『전쟁광증이 빚어낸 후과』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산불은 남조선 괴뢰군의 폭 발물 처리에서 일기 시작하였으 며, 김○○의 반북대결 정책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 ○ 남조선 호전광들은 정전협정에 의해서 금지된 비무장지대안 풀 발에 불을 질러놓는 행동도 서 슴치않고 있음. ○ 김○○호전광들의 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는 한 산불을 결코 	<p>北韓, 긴급食糧 원조 對유엔 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인도지원국 관계자 ○ 북한은 제네바 대 표부를 통해 유엔 조사단의 조사· 분석에 앞서 우선 식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7	<p>리충회사와 합작으로 640만불을 투자, 컬러TV,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을 생산할 계획임.</p> <p>※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p> <p>1) 대우 512(만불)</p> <p>2) 고합물산 686 "</p> <p>3) 한일합섬 980 "</p> <p>4) 국제상사 350 "</p> <p>5) 녹십자 300 "</p> <p>6) 동양시멘트 300 "</p> <p>7) 동룡해운 500 "</p> <p>8) 삼성전자 700 "</p> <p>9) 태창 580 "</p> <p>10) 대우전자 640 "</p> <hr/> <p>합 계 5,548만불</p>	<p>중지되지 않는 한 산불을 결코 방지할 수 없고 재난은 계속 일어날 것임.</p> <p>제5차 KEDO 부지조사단 평양도착</p> <p>訪美 이종혁 亞·太平和委員會 부위원장, 남북관계 긍정적 발언(워싱턴)</p> <p>* 북미주 기독교학자학술회의</p> <p>○ 남북관계는 오해와 불신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호전되어가고 있으며 잘 풀린 것으로 보고있음.</p> <p>○ 우리는 북경을 통한 남북대화 제의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음.</p> <p>『汎靑學聯』 결의대회, 北·南·해외본부에서 각각 進行</p> <p>○ 대회에서는 정민주·이혜정 석방, 보안법 철폐요구, 군사훈련 반대, 시위희생자 추모회 등이 진행되었음.</p>	
4. 29	<p>(주)大宇, 北韓 남포공단에 첫 合營工場 설립 發表</p> <p>○ '95년말 『조선삼천리총회사』 측과 남포 경공업사</p>	<p>亞·太平和委 이종혁 副委員長, 駐韓美軍 관련 發言(美 애틀란타)</p> <p>* 美 조지아大 국제문제센터 학술회의</p>	<p>캠벨 美 국방부 부차관보, 『北韓 年内 崩壞 可能性』 發言</p> <p>○ 북한은 식량 및 에</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9	<p>업 계약 체결후 북한당국에 설립을 등록하였으며 '96. 3 영업 개시승인을 받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영회사 명칭은 『민족산업총회사』이며 총사장은 삼천리총회사측이 부총사장은 대우측이 맡으며, ○ 총 투자금액은 약 1천50만불로서 대우와 삼천리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게 됨. ○ 1,3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 年 셔츠 3백만장, 자켓 60만장, 가방 30만개를 생산, 수출액은 약 3,500만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96. 5 가동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임. ○ 그러한 조건으로서는 한국, 일본 등과의 합동군사훈련 중지 및 대북비난 금지와, ○ 미국이 북한겨냥 공격무기를 한국에 반입하지 않는 것임. ○ 상기 조건 충족시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북한에 공격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님. <p>亞·太平和委 이종혁 副委員長, 對北식량지원 希望發言(美 애틀란타)</p> <p>*美 조지아大 국제문제센터 학술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를 겪거나 힘들때 돕는 것은 민족고유의 미풍임. ○ 지난해 수재로 현재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제공동체가 도와주면 난관을 조속 극복하고 동북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임. 	<p>너지난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단계에서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 여부는 큰 의미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향후 6~7개월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에 비상사태는 다가오고 있음.
4. 30	<p>權五琦 통일부총리, 4者會談 장기구도로 추진 說明</p> <p>*여의도클럽 초청강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은 유관국과의 긴밀한 협의체제 유지 및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p>5.1節 106돌 紀念 中央報告大會(인민문화궁전)</p> <p>*참석자 : 이종옥, 김중린, 김복신, 장철, 주성일 등</p> <p><김중린 당비서 기념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로동계급은 김정일 두리에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30	<p>경주하면서 장기구도로 차분하게 추진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당면한 어려움이 외교적 고립이나 급작스러운 체제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협력할 태세가 되어있음. ○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하여 남과 북이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화해하고 협력하는 큰길을 여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p>단결 또 단결하여 영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모두가 忠臣되고 銃爆彈이 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노동자들은 각계각층 인민들과 굳게 연대하여 현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과감히 투쟁하여야 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			<p>美 국무부,北韓테러 활동 지원국 發表</p> <p>* '96 세계테러양상 보고서</p> <p>○ 북한은 '87KAL 폭파 이후 국제테러를 지원한 것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 대변인도 '95.11『모든 종류의 테러에 반대하며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p> <p>○ 그러나 북한이 지난 70년 일본 民航機를 납치해 들어간 적군파 요원들에게 계속하여 정치적 근거지를 제공하고 있음.</p> <p>○ 북한과 함께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및 쿠바 등 7개국이 테러국 명단에 계속 남게 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			<p>데이비스 美 국무부 代辯人, 美·北韓 고 위급 회동 言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측, 허바드 부 차관보 북한측, 이 종혁 아·태평화 위부위원장 ○ 쌍방은 양측의 이 익이 관련된 많은 주제를 놓고 폭넓 게 의견을 교환하 였으며, ○ 특히 미국측의 4 자회담 제의에 북 한의 적극적인 호 응을 촉구하였음. <p>매커리 美 백악관 代 辯人, 北韓 핵연료봉 封印착수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영변 핵시설 에 있는 8천개의 핵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이 IAE- A감독하에 시작되 었음. ○ 핵연료봉은 냉각 보관하여 궁극적 으로 북한 외부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			<p>반출될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 봉인작업으로 '94 제네바합의가 만족하게 이행되며 위기의 하나가 해결된 셈임.
5. 2		<p>中·平放, KEDO제공 『重油』납입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 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 주도 KEDO가 일정대로 중유를 납입하고 있음. ○ '94.11~'95.10기간 15만톤, '95.11~'96.4기간 17만톤의 중유가 납입되었음. ○ 앞으로 매년 미국과 KEDO는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전기 및 열생산에 사용됨. <p>中放, 韓國 空軍의 西海 對艦攻擊訓練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새전쟁발발의 위험이 더욱 커가고 있음. ○ 남조선괴뢰들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완전한 무장지대로, 공격출발진지로 만들면서 분계 	<p>키드 IAEA代辯人, 北韓 핵폐연료봉 試料採取 不許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도 북한 핵개발 계획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한 연료봉 시료 채취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우리의 과업은 핵개발 계획의 과거, 그리고 장비 목록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통보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시료 채취를 할 수 없는 한 여하한 판단도 내릴 수 없을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		<p>선에서 100미터 지점까지 기어나와 공격진지를 구축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이 계속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차례질 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임. 	<p>이케다 日 外相, 4者 會談以後 對北修交 협상가능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4자회담이며 그 이전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한반도 4자회담이 진행된 뒤에나 일·북한 수교협상은 가능할 것임.
5. 4		<p>勞動新聞, 『공개단계에 이른 전쟁도발 음모』題下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 괴뢰 군부는 언론을 통해 북침전쟁도발 계획인 5단계 5027작전이라는 것을 공개하였음. ○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음모가 공개 단계에 이르고 물리적 충성만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응당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 ○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도발의 길로 나온다면 침략자들을 짓밟아버리고 전쟁의 근원을 들어내고야 말 것임. 	<p>미·북한, 제2차 유해협상 개막(5. 4~7, 뉴욕,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에서는 미군 유해 및 송환에 따른 보상문제와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구성문제가 논의됨. ○ 미국측에선 제임스 월드(국방부 부차관보), 북측은 김병홍(외교부 국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4			* 1차협상 : '96.1. 10~12, 하와이
5. 5			美 아시아뉴스 주필 文明子, 김정일 '97이 후 주석 취임發言 * 4.27 방북 김영남 외교부장과 회견 ○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만3년후인 '97.7이후 공식승계를 결정하였음. ○ 4자회담 제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출발점인지, 아니면 남북한 불가침 합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과는 관련되어 있는지 연구중에 있음.
5. 6	孔魯明 외무장관, 4者會談 협조 對러 要請(모스크바) * 러시아 이그나텐코 副總理와 회담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4자 회담의 성사를 위해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등 4국이 우선 한 반도의 평화체제를 논의한 후 러·日등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5. 7	<p>韓·러 외무장관 會談(모스 크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孔魯明 외무장관, 프리마 코프 외무장관 ○孔장관은 4자회담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러시아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러시아측은 한국측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회담에의 직접적 참여를 희망하였음. 	<p>外交部 代辯人, 4者會談제의관련 中通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미국이 내놓은 제안의 취지·목적·모종의 기도·현실성 등을 따져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즉시 요구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공식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 사이 적지 않은 시일이 무뎠하게 흘러가기는 했지만 인내성과 자제력을 발휘 미국측으로부터 설명이 있기를 좀더 기다려 보고자 함.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토의·결정되어야 함. <p>제5차 KEDO 敷地調査團 訪北(4. 27~5.7)후 歸還</p>	<p>번스 美 國 무 부 代 辯 人, 4者會談 關 連 發 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간의 영구적 평화를 향한 심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임. ○북한이 4자회담 관련 추가회동을 요청하거나 추가정보를 원할 경우 기꺼이 제공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8		<p>中通, 北韓의 경제정책 轉換관련 報道 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對西邦 경제관계를 두고 일부 언론계는 자립경제의 한계를 떠들며 경제정책을 전환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하고 있음. ○ 지난기간 우리와 서방간 비정상적 상태에 있는 것은 미국 등 서방측의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봉쇄, 군사경제적 압력 때문임. ○ 그러나 조미기본합의를 계기로 우리와 서방국간 관계는 점차 개선기에 들어섰음. ○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서방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 	<p>訪美 이종혁 亞·大 平和委부위원장, 對 北쌀지원 對美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아사히신문 ○ 북한의 향후 1년간 필요 식량은 약 120만톤, 8~9월까지는 60만톤, 5~6월까지의 20만톤이 필요하며, 당장 긴급한 3천톤을 지원 요청함. ○ 국제적 대북식량 지원이 없을 경우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대해 미국측은 추가지원을 위해서는 4자회담 수용, 테러리즘 중단 등 국제사회규범 준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9	<p>金泳三 大統領, 4者會談호응 對北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Asia Society서울 총회 致辭 ○ 4者회담은 북한의 입장을 감안한 가장 합리적인 방 안이며 회담이 성공할 경 우 가장 큰 수혜자는 바 로 북한이 될 것임. ○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 응해 오기를 바라며 아울 러 한반도의 평화를 희구 하는 여러분 모두의 지원 과 협조를 기대하는 바임. <p>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4자 회담 대책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제의이후 국내외 상황을 검토한후 향후 정 부대책에 대해 전반적으 로 논의했음. 		<p>미국방부, 美·北 遺 骸협상 합의문 發表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한이 과 거 미군유해 발굴 및 송환에서 보여 준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그 대가로 2백만 달 러를 지불함. 대가 지급이 향후의 보 상에 선행이 되지 않을 것임. ○ 양측은 6월 상반 기중 추후결정될 장소에서 공동발 굴작업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갖기 로 했음. 양측은 이같은 기술적인 회동이 연내 공동 발굴작업으로 이 어지길 기대함. <p>캄보디아, 한국과 準 공식 외교관계 수립 결정</p> <p>*내각 성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료협의회가 이 날 한국과 캄보디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9			<p>아 왕국간에 공관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음.</p>
5.10		<p>中放, 北·美 遺骸협상 진행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우리측이 지금까지 미국측에 넘겨준 유골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앞으로의 유골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문을 채택했음. ○ 미국측은 우리가 미군유골을 발굴하여 넘겨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했으며 여기에 소모된 노력, 자재, 설비등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했음. ○ 쌍방은 앞으로의 유골발굴 작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 6월 상순경에 실무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했음. ○ 쌍방은 이번회담에서 이룩된 합의가 조·미 관계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음. <p>駐유엔 新任大使 김형우(60) 뉴욕 到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1			<p>레이니 駐韓美大使 4 者會談관련 發言</p> <p>*아시아 소사이어티 7차 총회(서울신라 호텔)</p> <p>○ 4자회담에서는 한 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는 차원을 넘어 긍정적 관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p> <p>○ 남·북한 양측은 중요한 점을 충족시키는 임시합의나 부속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p> <p>○ 한·미 양국의 이익은 대북경제지원에 따른 긴장완화 및 남북교류 활성화시 확보 될 것임.</p>
5.13	<p>LG그룹, 對北 賃加工 컬러 TV 첫반입</p> <p>○ 평양의 대동강 테레비존 수상기 애국천연색 공장 에서 임가공 컬러TV 1 차분 250대를 제3국적선</p>	<p>平放, 北韓 食糧難에 관한 보도관련 論評</p> <p>○ 최근 남조선 괴뢰들은 지난해 우리의 큰물피해로 인한 식량 문제를 걸고 모략선전을 집요하게 벌이고 있음.</p>	<p>유엔 WFP · FAO, 北韓食糧難 관련 聲明</p> <p>○ 북한의 지난해 수확량은 거의 소비되었으며 식량재고가 심각하게 낮</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3	<p>으로 남포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했음.</p> <p>- 브랜드 : 골드스타 생산지표기 : 북한</p> <p>○ LG그룹은 지난 2월 대동강 테레비존 공장에 NTSC 시스템 컬러TV(북한은 PAL시스템)조립용 계측기등 40만불 상당의 설비를 반출했었음.</p> <p>○ 지난 3월에는 태국 방콕의 LG전자 현지 합작 공장에서 북한측 기술자 5명에게 한달간 생산기술, 품질관리 등 제반 교육을 실시했음.</p> <p>韓·美·日 高位政策 協議會 개막(5.13~14, 제주)</p> <p>*참석자</p> <p>(한국) 鄭泰翼외무부 제1차관보</p> <p>(미국) 윈스턴로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p> <p>(일본) 야나이 순지 외무성 외무심의관</p> <p>○ 한·미·일은 4자회담 관련 兩者 협의후, 5.14최종적으로 3자 협의함.</p>	<p>○ 그들은 최근 북미 기독교자회의에 참가한 우리측 대표단이 식량문제로 북에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느니, 위기전야라느니 하였다 하였음.</p> <p>○ 남조선 괴뢰들이 그 무슨 위기설을 들고 나온 것은 우리의 국제적 권위와 위상을 깎아 내리고 극도에 달한 저들의 통치 위기를 수습하려는데 있음.</p>	<p>은 수준임.</p> <p>○ 이는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한 식량 부족 사태를 의미하며 식량난은 '97까지 이어질 것임.</p> <p>번스 美 國 무 部 代 辯 人, 對 北 經 濟 制 裁 推 薦 化 檢 討 發 言</p> <p>○ 최근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위기는 계속되며 가까운 장래에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임.</p> <p>○ 우리는 식량난을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경제제재 완화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4	<p>韓·美·日 고위협의회 共同 언론발표문 發表(제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대표단은 對북한 정책 수행에 따른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점검하였음. ○ 또한 4자회담 제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호응을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금번 협의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개방 및 접촉 증대·남북관계개선에 호응하는 건설적인 기회로 되었다고 평가함. ○ 차기 협의회는 수개월내 일본에서 개최하되 구체사항은 추후 협의기로 함. <p>*主要問題 言論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食糧問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렵지만 체제 붕괴 조짐은 없는 것으로 관측 ○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오는 경우 식량문제도 토의될 수 있다는데 의견 일치 		<p>번스 美 국무부 代辯人, 4者會談 관련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을 배제하고 워싱턴과 평양간 일방적 채널을 구축하지는 않을 것임. ○ 서울이 반드시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 원칙이며 북한도 이점을 이해하고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日 양국 정부는 현재 대북 식량 추가지원 不고려 <li style="text-align: center;">〈4者會談〉 ○ 우리측은 남북한 당사자 협의, 美北 별도 협상 不可등 기본입장 설명 ○ 3국은 4자회담 성사를 위해 별도의 대북 유도책 不고려 ○ 日側은 韓美 양국의 4자 회담 추진 적극지지 입장 표명 <li style="text-align: center;">〈대북설명회〉 ○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토록 하는 설득작업의 일환으로 한·미가 공동참여하는 설명회 개최를 대북 제시기로 했음. ○ 설명회는 4자회담예비접촉의 성격은 아니며 북한의 궁급증을 풀기위한 수단임. 		
5.15	<p>(주)大宇, 평양 합영회사에 상주직원 파견 계획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의 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에 10명의 직원을 파견할 계획임. ○ 이중 기술자는 7명이고 3 	<p>中放, 韓·美 공군참모총장 회담 (5.10)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공중우세에 의거 수백대의 전투비행기들을 먼저 동원하여 군사대상물을 집중폭격하고 지상전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5	<p>명은 평양에 설치될 同 합영회사 본사에 근무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의 방북은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는대로 이루 어질 것이며 평양 본사는 오는 6월경에 설립 될 예 정임. <p>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 후 남북경제통합 보고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 한 경제통합의 주요과제』 ○ 한반도 통일후 북한의 경 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 가격 및 무역자유화, 농 업개혁, 국영기업의 사유 화 등이 전면적으로 추진 되어야 함. ○ 시장경제 체제 전환이후 북한의 소득 수준이 남한 의 40~60%에 이르기까 지는 20년이상 걸릴 것으 로 예측됨. <p>國防部, 北韓軍 및 中國軍 묘지 造成계획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통일대비 민족공 동체적 입장에서 북한군 	<p>감행하려는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 럼 전쟁의 승패는 결코 공중우 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기 어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천백배 의 징벌을 안길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5	<p>및 중국군묘 96기를 조성, 관리키로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 참전 또는 무장공비로 사살되어 방치된 북한군 95기, 중국군 1기를 경기도 파주군내에 이장 조성함. <p>*제네바협정 추가의정서 35조(적군유해 존중)</p>		
5.16		<p>光州人民蜂起 16돌 紀念, 平壤市 軍 中대회(평양 체육관)</p> <p>*참석자 : 이종옥, 양형섭, 김중린, 여연구, 백남준, 한시해 등</p> <p>〈양형섭 연설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인민들이 광주봉기 때보다 더욱 흑심하게 유린 당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지배정책과 남조선 통치배들의 민족반역행위에 기인함. ○ 남조선 호전분자들은 최근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계기로 각종 군사훈련, 중무기반입등 더한층 무모해지고 있음. ○ 평화보장의 직접 책임이 있는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남조선은 북침전쟁소동 중지, 보안법철폐, 통일에국인사를 석방해야 함. 	<p>北韓 對外經濟委 부위원장 이성록, 『4者會談·쌀 分難』對日 요청</p> <p>*방북기자단과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여부와 분리하여 쌀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 北·日 수교에 앞서 상호무역사무소 개설 등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것을 희망함. <p>크리스토퍼 美 國務長官, 4者會談 관련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더 자세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6			<p>정보를 요구하고 이 제의에 진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이를 「일부 진전」으로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도 4자회담을 합리적 제안으로 생각하며 북한 참여시 중국도 참여할 것임을 시사하였음.
5.17	<p>金泳三 大統領, 월드컵 南北 分散개최 거듭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하면 북한에서도 일부 경기를 하도록 할 것임. ○ 월드컵 남북 분산개최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p>統一院, 北韓 外債 115억弗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현재 러·중·일 등에 약 115억불의 빚을 지고 있으며, 	<p>平放, 남한의 地對空미사일 「天馬」 開發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도당의 '98부터 본격적인 미사일 생산책동은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우리에게 대한 용납못할 도전 행위임. ○ 포악한 전쟁광신자 김○○이 전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한 우리민족은 전쟁위험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음. ○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는 전쟁책동은 저지되어야 하고 전쟁 광신자 김○○일당은 제거되어야 함. 	<p>번스 美 國務部 代辯 人, 北韓軍 중부전선 挑發 解明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이에대한 해명을 제기할 것이며, ○ 정전협정에 대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준수할 것을 대북 촉구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북한의 '94 GNP212 억불의 54%에 해당됨. <li style="padding-left: 2em;">〈외채내역〉 러시아 43.2억불 중 국 21.9억불 서방채권은행단 23.3억불 일 본 9.1억불 기 타 17.6억불 國防部,北韓 武裝軍 中部戰線 군사분계선 侵犯발표 ○ 무장 북한군 7명이 5.17, 12:16 경기도 연천군 군사분계선 남쪽 20~30m 까지 월선하였음. ○ 이들은 우리측의 14발의 경고사격을 받은 후 同 13:12 분경 북으로 돌아갔음. ○ 이날 상오에 3명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북쪽 200m지점에서 소총 5발을 발사한 바 있음. 	<p>中放,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길로 나가려 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 제안에 주저할 이유가 없음. ○ 남조선괴뢰들은 조·미간 평화보장체결 수립에 끼어들 자격도 명분도 없음. 	
5.18	<p>國防部 代辯人, 武裝 北韓軍 침범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의 이번 도발행위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중무장 투입(4.5~7),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월선 	<p>中·平放, 武裝 北韓軍의 中部戰線越線관련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7, 09:30경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괴뢰군들이 그 맞은편에서 정상 임무중인 우리 군인들에게 철수하지 않으면 사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8	<p>(4.11)에 이어 자행된 정전협정 위반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군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 북한이 앞으로도 정전협정 위반 도발행위를 자행할 경우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 	<p>격하겠다고 위협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사태가 무장충돌로 넘어가지 않은 것은 인민군이 높은 인내력과 자제력을 발휘한 결과임. ○ 만약 김○○일당이 우리 인민군들의 정상적 임무수행을 계속 방해 하면서 위험한 사태로 몰아간다면 그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도발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5.20	<p>韓國開發研究院(KDI), '95년도 北韓의 貿易赤字 8.8억불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도 북한경제동향』 ○ 북한의 지난해 교역액은 20.6억불로써 전년대비 2.3%감소하였으며 적자 폭도 8.8억불로 증가하였음. - 수출은 5.9억불로 전년대비 26.7%감소한 반면, - 수입은 14.7억불로써 전년에 비하여 15.8%증가되었음. ○ 올해의 곡물 부족량은 약 259만톤으로 추산되며 공장가동률도 30%이하로 추정됨. 	<p>外交部 제1부부장 강석주, 4者會談 관련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北 日기자단과 회견 ○ 4자회담 관련 아직 검토중으로 미국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용할 수 있으면 받아들일 것임. ○ 일본측이 북한의 4자회담 대응을 지켜보면서 日北修交 협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p>駐韓유엔사, 遺骸發掘費 2백만불 對北 전달(판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움스 대령은 북한 박임수 대좌에게 유해 162구 발굴비로 200만불(약16억원)을 전달하였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1		<p>中放, 『新韓國黨』의 議席 過半數 확보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정치요, 자유민주주의요 하면서 저들이 마치 민의를 존중하는 것처럼 떠들었음. ○ 그러나 남조선이야 말로 민주 민권의 폐허지대이고 정치협잡배들이 살판치는 불법무법의 천지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 남조선 인민들은 부정협잡선거에 이어서 공작정치로 자신들을 또 한 번 우롱한 신한국당 패거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임. 	<p>駐韓유엔司,北韓軍越線항의문 對北 전달(판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유엔사는 5.17북한군 7명의 중부전선 월경에 대한 항의문을 판문점 일직 장교를 통해 전달하였음. <p>美, 4者會談 관련 3者接觸 대북제의(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국무부 브라운 한국과장은 주유엔 대표부 한성렬 공사와의 접촉에서, ○ 한미가 공동으로 4자회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5.22		<p>北韓-中國, 상호 經濟技術協力관련 會談(북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 홍성남 부총리, 중국측 李風淸부총리 ○ 양측은 조·중 상호경제 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하고, ○ 중국의 2만톤 규모 대북쌀 지원에 관한 협의각서를 교환하였음. 	<p>데니스프 러시아 外務部부국장, 『北韓, '75 南侵企圖』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대주최 국제학술회의 ○ 지난 '75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하여 남침 준비 완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2			<p>사실과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관련 구소련은 북한의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였음. ○ 과거 러시아의 대북 무기제공은 사실이나 지금은 일체의 군사교류나 협력을 끊었음. ○ 러시아는 남북한과 균형외교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정은 러시아 국익에 부합됨. <p>KEDO-北韓, 對北輕水爐建設인력 領事保護 議定書가서명 (4.8~5.22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의 법적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등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유사한 수준임. ○ KEDO직원과 회원국 정부대표는 외교관 수준의 특권·면제 등을 부여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3	<p>國防部 代辯人, 北韓 미그19 기 1대 歸順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3, 11:09 북한 공군소속 미그19기 1대가 귀순, 수원 공군비행장에 안착 하였음. ○ 同 공군기에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 귀순 동기에 대한조사를 벌이고 있음. (’83.2.25 이웅평 대위 미그 19로 귀순) <p>※ 國防部, 北韓경비정 西海 침범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고속경비정 5척이 5.23, 05:50서해 소청도 부근 북방한계선을 넘어 왔으며, ○ 우리 경비정이 출동하자 20여분만에 복귀했음. ○ 이들의 침범행위가 재발할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임. 	<p>中·平放, 南韓의 戰鬪艦船들이 北側 영해 浸透捏造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아침 5시 40분경에 괴뢰들은 구축함, 경비함, 쾌속정들로 이루어진 8척의 전투함선들을 황해남도 강령반도 장산곶 영해 깊이 침입시켰음. ○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이 긴급현지로 진출하자 놈들은 황급히 남쪽으로 달아났음. ○ 이번 해상침입 행위는 괴뢰들의 정전협정 파괴와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군사적 도발행위를 연이어 감행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한 것으로서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음. <p>北韓蹴球協會서기장 이창선, 월드컵 南北共同開催 不可能 對 FIFA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남북대결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바, 월드컵공동개최는 남북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지지 못했으며 더 이상 고려 될 수 없음. ○ 남한측은 북한이 월드컵 공동개최 의사를 공표한 것처럼 떠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며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4		<p>勞動新聞, 4者會談 共同說明會 거 부 論評</p> <p>*『분수없는 상식이하의 행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4 제주도협의회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큰물피해로 인한 국제적 인도주의적 지원문제를 4자회담 제안과 결부시킴으로써 그 제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의심을 크게 해주었음. ○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4자회담 제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이 공동설명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임. ○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4자회담을 제기해 왔음으로 그 취지·목적·다른기도·현실성 등을 따져 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하였음. ○ 그런데 남조선 괴뢰들이 증빨나게 나서서 공동설명이요 하면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서 들을 것도 들어 볼 것도 없음 <p>勞動新聞, 北韓軍 군사분계선 越線 責任轉嫁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 대해 침범이니 발사니 하는 것은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넘 	<p>國際赤十字聯盟(IFRC), 올 여름이 北韓 食糧難 최대고비 展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각지방에서는 현재 기근조짐이 점증하고 있으며 식량 사정이 급속악화되고 있음. ○ 새로운 수확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7~9월이 북한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임. <p>美, 미사일 輸出關聯 對北韓 經濟制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對이란 미사일 수출관련 향후 2년간 미국기업과 미사일관련 기술·설비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4		<p>겨씨우기 위한 책동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괴뢰들은 지난 14일과 15일, 17일에도 전선중부 군사 분계선 대밀에서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는데 이는 북침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적 고의적인 모략행위임. 	
5.26		<p>리처드슨 美하원의원 一行 軍用機로 평양 到着</p>	
5.27		<p>中放, 『韓總聯』 제4기 出帆式 관련 對南煽動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도당의 악랄한 폭압책동에 굴하지 않고 4번째로 출범한 한총련 청년학생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의 인사를 보냄. ○ 한총련은 출범 선언문에서 조·미 평화협정 체결과 민족통일대행진 개최, 그리고 연방제 조국통일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음. ○ 한총련의 출범 선언문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계기로 될 것임. 	<p>『北韓脫出者 즉각 射殺』당했다고 러시아 沿海州 知事가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NHK방송 ○ 블라디보스톡 공항 당국은 지난해 12월 가짜 한국여권으로 서울로 향하던 북한주민 3명을 체포했음. ○ 북한과의 국경에서 먼저 1명을 인도하자 북측은 러시아 병사가 보는 앞에서 사살했음. ○ 러시아측은 인도주의적 관점에 따라 나머지 2명을 다시 블라디보스톡 구치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7			로 돌려보냈음.
5.28			<p>레이니 駐韓미대사, 南 北間『新평화틀』 바람 직 記者會見(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 제안은 북한이 희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며 북한의 긍정 적호응을 계속 촉 구할 것임. ○ 한반도 평화정착 을 위해 남북간에 는 새로운 평화틀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측의 중요 한 필요를 충족시 키는 『잠정적이며 부수적인 협정』들 이 모색 될 수 있 을 것임. <p>미국방부 代辯人, 北 韓軍 軍事準備 최저 수준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순 이철수대위 발언 관련 ○ 1백만 북한군의 주 요 군사준비 태세 는 최근 수년간에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8			비해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현재 최저의 수준에 있음
5.29	<p>訪韓 리처드슨 美하원의원 訪北結果 記者會見(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김계관 등을 만나 4자회담의 중요성과 공동설명회 수용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뚜렷한 반응이 없었음. ○ 북한 당국자들은 식량문제를 현안들중 최우위에 두고 있으며 식량문제 해결 전에 다른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음. ○ 6월초 유해발굴작업을 위한 미·북간 실무회담을 예정대로 진행시키기로 합의하였음 <p>*수행원(5명) 리오터(국방부 POW/MIA 부과장) 코다마(미하원 정보위 전문위원) 크리스텐슨(국무부 한국과 부과장) 하비(국방부 북한담당관) 마게즈(리처드슨의원보좌관)</p>	<p>平放, 리처드슨 美하원의원 訪北(5.26~5.28)후 歸還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기간 외교부 강석주 제1부 부장과 회담에서 조·미기본 합의문의 이행문제, 미군 유골발굴 및 송환 문제, 4자회담 문제 등이 진지하게 토의되었음. <p>勞動新聞. 『韓總聯』제4기 出帆 관련 對南煽動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내의 청년학생들은 통일의 희망새인 정민주·이혜정의 즉각 석방과 국가 보안법 철폐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임. ○ 청년학생들은 김○○일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 반동공세를 깃부셔 버려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적극 고무해 나가야 함. ○ 모든 청년학생들은 연방제방식에 의한 범민족통일국가 창립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함. <p>駐스웨덴 大使 김홍림, 4者會談 설명 對美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현재 4자회담의 성격에 대해 미국측의 자세한 설명을 	<p>李仁模노인 身病治療차 訪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3북한으로 송환됐던 이인모(79)노인이 신병치료차 뉴욕으로 떠났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9		기다리고 있음.	
5.30	<p>外務部 당국자, 北韓 과학자 등 2명 한국망명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과학자 1명과 다른 탈북자 1명이 동남아의 제3국에서 귀순의사를 표명해와 관계 당국과 협의 중임. <p>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갑렬 등의 한국망명에 대해서는 자유의사가 확인된 만큼 관련국과 협조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데려오도록 함. ○ 미그기 귀순사건 및 북한 과학자의 잇달은 망명사건으로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임. ○ 대북식량지원 관련 민간 차원의 상징적 수준은 묵인키로 하며, 종교·사회 단체들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융통성있게 대응키로 함. 	<p>中·平放, 祖平統 서기국의 汎民聯 南側本部議長 등 懲役刑 宣告 糾彈 관련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이단체 성원들에게 징역형을 들썩운 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성취하려는 통일애국 인사들을 말살하려는 것임. ○ 북과남, 해외의 온겨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부당하게 투옥된 모든 통일애국 인사들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31	<p>北韓 科學者 정갑렬(45)등 2명 歸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갑렬(45, 국가과학원 음향기기 연구소장) * 장해성(52, 중앙방송 문 예총국 방송작가) ○ 장해성은 『북한주민들은 김정일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면서, ○ 『통일이 될 때까지는 길 어야 3년정도 일것』이라 고 말하였음. 		<p>FIFA, 월드컵 韓·日共 同 개최 決定(취리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축구연맹 집 행위는 2002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 관련 韓·日 공동 개최안을 만장일 치로 채택하였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		<p>『汎靑學聯』 북측본부, 南韓當局의 『韓總聯』 대응책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총련 제4기 출범식에서 조·미 평화협정체결과 민족통일대행진 개최, 연방제 통일실현을 발표한 것은 거래의 지향과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임. ○ 남녘청년학생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利敵이라고 하는 것은 괴뢰들 스스로가 남북간의 대화나 통일도 바라지 않는 분열주의자, 매국노임을 보여줄 뿐임. ○ 김○○일당의 한총련 말살책동은 수습할 수 없는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보기 위해 벌이는 단말마적 발악임. 	<p>日本 하시모토 總理, 對北 食糧支援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공동개최관련 韓·日 영수 전 회담 ○ 유엔이 조만간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긴급 호소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음. ○ 대북 인도적 문제 관련 한국과 협의하에 당연히 진지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6. 4		<p>金正日, 동해안일대 人民軍部隊 視察</p> <p>金正일의 백두산혁명전적지 踏查路程開拓 40돌기념 중앙보고회(4. 25 문화회관)</p> <p>* 참석자 : 이종욱, 최광, 김영남, 계응태, 백학림 등</p> <p>〈최태복 기념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괴뢰들은 이 시각에도 미국 극우세력의 부추김 밑에 북 	<p>로드 美國務部 차관보, 미사일 凍結 및 4者會談 참여시 對北 制裁 완화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문제와 관련, 생산은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동결하고 수출은 중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4		<p>침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날뛰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그 어떤 불의의 정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 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음. ○ 만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끝끝내 우리를 도발한다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침략자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간 미사일 회담이 계속되어 생산적이고,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할 경우 대북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6. 5		<p>金正日, 칠보산(咸北 소재) 參觀</p> <p>*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등 동행</p> <p>노동新聞, 通信·地下鐵 勞組 등의 罷業鬭爭 결의 관련 對南 煽動 論評</p> <p>*『투쟁만이 살 길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가장 나쁜 노동조건하에서 마소와 같이 흑사 당하며 중세기적인 강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남조선 노동자들의 처지임. ○ 압제와 가난 속에 신음하는 남조선 노동자들이 그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투쟁에 나서는 것은 백번 정당한 권리행사임. 	

■ 6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6			<p>유엔人道支援局(DHA), 對北 2차지원 規模 確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무총장 대변인 발표 ○ 유엔 인도지원국은 북한의 식량난을 현지 조사한 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약 4,300만 불로 확정하였음. ○ 내역별로는 WFP에서 식량지원이 약 2,680 만 불, UNDP와 FAO에서 농지복구비로 1,300만불, WHO와 UNICEF에서 의료·아동 대상으로 600만불, 기타 행정비용으로 56만불 등임.
6. 7	<p>歸順 정갑렬·장해성 記者 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31 귀순 ○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7	<p>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 집중 보도토록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초 하달되는 보도방침에는 김정일의 위대성 선전강화, 남조선 사회의 암투상 등 선전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북한은 경제난으로 각종 범죄가 만연하자 '94말부터 살인자는 물론 누범자나 재범자에 대해서도 공개처형 하고 있음. 		
6. 8	<p>金泳三 대통령,北韓 開放את는 한 食糧難 不可避 發言</p> <p>* 한국일보 창간 42주년 기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겪는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 개선될 전망은 없음. ○ 북한은 권력승계를 비롯한 내부정세도 매우 불투명하며, 최근 특권계층이 	<p>美軍遺骨發掘問題 협의의 美國實務代表團 평양 到着</p> <p>* 단장 : 엘런 리오타(미 국방부 부과장)</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8	잇달아 귀순하는 등 내부 단속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6.10		<p>6.10萬歲 70돌기념 平壤市 報告會 (중앙노동자회관)</p> <p>〈백남준 기념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화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함. ○ 일본 당국은 우리나라의 통일에 해되는 일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하며 과거 죄악의 역사를 하루 빨리 가셔야 함. ○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 계층 인민들은 식민지 파쇼통치를 끝장내고 자주적인 민주정권 수립을 위해 투쟁하여야 함. <p>金正日, 금강산 발전소 視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의 同 발전소건설지시 10돌 즈음 ○ 동 발전소는 강원도 안변군 등 광활한 지역에 흐르는 강, 하천 물들을 한 골에 몰아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업. 	<p>번스 美 國 무 부 代 辦 人, 北 韓 的 核 心 事 實 4 基 保 有 說 否 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지난 '94.10의 제네바 합의 후 현재까지 완전 동결된 상태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은 금강산발전소 1단계 건설공사를 하루빨리 끝내며 다음 단계 공사들을 힘있게 내밀 데 대한 구체적 과업을 제시하였음. 	
6.11	<p>權五琦 통일부총리, 對北食糧支援 관련 發表文</p> <p>*통일관계장관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WFP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을 호소하였는 바 정부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동참할 방침임. ○ 지원규모는 300만불 상당의 상징적 수준이며 지원 품목은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배합분말과 분유가 될 것임. ○ 앞으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대북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는 『4자회담』이 성사되어 광범위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차원에서 논의, 추진될 수 있을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기자회견〉</p>	<p>中放, KEDO의 대북 重油 納入상황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KEDO는 '96.5 현재 50만톤중 21만톤을 일정대로 납입하였음. ○ 지금까지 납입된 중유는 총 36만톤으로써 열 및 전기생산에 이용되고 있음. <p>金正日, 海軍節즈음 海軍 제853부대 訪問</p> <p>*계응태, 김기남, 김용순, 현철해, 김명국, 김하규, 박재경 등 동행</p>	<p>日정부, 대북식량난 관련 6백만불 支援 잠정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의 대북긴급 지원 호소에 따라 600만불 지원키로 잠정 결정함. <p>존 킬러리 駐韓 美사령관 內定者, 統一後 에도 駐韓美軍 계속 주둔 展望</p> <p>*美상원 군사위 청문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은 북한 노동 1, 2호 등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전진배치하고 있음. ○ 한국이 통일될 경우 주한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차원의 지원창구는 『한적』으로 하며 쌀을 제외한 곡물지원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체될 것이지만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을 것임. ○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진일보가 되겠지만 북측이 대남 적대감을 포기치 않는 한 한반도의 근본적 대치상태는 해소될 것같지 않음.
6.12	<p>權五琦 통일부총리, 4者會談 호응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통』 제7차 서울지역 회의 ○ 4자회담 구상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치임. ○ 『4자회담』은 무엇보다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서 분명한 것은 북한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점임. ○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4자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p>中放, 日本의 한반도 參戰 미군지원 對應策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가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느니 하면서 참전 미군에 대한 지원과 미군항공기·함선의 보수 등을 실시하려 한다함. ○ 사실상 일본반동들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음. ○ 만일 일본이 조선전쟁에 끼여든다면 조선반도에서 멀지 않은 일본땅도 결코 무사할 수 없음. 	<p>유엔 人道支援局(DHA), 北韓食糧難 실태보고서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9개 道, 200여개 郡 8개 道, 145개군에 걸쳐 520만명이 흉수피해를 입었음. ○ 현 최소배급량을 기준으로 추수기인 '96.9월 말까지 47만톤의 곡물지원이 더 필요함. ○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긴 하나 절망적이거나 소요가 우려되는 상황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2	<p>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4자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길이 열리도록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임. <p>黨政會議, 對北食糧難 KEDO 方式 지원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나 북한의 입장을 감안, KEDO방식의 對北 지원방안 검토를 제시함. ○ 북한에 대한 지원이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식량지원과 함께 수해피해복구, 영농 기술, 영농 자재 등 체계적 지원 문제를 검토함. ○ 민간분야 對北지원창구를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민간기구의 창설을 검토함. 		<p>아님.</p> <p>※ 6.24 제네바에서 대북식량 공여국 회의(45국) 개최 예정임.</p> <p>번스 美 국무부 代辯人, 북한식량난 관련 620만불 지원결정 발표</p>
6.13		<p>勞動新聞, 非武裝地帶의 自衛的 措置 正當 주장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뢰들은 정전협정을 빈종이장 	<p>濠洲, 對北食糧難 관련 46만불 지원 暫定 決定</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3		<p>으로 만들고 외세의 힘을 빌어 북침통일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정전감독기구를 마비시켰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은 이미 북침격발기를 당긴 상태에서 전쟁도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위협한 군사적 모험에 매달리고 있음. ○ 최근 우리가 취한 자위적 조치는 괴뢰들의 호전적 책동으로 인한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 	<p>* 뉴질랜드 7만불 (잠정)</p>
6.14	<p>國防部, 北韓 경비정 3척 侵犯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4, 14:35 북한경비정 3척이 서해 연평도 서남쪽 북방한계선을 7km가량 침범하였음. ○ 북한경비정은 우리측 해군함정의 즉각적인 대응기동작전에 동 17:24 모두 복귀하였음. <p>『韓赤』, 제5차 對北水災民 지원계획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대북 밀가루 572톤 (약 2억원)을 지원할 것 	<p>KEDO-北韓, 對北경수로 通信·通行 議定書 가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초기에는 평양-신포간 광케이블을 이용하되 착공 24개월 이후에는 무궁화위성을 통한 독자적 통신망을 구축함. ○ 空路의 경우 신포부근 선덕공항을 이용하며, 海路는 남북간 2개의 직항연안로를 이용하여 신포까지 갈 수 있도록 함. <p>北·美, 미군유골 발굴관련 합의서 채택(6.10~14 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지난 5.9에 있는 뉴욕합의에 따라서 미군 유골 발굴 작 	<p>레이니 駐韓美대사, 北韓冷害保險金 관련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94 흉작에 대한 보험금이 1억 3천만불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300만불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4	<p>이며 이는 종교단체 등 각계 성금으로 사들인 것 임.</p>	<p>업과 관련한 합의를 채택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유골발굴 작업은 오는 7월과 9월에 각각 한 번씩 진행하게 됨. ○ 미국측은 유골발굴 작업에 필요한 일체 장비와 물자 등을 대며 모든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기로 했음. <p>北 · KEDO, 通信 · 交通議定書 合意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지난 4.16~6.14까지 미국의 뉴욕에서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체결된 경수로 제공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통신 · 교통 의정서 관련 협상이 진행됐음. ○ 협상에서는 동 의정서들을 경수로 제공협정과 해당 국제법과 국제관례 그리고 경수로 대상실현을 위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토의하고 합의했음. 	
6.16		<p>黨 · 政 간부들, 金剛山 發電所 參觀</p> <p>* 이종욱, 박성철, 김영남, 전병호, 한성룡, 김철만, 최영림, 홍석형, 황장엽, 김중린, 김복신, 장 철, 윤기복 등</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7	<p>韓國銀行, '95년도 北韓GNP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북한 경제(-4.6% 성장)는 6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89 對比 25%정도 줄었으며 경제 규모도 GNP 기준 남한의 1/20수준임. ◦ 북한의 1인당 GNP는 957불로 남한의 10,076불에 비해 1/10수준임. ◦ 무역규모도 6년째 계속 감소, 지난해 총 무역규모는 20억 5천만불에 그쳤음.(남한의 1/126) 	<p>中放, 美·北間 잠정협정체결 對美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미 사이에 잠정협정 체결은 평화보장의 근본 담보』 ◦ 정전협정의 직접적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며 남조선의 안전보장문제의 실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은 하루 빨리 우리의 잠정협정 체결제안에 응해 나와야 함. ◦ 조·미 사이에 잠정협정이 체결될 때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p>유엔軍縮會議, 南·北韓 同時加入 승인 (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 합의제로 운영되는 유엔군축회의(38국)는 남·북한 등 23개국의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총 61개국으로 되었음. <p>北·中, 원정-권하 無비자 通行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관계자 확인 ◦ 6.15~17 北 나진·선봉시 행정위와 中길림성 정부 대표단간 회담에서 원정-권하를 통해 나진·선봉지역에 들어가는 제3국적자 단체의 통행을 허용기로 합의
6.18		<p>金正日의 黨事業 32돌 紀念 중앙보 고대회(4.25 문화회관)</p>	<p>유엔 人道支援局(DHA), 對北 식량지원 寄附額 中間 발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8		<p>*참석자 이종옥, 최 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홍성남, 최영립, 조명록, 백학림, 이하일, 김익현, 김기남, 황장엽, 김중린, 김용순, 김복신, 장 철 〈김기남 기념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당원들과 인민들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사수하여야 함. ○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최고사령관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충신, 총폭탄이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등은 대북지원으로 약 1,560만불을 약속하였음. ○ 이 금액은 유엔이 이미 지원계획으로 밝힌 4,360만불의 35.9%에 해당됨. - 한국 300만불 - 미국 620만불 - 일본 600만불 - 호주 396,800불 - 뉴질랜드 68,000불
6.21		<p>外交部 代辯人, 美國의 추가쌀 지원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우리나라 큰물피해와 관련 유엔인도국의 최근 새로운 식량기증 호소와 관련 6.11 미국은 620만달러분의 식량을 우리에게 기증하기로 했음. ○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추가적인 식량기증을 결정한데 유의하였으며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음. ○ 우리는 최근 조미간 미군 유골 공동발굴 사업을 통해 미국의 	<p>IAEA, 北韓 核安全協定 違反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IAEA 사찰관들이 북한의 거부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찰을 할 수는 없었음. ○ 앞으로는 기존의 핵안전협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적 문서를 협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1		<p>이번 조치에 선의적으로 호응하게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 쌍방의 이러한 움직임은 양국간 이해를 증진시키며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임. 	<p>정했음.</p> <p>北韓 高位代表團 臺灣 訪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대외경제 위 부위원장 이성록 등 6명으로 구성된 북한대표단이 인도적 원조 요청을 위해 대만을 방문중임. ◦ 북측은 경제원조 외에도 항공연결, 경제관계 및 투자 등에도 논의할 것으로 보임.
6.23	<p>韓 · 日 頂上會談 開催 (제주)</p> <p>*공동 기자회견</p> <p>〈金泳三 대통령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시모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4자회담에 대한 지지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음. ◦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한 · 미 · 	<p>勞動新聞, 美國이 韓國戰 挑發 主導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전쟁을 준비하고 개시한 도발자, 침략자는 바로 미제이며 미제야말로 조선인민에게 막대한 인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엄중히 교란한 범죄자임. ◦ 지금 남조선의 정세는 조선전쟁 개시 직전과 같은 상황으로 만약 미국의 호전세력과 남조선괴뢰들이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3	<p>일 3국 공조의 틀속에서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p> <p>〈日하시모토 총리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제휴가 중요하며, 4자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한·일 양국이 공동 노력할 생각임. ○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 DO)에 대한 각국의 협력을 요청할 생각임. 	<p>을 지른다면 일격에 침략자들을 소탕해 버릴 것임.</p>	
6.24	<p>金泳三 대통령, 中部戰線 陸軍部隊 視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은 굶고 군인조차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공산통일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세계 모든 나라에 식량지원을 요청하면서 마지막 도울나라는 동쪽 뿐인데도 우리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4자회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음. ○ 우리가 작년에 지원한 15 	<p>勞動新聞, 美·日방위협력 基本方針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월 발표된 미·일 안보공동선언은 미일안보체제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본 주변 지역 유사시에 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임. ○ 일본의 침략세력과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새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공동대처 구실로 전쟁마당에 서슴없이 뛰어들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 ○ 우리 인민은 일제에게 침략당하고 강점당하여 쓰라린 고통과 	<p>對北食糧 供與國會議 開催(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DHA주관 남·북한, 미·일 등 16개국가 및 국제기구 참여 ○ 주최측은 유엔관련기구들의 조사결과 북한의 식량부족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 식량원조, 경작지 복구, 보건사업 등 총 4,300 만불에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4	<p>만퐁의 쌀 대부분은 군인들에게 돌아갔으며, 북한의 종말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p> <p>歸順 이철수 대위, 러시아의 위성자료 對北提供 言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철수)의 임무는 백령도 레이더와 수원비행장을 타격하는 것이었음. ○ '96. 3 수원비행장의 사진 자료를 넘겨 받을 때 정찰참모로부터 『첩보위성을 갖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1년에 일정액을 주고 협조받는다』는 말을 들었음. 	<p>희생을 강요당한 지난 날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결심을 더욱 굳히고 있음.</p> <p>平放, 暫定協定 呼應 促求 對美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잠정협정 체결제안을 내놓은지 여러 달이 지났으나 상대측으로 부터 긍정적 반응이 없어 아무런 진전이 없음. ○ 정전협정의 직접적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므로 조미간 평화보장체계 수립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쉽게 풀릴 수 있음. ○ 잠정협정체결제안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검증될 것임. <p>金正日, 건설중인 寧원 發電所와 제 770 軍부대 後방기지 視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강 상류를 막는 발전소(평남 소재, 13.5만kw)공사는 김일성이 이미 2회 방문한 바 있으며, ○ 군부대에서 김정일은 후방공급 사업을 더욱 개선하라고 지시하였음. 	<p>달하는 제2차 대북지원 방안에 국제사회의 적극 호응을 요청하였음.</p> <p>北韓 軍縮平和研究所 代表團 日本 訪問(6.24~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교부 일본 과장 이철진을 포함한 同대표단은 체류기간 일·북 수교협상 재개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5		<p>第5次 IAEA 協商代表團, 平壤 到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대표단은 미·북합의에 따라 핵시설 동결 등 관련문제들을 토의하게 됨. <p>中國, 對北食糧 無償支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물피해 관련 중국이 제공키로 한 식량 2만톤이 6.25 도착하였음. 	<p>中國 外交部 崔天凱 代辯人, 북한-대만 접촉관련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대외경제위 이성록 부위원장 대만방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의 수교국은 대만과 인적교류, 경제·무역관계만을 가져야 한다는게 우리의 예외없는 입장이며, ○ 대만과의 어떠한 공식적 연계나 접촉에도 반대함. ○ 우리는 북한이 대만과 비공식 관계만을 유지한다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 <p>러시아, 위성사진 對北 販賣 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 군총참모부 관계자 ○ 러시아가 남한촬영 위성사진을 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5			<p>북 판매했다는 귀순 이철수의 발언 관련 우리는 위성정찰자료를 판매한 적이 없음.</p>
6.26		<p>外交部, 유엔군사령부 實態 관련 備忘錄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는 주한 연합사령부의 부속물로서 어떠한 합법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음모의 산물임. ○ 유엔사의 존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함. <p>中央通信社 代辯人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우익반동이 떠드는 조·일 관계 문제에서의 당의 약화요, 정부의 강화요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기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임. ○ 최근 일본 우익세력들이 일본과의 하등의 인연이 없는 4자회담과 북남관계문제에까지 끼어들어 간참하고 있음. ○ 우리는 일본 우익반동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교활한 계략에 대 	<p>訪美 北韓外交部 과장, 4者會談 관련 표명 留保(위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탠포드大 주최 학술회의 ○ 북한 외교부 미국 과장 이근은 美 국무부 브라운 한국 과장과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미사일 협상, 유해발굴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 북측은 4자회담 수락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음. <p>北韓, 國家追悼期間 1年 延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요미우리 신문 ○ 북한지도부는 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6		<p>하여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p> <p>勞動新聞, 韓·日 頂上會談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역도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협력과 조·일 접근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책동하였음. ○ 김○○역도의 이런 언동은 조·일 관계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출발한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임. <p>金日成 死亡 2돌 『영화상영 순간』 開幕 (6.26~7.10, 인민문화궁전)</p>	<p>근 김일성 문상 기간을 '97. 7까지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연장결정으로 김정일의 주석 및 당총비서 취임도 내년 7월 이후로 지연될 것이 확실해졌음. <p>日·北 修交協商 재개문제 實務接觸 (도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일중인 북한의 교부 일본과장 이철진과 日本 외무성 벳쇼 동북아과장은 실무협의를 갖고 수교협상 재개문제 등을 논의하였음.
6.27		<p>勞動新聞, 金泳三 大統領의 中部戰線 視察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역도가 또다시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의 광고판을 둘러매고 전쟁열을 고취한 것은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한 계 	<p>美·日 頂上, 韓半島 問題관련 協議(리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담 ○ 양국 정상은 4자 회담, 대북식량지원 문제, KEDO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7		<p>획적인 도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괴뢰들에게 한조각의 이성이라도 있다면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를 공격출발진지화한 죄과에 대해 반성하고 그러한 행동을 당장 그만 두었어야 마땅함. ○ 김○○역도는 저들이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계속 감행할 때 불나비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 	<p>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적극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였음.
6.28	<p>對外經濟政策研究院, 統一費用 2千兆원 展望</p> <p>*『남북한 통일의 국제경제적 의의』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2000년에 독일식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통일비용은 2천조원(2조5천억불)에 이를 것임. ○ 통일의 부정적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체제 확립에 성공한다면 2020년에는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임. 	<p>中央通信, 北韓의 對中東미사일販賣說 관련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은 우리와 중동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왜곡하려 미사일 수출선을 조작해냈음. ○ 지난 4월 베를린에서 미사일 협상을 진행했고 토의하고 있는 때에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여론유포를 목과할 수 없음. ○ 우리는 이 협상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으며 미국측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미사일협상을 건어치울 수밖에 없음. 	<p>KEDO, 7.20 묘향산에서 對北協商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와 북한은 7.20부터 묘향산에서 경수로지원 관련 2개의 의정서 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하였음. - 부지인수, 부지접근 및 부지사용에 관한 의정서 - 북한의 인력, 물자 등 북측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정서 ○ 방북 KEDO대표단은 KEDO사무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8			<p>국 직원과 한·미·일 3국의 정부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됨.</p>
6.29		<p>中央通信, 美軍捕虜 생존說 否認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조선정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전쟁포로 규정과 국제적 협약에 따라 60여일만에 모든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었음. ○ 우리 나라에는 미군 전쟁포로 생존자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측에 명백히 전달되었음, ○ 만약 미국측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조미간 신뢰에 배치되게 나간다면 유골 공동발굴사업은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임. <p>訪美 이인모 신병치료후 歸還(5.29~6.29)</p> <p>第5次 IAEA 協商代表團 歸還(6.25~6.29)</p>	<p>美·北韓, 美軍遺骸 7.10 共同發掘 着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무부 관계자 ○ 미·북한은 유해 발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군기 추락지점(평북 운산군)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을 벌일 것임. <p>G7 頂上會談, 4者會談 支持 議長聲明(리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가 공동제안한 4자회담 등 한반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모든 제안들을 지지함. <p>國際赤十字聯盟, 北韓食糧難 내년까지 持續 展望</p>

■ 6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9			<p>*IFRC 평양주재 대표 데니스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일부 농토의 경우 질이 낮은 옥수수밭으로 전환되었으며 수확량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음. ○ 북한의 올가을 수확량은 지역에 따라 15%~50%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금년에도 흉작이 예상된다.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	<p>金榮秀 문화체육부 장관, 올림픽 經費 對北支援 관련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올림픽 선수단에 대한 경비지원 문제는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임. ○ 정부는 이같은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IOC에 회답한 바 있음. 	<p>中央通信, 美의회의 KEDO支援 重油 減少관련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미 공화당 보수세력은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7 회계년도 조미합의문 이행을 위한 중유제공 자금을 대폭 줄이었음. ○ 미국과 KEDO가 제공하는 중유는 우리의 핵시설 동결에 따른 손해에 따른 응당한 보상일 따름임. ○ 우리는 중유가 합의된 일정대로 제때에 납입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핵동결도 부득이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음. 	<p>北韓, 小規模 個人商店 허용(최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 이타르타스 통신 ○ 북한 당국은 20여 일전 『가내방』이라는 소규모 자영업을 허용하였으며, 주민들이 가판대에서 식품, 의류 등을 판매함. ○ 북한 주민들은 매출액의 10%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내방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음. <p>번스 美국무부 代辯人, 對北 中유제공 관련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며 매년 50만톤의 중유 대북인도 합의는 이행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最高司令官 金正日, 『電信命令 제1호』 下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발전소 건설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노력적 위훈을 세운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보냄. ○ 혁명적 군인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세계적 대자연개조 공사를 '96. 6.30까지 완공하였다는 것을 선포함. <p>中放, 조선친선대표단(김윤희 부총리) 中國訪問 보도</p> <p>* 조 · 중우호협조조약 체결 35돌 즈음</p> <p>金日成社會主義青年同盟 代辯人, 日本青年들의 『평화의 배』 訪北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6월초 日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日 청년들의 친선참관단인 『평화의 배』 방북 관련 그들이 먹을 쌀을 가지고 간다는니, 이런 일은 관광계에서 처음이라느니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모략보도를 하였음. ○ 쌀문제로 말한다면 우리는 평화의 배측에 쌀을 지원해 줄 것을 	<p>北韓 外交部, 中國 國무원 우호대표단 訪北計劃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 조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체결 35주년 즈음 ○ 중국 국무원 비서장 겸 국무위원 羅幹을 단장으로 한 우호대표단이 북한의 초청으로 7.10 공식 방문하게 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요청한 적도 없고 또 먹을 쌀을 가지고 오라고 한적도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일본 우익세력들과 그를 대변하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정식 사죄하지 않는한 평화의 배 친선참관단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임. 	
7. 3	<p>權五琦 통일부총리, 統一對備 의원연구모임 講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정세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최고권력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김일성의 3년상을 1년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 ○ 대북식량지원 문제는 북한의 구조적 요인으로 구호차원의 1회성 지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농업 개혁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 ○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300만불 상당을 WFP 등을 통해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p>KEDO, 第6次 敷地調査團 訪北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 13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제6차 대북경수로 부지조사단이 7.4~30 함남 신포지역을 방문함. ○ 이번 조사팀은 북측 전문가 20여명과 공동으로 조사사업을 수행하여 경수로건설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준비하게 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	<p>韓赤창구 일원화 방침을 견지하되 품목은 쌀을 제외한 곡물로 확대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해 전례없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열기 위한 장기구도 차원에서 추진할 것임. <p>文化體育部, 南北韓 語文 規範 學術會議 개최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언어이질화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 미·중·일 참가 국제 학술회의가 8.5~9 중국 吉林省 長春市에서 개최됨. <p>國防部, 6.25 失蹤 및 捕虜 2만여명 推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당시 실종되거나 포로로 억류된 한국군은 모두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집계되었음. ○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공동협조하여 이들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토록 요청하고,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회담시 인도적 차원에서 실종자(포로, 행불자) 송환을 촉구할 것임. ○ 이를 위해 『6.25 전쟁포로 및 실종자송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송환대책을 추진할 것임. 		
7. 4		<p>中央通信, 金日成 3年喪 및 權力承繼 '97까지 延長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인용 ○ 김정일은 인민이 바라고 세계가 기다리는 추대를 미루고 3년간 상복을 벗을 수 없다고 하며 이 세상 처음으로 공산주의자의 도덕의리관을 창조하였음. ○ 김정일의 강철같은 심장이 있어 수령님의 심장은 영원히 높이고동치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할 것이며 평양시간은 영원할 것임. <p>金日成 사망 2돌즈음 각종 행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연구토론회 ○ 중앙사진전람회 	<p>中放, 中國 海軍艦隊 訪北 예정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35돌즈음 중국해군 북해함대 유도탄 3축함을 기함으로 하는 편대 방북 예정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5	<p>安企部, 北 콜레라 수백명 감염 발표</p> <p>* 최근 訪北 중국교포·관 광객 발언 이용</p> <p>○ 北韓 서해안 일대와 양강도에서 지난 6월초부터 콜레라가 발생, 주민과 군인 수백명이 감염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음.</p>	<p>勞動新聞, 전학련 의장 구속 비난 論評</p> <p>○ 김○○ 파쇼도당은 청년학생들에게 계속 족쇄를 채움으로써 극악무도한 파쇼폭군인 저들의 피비린 정체를 날날이 드러내 보이고 있음.</p>	
7. 6	<p>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金玟河 중앙대총장), 南北대학총장회담 추진 결의</p> <p>○ 7. 6 경주에서 열린 전국총장 세미나에서 南北韓 대학 교류를 위한 南北대학총장회담을 적극 추진기로 결의함.</p>	<p>祖平統 서기국, 남한의 최신 미사일 도입 계획 비난 報道</p> <p>○ 김○○일당이 계속 무력증강책 동과 전쟁불장난을 일삼으면서 북침전쟁 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인민은 매국배족의 무리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할 것임.</p> <p>KEDO 제6차 부지조사단 평양 도착</p>	<p>日 요미우리신문, 北, 美에 쌀 10만t·경제 제재 완화 요구 보도</p> <p>○ 6.25 미국을 방문한 北韓 외교부 부국장 이근이 美 정부에 10만t이상의 쌀 지원과 경제제재의 추가완화를 요구했음.</p> <p>美 NYT紙, 美·北 직접 대화 결과 가시화 보도</p> <p>○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北韓의 고립을 종식시키고 남침 위협 가능성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6			<p>제거하기 위해 북한과 조심스런 대화에 착수했으며, 이러한 政策의 결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p>
7. 7			<p>레이니 駐韓美대사, 北 식량난 불구 대중봉기 없을 것 언급</p> <p>*SBS방송 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주민들에게 에너지보급이 끊기고 어린이나 노인들이 영양실조를 겪으며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퍼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봉기가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임. <p>美 NYT紙, 北·中·러, 한국전 미군포로 억류가능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中·러는 '53년 정전협정 체결 및 포로교환 실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7			<p>이후 對美 추가협상용 카드로 한국 전 참전 미군포로를 장기간 억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있음.</p>
7. 8	<p>金泳三 大統領, 북한에 4자 회담 호응 촉구</p> <p>*제15대 國會 개원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이 성사되면 南北 경제협력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4자회담의 실현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결정적 계기가 되고 4자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北韓이 될 것임. ○ 北韓이 우리 민족은 물론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4자회담에 호응하기를 기대함. 	<p>金日成 사망 2돌 중앙 추모대회(금수산 기념공전 앞광장)</p> <p>*김정일 참석</p> <p>〈당비서 최태복 추모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 보위하며 사상과 영도에 끝까지 충성 다하는 참다운 충신 총폭탄이 되어야 하겠음. <p>〈인민군 차수 김광진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고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음. ○ 만약 원수들이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철천지 원수 미제침략군놈들부터 먼저 타격소멸할 것임. <p>김일성 사망 2돌 중앙추모대회 주석단 명단(금수산기념공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p>번스 美國무부 대변인, 對北 식량지원은 4자회담 성사와 무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의 6백만불 식량원조는 北韓 식량난 해소를 돕기 위한 유엔 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원조에 불과함. <p>中 해군함대, 7.11 사상 첫 訪北 예정(신화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인민무력부의 초청에 따라 中 북해함대 소속함정편대가 7. 8 靑島를 출발했다고 보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8		<p>김병식, 최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홍성남, 최영림(강성산 불참)</p> <p>平放, 『김정일 민족』 용어 첫사용 (정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이 영원하듯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은 영원하리라.” 	<p>국제사법재판소, 분쟁시 핵무기 사용 불법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核무기 사용 및 위협은 분쟁에 관한 國際法과 人道法의 원칙에 일반적으로 반함.
7. 9	<p>駐韓美사령관 · 韓美연합사 사령관 존 킬러리 대장 취임</p> <p>정부, KEDO 사무국에 사업前 費用비 6백만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액지원 <p>귀순자 정순영(37. 여), 北 일가족 餓死 빈발 증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들어 23가구가 사는 우리 인민반에서 2가구가 굶어죽었음. 	<p>金正日, 금수산기념궁전 건설 참가 인민군 군인들과 기념촬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조명록, 김영춘, 강석승, 김태호,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p>北韓 올림픽선수단, 평양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장 : 국가체육위 부위원장 한인군 * 선수 24명과 경기임원 포함 70여 명으로 구성 	<p>李鵬 중국총리, 對북한 지원 계속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윤혁 北정무원 부총리 접견시(신화통신) 中國은 상호 지지 및 협력의 정신아래 朝鮮의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최대한의 支援과 協力을 아끼지 않을 것임.
7.10	<p>權五琦 통일부총리, 북한 식량난 상당기간 지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大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초청강연 ○ 지난해 수해가 있기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식량 	<p>金正日, 北 · 中 조약 체결 35돌 즈음 중국 주석 강택민에게 祝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朝 · 中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리라고 믿음. 	<p>江澤民 중국주석, 北 · 中 조약 체결 35돌 즈음 김정일에게 祝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 朝 친선을 공고 발전시켜 나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0	<p>을 지원받아야 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북한의 식량난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p>	<p>北 정부, 중국 친선대표단(단장 : 羅幹 中 국무위원) 위해 宴會 개최</p> <p>*참석자 : 장철, 양만길, 김양건, 최우진, 교종희</p> <p>中해군함선 편대, 남포항 入港</p> <p>○ 中國 북해함대 사령원 해군중장 왕계영이 인솔하는 유도탄구축함 할빈호를 기함으로 한 해군함선 편대가 7.10 남포항 입항</p> <p>중앙인민위원회, 열친 러 대통령에게 재선 祝電</p> <p>○ 朝·러 사이에 선린운호 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함.</p>	<p>는 것은 中國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임.</p>
7.11	<p>金泳三 대통령, IOC의 北올림픽 비용 대신부담 타진 사실 언급</p> <p>*國會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오찬</p> <p>○ 사마란치 위원장은 IOC가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韓國측에 지원을 요청해왔음,</p> <p>北주민 최승찬(29세)씨, 한강 헤엄쳐 귀순</p>	<p>인민무력부장 최광, 中 해군함대 지휘성원들과 담화</p> <p>*참석자 : 조명록, 김광진, 김일철</p>	<p>KEDO·北,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3개 후속의정서에 공식 서명(뉴욕)</p> <p>○ 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과 허종北외교부 대사는 이미 타결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통신, 통행 등 3개 의정서에 공식 서명</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에 살 때 매일 1~2 명씩 굶어죽은 사람을 매 장하는 것을 봤다고 언급 		<p>中, 北韓에 식량 10 만t 무상제공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羅幹 중국무위원이 이종옥 북한주석 면담시 통보 <p>레이니 駐韓美대사, 北 정권인정 · 경제지원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차 韓 · 美재계 회의 만찬연설 ○ 北韓이 경제과단으로 인한 韓半島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北韓정권을 인정하고 경제 활동과 개혁을 지원해야 함.
7.12		<p>中放, 중국의 對北 식량 10만t 지원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國 黨과 政府가 지난 해 조선에서 큰물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조선에 추가로 10만t의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한데 대하여 통보했음. 	
7.13		<p>勞動新聞, 『背信者들의 비열한 革命的 罪行』 제하 論說</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며 업적을 빛내어 나가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양심이며 고상한 도덕 의리임. ○ 현대 수정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그들의 업적 말살을 위해 책동하였음. ○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수령과 혁명선배들의 사상과 업적을 지켜나갈 것이며 사회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것임. 	
7.14	<p>韓 · 美, 對北 4者會談관련 高位政策協議(서울)</p> <p>*孔魯明 외무장관 · 柳宗夏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美 엔터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과 각각 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 미 양측은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일 경우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양측은 4자회담 테두리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 양측은 또한 한반도와 동 	<p>對外經濟協力推進委 부위원장 김정우, 나 · 선지구 投資誘致次 訪日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으로부터 한국기업의 참여에 대해 공식통보를 받은바 없으나 오겠다면 모두 받아들일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4	<p>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4자회담 추진과정에서 日·러와도 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음.</p>		
7.15	<p>李壽成 國務總理, 4者會談 수용시 對北支援 發言</p> <p>*국회 대정부질문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면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임. ○ 남북간 비밀접촉을 할 생각은 없으며 당국간 대화가 추진된다면 남북경협도 확대할 것임. 	<p>『祖平統』, 남측이 南北對話의 이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북남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장애는 남조선측의 대규 모전쟁 연습, 외세의존적 외교 자세, 남조선 당국자의 대북강경자세 등임. ○ 남조선 당국자는 남북대화를 내걸고 유관국들이 우리와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을 한사코 가로막아 보려하고 있음. ○ 우리는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바란다면 당국자이건 민간인이건 유산자이건 무산자이건 종교인이건 무신론자이건 누구에게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 ○ 북과 남이 현 상태를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는 길은 남조선당국이 북남 대화의 기본이념을 존중하고 그릇된 입장을 버리는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5		<p>對外經濟協力推進委 부위원장 김정우, 投資說明會(도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경제도 일정한 자유경제를 택하면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함. ○ 나·선지구에서 생산된 상품의 북한내 판매와 경화결제도 보장될 것임. 	
7.16	<p>國防部 代辯人, 국방장관의 NLL관련 국회답변에 대한 입장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에 설정된 MDL(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측과 공산군측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선으로서 정전협정 준수사항임. ○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선으로서 정전협정상 합의된 선은 아니나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여 왔음. ○ 이러한 MDL과 NLL의 차이를 답변한 것이지 『북방한계선(NLL) 포기를 운운』한 것이 아님을 밝힘.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7		<p>신임 유엔주재 북한대표 김형우,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임장 증정</p>	<p>로드 미국무부 차관보, 北韓의 4者會談 설명회 참가 가능성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평양측은 4자회담을 수락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있으나 아직은 실망스러운 상태는 아님. ○ 최근 몇주동안 북한이 잠정적 단계로 4자회담 공동 설명회에 참가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다소 고무되어 있음. <p>美 3개연구기관, 北韓 年内 붕괴국면 돌입 共同 報告</p> <p>* 美랜드연구소, 닉슨평화자유센터, 하버드대 국제관계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경제·사회·정권의 3중위기로 연내에 붕괴국면에 돌입할 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7			<p>능성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로 인해 난민의 대량남하, 북한내 각세력에 의한 무력충돌 등이 일어날 수 있음. <p>江澤民 中國주석, 4자회담 지지 발언</p> <p>*7.17 중앙일보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이 일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켜 韓半島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바람.
7.18		<p>中放, 4者會談에 대한 韓日공조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대화와 4자회담 관련 일본 당국이 제아무리 김○○역도의 손발이 되어 움직여도 절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 ○ 우리는 누가 뭐라고해도 민족자주적인 입장에 서서 주동적으로 처리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8		<p>김정우, 남북당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용의 언급</p> <p>*경향신문 회견</p> <p>○ 나진·선봉 지역에 한하여 남북 당국간 대화를 갖고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용의가 있음.</p> <p>『조국전선』 결성 50돌 기념 연구토론회(인민대학습당)</p> <p>*참석자 : 염태준, 여연구, 정두환, 백남준, 한시해</p>	
7.19	<p>統一院, 韓電에 대해 경수로 사업 관련 『협력사업자』 승인</p>	<p>북한軍, 평양시민에 차량 100대분의 과일 전달 모임(김일성광장)</p> <p>*참석자 : 조명록, 강현수</p>	<p>美국무부, 對北지원 식량 8월중순 北도착 발표</p> <p>○ WFP를 통한 美國의 對북한 추가 식량지원 물량이 8월중순 美선박에 의해 북한에 도착할 예정임.</p> <p>리처드슨 美하원의원, 北 8~9월 4자회담 공동설명회에 응할 것으로 전망</p> <p>○ 北韓을 방문했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9			<p>때 美國이 식량을 지원하면 4자회담 공동선명회와 美軍 유해 공동발굴에도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p>
7.20	<p>통일원, 96 상반기 남북교역 전년대비 36.7% 감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상반기 남북교류동향 ○ 96 상반기 남북교역액은 1억1천4백만 \$로 전년 동기기간에 비해 36.7% 감소 	<p>中放, 『대화 타령을 걸어치워야 한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에 배치되는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을 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 ○ 김○○일당은 허황한 대화타령을 걸어치워야 하고 외세에 청탁하는 놀음을 그만두어야 함. <p>김정우, 나진·선봉 투자보장협정 『5개국協』 틀내 체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 당국이 두만강개발사업 5개국협의위원회의 틀내에서 협정을 맺어야 함. <p>KEDO 의정서 협상 실무대표단, 평양 도착</p>	
7.21			<p>日 니혼게이지아신문, 日 정부 경수로비용 10억弗 분담방침 보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정부는 KEDO 경수로 건설비용 중 1/5에 해당하는 1천억엔을 부담한다는 방침임. ASEAN 외무장관회담, 남북대화 재개 촉구 * 폐막 공동성명 ○ 韓半島의 평화와 안정에 남북한간 대화 재개가 매우 중요함. ○ 양측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준수돼야 함.
7.22	<p>韓·러 외무장관, 韓半島 平和와 安定 위해 緊密協力키로 합의(자카르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RF) 참가 공로명, 프리마코프장관 ○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 	<p>노동新聞, 『祖國戰線』 결성 50돌 즈음 거족적 統一戰線 투쟁 煽動社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민족의 반석같은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임. ○ 온 겨레가 민족의 이념, 단결의 이념 밑에 통일전선에 굳게 뭉 	<p>日本 방위청, 北韓 保有空軍機 590기 推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방위백서 ○ 同 방위백서는 북한공군기를 590기로 추산함으로써 '95대비 180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2	<p>력관계를 유지키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측은 한반도 평화 체제 협상과정에서의 참가 기대를 표명하였음. 	<p>칠 때 그 힘은 필승불패이며 그 어떤 도발책동도 짓부실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며 어버이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두리에 단결하여 올해를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하여야 함. <p>平放, 유엔司 해체 및 駐韓美軍 철수요구 對南 放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과 유엔사는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자들의 침략군에 붙인 이름이지 유엔 결의에 기초해서 조직한 것이 아님. ○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미군이고 따라서 유엔사라는 것은 미국·남조선 연합사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음. ○ 미국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 채택 결의대로 유엔사를 해체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 27기 등의 숫자는 변함이 없어도 북한공군기의 파괴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7.23			<p>아세안지역안보포럼, 4者會談 受容 북한설득 對中·러 要請(자카르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담은 중·리에 북한이 4자회담에의 호응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중국측은 한반도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이는 북한 스스로의 문제이며 그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음.
7.24	<p>韓·美·日 외무방관, 4者會談 등 對北支援 관련 會談 (자카르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참가 공로명·크리스토퍼·이케다 장관 ○ 3국 외상은 4자회담 제의 이후 3개월 동안 북한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 4자회담 수용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 이에 따라 북측의 4자회담 수락을 유도하기 위한 	<p>勞動新聞,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 對美要求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은 평화가 아니다』 ○ 조선반도에서 낡은 정전체계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 바꾸는 가 못바꾸는가 하는 것은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시금석으로 됨. ○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통제불능의 낡은 정전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전쟁을 재촉하는 것으로 될 뿐임. ○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p>번스 美國무부 代辯人, 4者會談 관련 美·北 實務接觸 言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3 뉴욕에서 미국무부 민튼 한국과장과 주유엔 북한대표부 한성렬 공사간 실무접촉이 있었음. ○ 금번 접촉은 정규적인 미·북 접촉의 일환으로 4자회담과 관련한 논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4	<p>공동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음.</p> <p>歸順 박철호(41), 2~3일에 한번꼴 餓死者 목격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수두룩하게 굶어죽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가서 배불리 먹으려고 내려오게 됐음. ○ 남한에 대한 실상은 전단과 한국군의 대북방송을 통해 알게 됐으며, 북한에서는 남한 인민들이 굶어죽는다고 선전하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p>터진다면 누구도 무사치 못할 것이며 설사 해협너머에 있거나 대양건너에 있다고 안심할 수도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지체없이 낡은 정전체계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 교체하는데로 나와야 하며 우리의 잠정협정 제안을 받아들여야 함. 	<p>의가 있었음.</p>
7.25	<p>韓·中 외무장관, 4者會談 등 관련 會談(자카르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참가 공로명·전기 침 장관 ○ 한국측은 한·미의 대북 공동설명회 관련 최근의 동향을 설명하고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음. ○ 중국측은 한반도의 평화 	<p>朝鮮人民軍 板門店代表部 대변인, 對美 將星級會談 開催 제의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조선반도 정세는 도발적 무장충돌을 막고 정전상태 유지를 위한 합법적인 군사접촉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는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인 조·미간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잠정기구로서 장령급회담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 재개를 미군측에 제기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5	<p>와 안정을 위해 조속한 남북대화를 희망하였으며, 4자회담 성사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다할 것을 표명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 사이에 현안문제인 유골 문제, 미사일문제의 성과적 해결을 위해서도 충돌방지대책이 시급함. ○ 최근 남조선과 일본이 4자회담 문제로 압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진의도에 대한 우리의 의심은 깊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의 발기에 심사숙고해야 함. <p>中央人民委, 휴전협정일을 국가적名節로 制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인 7.27을 국가명절로 제정하고, 국기를 게양하며 휴일로 함. 	
7.26		<p>外交部 代辯人, 日·北 국교정상화 문제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남조선과 공모하여 유연착륙이라는 개꿈을 꾸면서 朝·日 국교정상화 문제를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데 이용하려 한다면 오산임. ○ 일본 당국자들이 4자회담이요, 北南대화 재개요 하면서 朝·日 관계문제에서 계속 쫓대없이 노는 한 국교정상화 문제는 그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p>美 국방부, 美·北 공동발굴팀 美軍遺骸 발견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0부터 미·북 공동발굴팀은 한국전쟁중 사망한 미군유골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유해 1구를 발견하였음. ○ 이 유골은 7.29 판문점을 통해 미군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교정상화는 해도좋고 안해도 좋은 문제이겠지만 과거청산은 日本이 회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법적 의무임. <p>中央通信, 北韓 『연착륙론』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 나라들이 ‘고장난 비행기’ 를 운운하고 있으나 우리 체제는 수십년간 고장난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고장날 수 없게 되어있음. ○ 軟着陸을 떠들고 있는 진짜 목적은 우리의 현실을 왜곡전도하여 선전함으로써 평화적 이행전략의 가소로운 수법을 강요하자는 것임. <p>金正日, 전승절 43돌 즈음 인민군 협주단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p> <p>*참석자 :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 조명록, 김영춘</p>	<p>에 송환되어 하와이 美육군 중앙병원 확인소로 보내질 것임.</p> <p>* 7.29 송환</p>
7.27		<p>北赤委員長 대리 이성호, 북한군 김영길 송환 요구 對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6, 02:00경 임진강 부근에서 군사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인민군 군인 김영길이 집중폭우로 실종되었음. ○ 귀족지역에 떠내려간 우리 군인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7		<p>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측에 돌려보내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기대함.</p>	
7.29	<p>統一院 代辯人,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 관련 기자회견 피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오는 9.13~15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및 유엔개발계획(UNDP) 후원하에 개최되는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에 우리 기업인, 정부관계자 및 언론인이 참가토록 할 방침임. ○ 우리측 참가단 규모는 추후 결정할 것이며, 기업인의 참가 신청서 배포 및 접수 창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함. ○ 참가 기업인의 선정은 대북투자에 적합한 견실한 중견기업중에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항목(식·음료 부문, 의류·직물·신발·피혁부문 등)과 관련된 업종 위주로 함. 	<p>中放, 人民軍 金英길 下士 歸還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인민들에 의해서 구원된 그를 끌어간 남조선 피뢰들은 그를 억류하고 온갖 회유기만책동을 다했으나, ○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와 미군측 사이의 최종 합의에 따라 김영길은 공화국 북반부로 돌아오게 되었음. 	<p>中國, 45번째 核實驗 實施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번 실험을 끝으로 '96.7.30부터는 핵실험을 중단기로 하였음. ○ 이같은 조치는 핵무기를 보유치 않은 비핵국가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9	표류 北韓軍 하사 김영길, 판문점 통해 송환		
7.30	소설가 김영(38, 필명 김하기), 중국 연길에서 失蹤	<p>勞働新聞, 日本側の 4者會談 呼應 對北促求 論評</p> <p>*『주제넘은 간참을 그만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의 우익세력들과 집권 여당의 일부 인물들이 4자회담을 지지한다느니, 북한이 응해나와야 한다느니, 그래야 조·일 관계도 논의할 수 있다느니 망발하였음. ○ 누차 천명한 바와같이 4자회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며, 일본은 4자회담 문제에 끼어들 명분도 간참할 자격도 없음. ○ 당면한 급선무는 과거청산인 바, 과거 인류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도 배상과 보상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일본임. <p>KEDO 敷地調査團 및 議定書 協商 實務代表團 평양 출발</p> <p>中央通信, 北韓 여러지역 홍수피해 심각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지난 24일부터 27일 사이 	<p>北韓, UNDP에 水害 地域 點檢 要請</p> <p>*UNDP 평양주재 조정관 아치크자드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지난주의 폭우로 인한 피해 지역을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북한에서는 지난 2주동안 매일 비가 쏟아졌으며 피해 지역 방문은 7.31로 예정되어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30		<p>에는 한층 강화된 장마전선이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지방에 머무르면서 많은 비와 우뢰를 동반한 소나기가 연이어 쏟아져내렸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년에 없는 무더기 비로 인하여 이번의 큰물피해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실상은 매우 혹심함. ○ 이 지역들에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무더기 비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으며, 연백벌을 비롯한 서해 곡창지대에 마련됐던 농작물의 좋은 작황이 피해를 입어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음. 	<p>2주동안 매일 비가 쏟아졌으며 피해 지역 방문은 7.31로 예정되어 있음.</p>
7.31	<p>金泳三 대통령, 4者會談 수 용시 對北 經濟支援 協力 表明</p> <p>* 서울경제신문 창간 36 주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이 개최되면 심각한 북한의 경제난을 덜어 줄 수 있는 대북경제 지원과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도 	<p>對外經濟委 副委員長 김정우, 나진 · 선봉投資관련 記者會見(홍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들의 진출 열기는 높으나 한국 당국의 불허로 투자가 부진하며, 일본기업들은 아직 한건의 투자도 없음. ○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국 순위는 영국·네덜란드·홍콩 등의 순이며, 유럽기업들이 아시아 기업보다 투자열기가 더 높음. <p>保健部 代辯人, 北韓地域 콜레라發</p>	<p>世界食糧計劃(WFP) 代辯人, 北韓 水災民 수백만명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이번 홍수로 수백만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사망자 숫자도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일부지역에서는 한꺼번에 농지가 완전 유실되었으며, 홍수의 장기적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31	<p>도움이 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기대함.</p> <p>駐韓유엔사 軍停委 수석대표에 車基文 소장 就任</p> <p>* 전임 수석대표 이석복 소장 전역</p>	<p>生說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통치배들은 우리측 여러지역들에서 콜레라환자가 급증, 많은 사망자가 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모략선전을 하였음. ○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적 보건시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위생방역사업으로 콜레라환자가 한명도 없음. ○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모함하려는 도발행위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범죄행위로 낙인함. <p>『汎民聯』 北側本部, 제7차 汎民族大會 개최관련 議長團會議(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는 올해 8.15를 계기로 서울에서 진행할 제7차 범민족대회 준비사업을 더욱 본격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으며, ○ 서울대회에 참가할 대표 파견준비 사업을 잘 짜고들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음. ○ 同대회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차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를 구성하였음. <p>- 위원장 백인준(범민련 북측본부</p>	<p>영향은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임.</p> <p>클리블랜드 KEDO執行 理事, 對北經水爐事業 '96. 9 本格化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옮겨올 이전에 본격화되길 바라고 있어 9~10 월경에는 구체적 사업이 진척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KEDO-북한간 추진중인 실무협약들이 타결되면 한국인 4천~5천명 정도가 신포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31		의장) - 부위원장 여연구(범민련 북측본 부 부의장) - 부위원장 한시해(범민련 북측본 부 부의장) - 위원 김영호 등 14명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	<p>姜英勳 『韓赤』 總裁, 北韓 船舶·屍身 송환관련 對北 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지난 7월 26일 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 해상에서 표류중 발견된 북측 선박 3척과 시신 (女) 2구를 인양·보존 하고 있음. ○ 나는 인도주의 정신과 동 포애적 견지에서 이 선박 과 시신들을 북측에 송환 하려고 함. ○ 송환에 필요한 실무절차 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적 십자 연락관접촉을 판문 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 며 이에 대한 의견을 조 속히 알려주기 바람. <p>國防部, 北韓軍 死體 2구 送 還計劃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하순 집중호우로 떠 내려온 북한군 사체 2구 를 인도적 차원에서 판문 점 군정위를 통해 조속 송환키로 하였음. ○ 지난달 29일과 31일 각각 1구씩 수습되었는데 그중 		<p>크리스토퍼 美 국무장 관, 공동설명회 北 조 건 검토중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상원 외교위 ○ 미국은 3자설명회 를 성사시키기 위 해 북한이 내건 조건들을 검토중 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	<p>1구는 인민군 복장에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음.</p> <p>※ 상기관련 8.1 유엔사측 요원과 북측 군사요원간 판문점 군정위회의실에서 접촉 진행</p>		
8. 2		<p>『北赤』, 시신 2具 인수 관련 연락 관접촉 수락 전화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신 2구는 지체없이 넘겨 받으려고 함. 8.6 10:00 前 중감위 회의실에서 쌍방 연락대표들이 만나 인도·인수절차를 협의하는 의견임. ○ 배는 해당 부문에 알아보았는 바 용도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므로 넘겨받지 않으려고 함. <p>『祖平統』 대변인, 통일애국인사 탄압 규탄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족인 우리와의 화해대상,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을 다시금 드러냈음. ○ 김○○정권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기대도 가질 것이 없음. 	<p>北, 외국항공기에 領空개방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최근 북한과의 협의결과 발표 ○ 북한은 12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에 北韓 領空을 개방할 것임. <p>제프리 데니스 駐北 國赤(IFRC) 대표, 北 호우로 47명 사망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말 집중호우로 47명이 사망하고 농작물도 큰 피해를 입었음. <p>江澤民 중국 주석, 北 수해 관련 金正日에 위문전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		제7차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대변인, 서울 개최보장 촉구 聲明 ◦ 北과 海外 대표들의 서울 방문길이 열리고 신변안전과 자유로운 활동이 담보되어야 함.	카트만 美국무부 부차관보, 4자회담 등 협의차 來韓
8. 4	權五琦 統一副總理, 나진·선봉 투자포럼 기업인 50명 파견방침 언급 ◦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인을 대상으로 50여명 정도 파견할 생각임.	『祖平統』 서기국 대변인, 北京 비밀접촉설 부인 記者會見 ◦ 지난 5월부터 베이징에서 北과 南의 최고지도자들이 파견한 특사들의 비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음. ◦ 특사 비밀협상은 그곳에서 있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없는데, 날조 보도로 하여 여론이 오도되고 세상사람들의 이해에 혼란을 주고 있음.	로버트 하우스지 WFP 평양사무소장, 北 홍수로 2백명이상 死亡 언급 ◦ 황해남북도의 피해지역을 둘러보았는 바, 정확한 사망자 숫자는 알 수 없으나 2백명 이상은 확실함. ◦ 북한의 연간 곡물 생산량중 20%에 해당하는 1백만t 가량이 사라졌음.
8. 5	姜英勳 『韓赤』 총재, 김영 송환 요청 對北電通文 ◦ 김영은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과 함께 중국 연변지역을 단체 관광하던중 지난 7.30 행방불명되었음. ◦ 본의아니게 귀족지역에 들어가게 된 김영이 조속	中央通信, 중국 실증 소설가 김영 '조사중' 보도 ◦ 지난 7.31 새벽 국경을 불법침범한 정체불명의 남조선 사람을 해당기관에서 단속하였음. ◦ 그는 한국민족작가회의 소속 소설가 겸 부산예술전문학교 강사 김영이라고 함.	美, 나진·선봉 투자포럼에 美외교관 3명 참석 예정 * 데이비스 UNDP 투자고문 언급 ◦ 중국 심양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경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5	<p>히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협조하여 주기를 바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에서는 지금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p>中央通信, 홍수피해 심각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큰물피해가 완전히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겹치게 되어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조성되었음. ○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에서는 불과 2~3일 사이에 475mm ~ 730mm까지의 많은 비가 내렸음. ○ 평안북도와 강원도, 개성시에서도 산사태와 저수지 제방의 파괴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음. ○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도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조 확대 의향을 표시하고 있으며, 우리인민은 이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음. <p>김영길 하사 환영 군인집회(8.5, 4.25문화회관)</p> <p>*참석 : 조명록, 김광진</p>	<p>제담당 참사관 등 美 외교관 3명이 참석할 예정임.</p> <p>번스 美국무부 대변인, UN요청시 對北 추가지원 검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이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요청해 온다면 검토할 것임. <p>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대회 개최(8.5~7, 장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안병희(서울대 교수) 등 5명, 北韓 심병호 국어사정위원회 서기장 등 6명, 中國 학자 6명이 참석하는 한국어 어문규범 국제학술대회가 중국 장춘에서 개최
8. 6	<p>李養鎬 국방장관, DMZ지뢰 南北共同 제거방안 검토 언급</p> <p>*국회 국방위</p>	<p>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재일 조선인 참정권운동 비난 성명</p>	<p>美 CNN방송, 北 홍수피해로 파멸위기 보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비무장지대내 재래식 지뢰를 南北共同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p>中放, 인터넷 북한 홈페이지 접속 차단 비난</p> <p>北韓 큰물피해대책위, 올여름 洪水로 116명 死亡 보도</p> <p>*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9월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월말부터 황해북도에서 475~730mm, 어떤 곳에서는 856mm나 내리면서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왔음. ○ 8개 도 및 직할시에서 1백 17개 시군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시설물과 논밭이 침수 매몰 유실됐으며 그 피해액은 17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주민 수는 327만명이며 116명의 사망자가 났음. ○ 이번 큰물피해가 심각한 것은 서해곡창지대에 심대한 타격을 준 데 있으며 농경지 총피해면적은 약 28만 9천 정보에 이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연이은 극심한 홍수피해로 파멸 (Catastrophe) 위기에 처해 있음. 러 체르노미르딘 총리, 홍수피해관련 北 강성산 총리에게 위문전문 데니스 國際赤十字社 平壤 상주대표, 北韓 비피해 심각 記者會見(북경) ○ 작년에 비피해를 입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일원이 올해에도 집중타격을 받았으며 매우 심각함. ○ 쌀은 주로 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韓赤의 밀가루, 식용유, 분유 등 구호물자는 홍수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음. ○ 외부에서 제공되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6			<p>는 수해구호물자는 하역에서 분배까지의 전과정을 국제적십자사가 통제·관리하고 있음.</p>
8. 7	<p>國防部·韓美聯合司, 을지포커스렌즈훈련 實施 發表</p> <p>○ 8.19~30 연례 전투지휘 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실시함.</p> <p>國立國語研究院, 韓國言語學者 국제학술회의(8.5~7, 중국 장춘) 결과 발표</p> <p>*남·북한 및 중국측 참가</p> <p>○ 회의에서는 우리말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p> <p>○ 남·북한은 앞으로 어문규범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p>	<p>외교부 대변인, 홍수피해액 17억弗 주장 談話</p> <p>○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17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식량문제를 야기하고 있음.</p> <p>○ 일부 불순세력들은 우리의 일시적 난관을 구조적 결함으로 묘사하고 지원물자의 유용에 대한 유언비어까지 유포시켜 국제적인 지원 분위기를 파탄시키려고 하였음.</p> <p>○ 우리는 지금의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데서 국제사회로부터의 人道的 支援을 필요로 하고 있음.</p>	<p>美민간단체, 對北食糧支援 컨소시엄 結成</p> <p>○ 美 적십자사 등 12개 비정부기구들은 심각한 대북 식량난 지원을 위해 컨소시엄을 결성하였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7	北韓 군인·민간인 시신 4 具 판문점 통해 송환		
8. 8	<p>李壽成 國務總理, 『한총련』 代表 入北관련 治安關係長 官會議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총리는 회의에서 운동권 학생과 재야단체들이 시도하는 친북집회가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에 장애가 되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단호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 친북성향의 집회들이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경제희생, 민주주의 정착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적극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음. 	<p>第7次 汎民族大會 北側準備委, 同 대회 分散開催 決議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은 서울대회 개최 1주일앞둔 오늘까지도 북과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대표들이 서울에 들어가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음. ○ 남조선 당국의 서울개최불허 조건에서 제7차 범민족대회는 부득이 평양, 서울, 심양에서 공동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남조선 통치배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온겨레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임. <p>勞動新聞, 過去歷史 清算 對日要求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관계의 근본문제를 논함』 ○ 일본이 우리인민에게 고통과 불행, 커다란 피해를 준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한 조·일 사이의 적대관계는 해소될 수 없으며 선린우호관계도 수립될 수 없음. ○ 조·일 국교정상화는 해도 좋고 	<p>日本 民間團體, 구호 식량 船積 北韓 向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민간선박 1척이 북한 이재민을 돕기위해 60톤의 쌀과 구호품을 싣고 니가타항을 출발했음. ○ 일본 전역의 농업협동조합 청년조직 250명이 승선하고 있는 이 선박은 8.9 원산항에 도착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8		<p>안해도 좋은 문제이지만 일본이 과거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결코 무사할 수 없음.</p> <p>中放, 政務院일꾼들의 水害地域 인민들 支援狀況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원 위원회·부·중앙기관 일꾼들이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 수해지역 인민들에게 생필품 6만3천여점을 지원하였음. 	
8. 9		<p>汎靑學聯 북측본부, 『한총련』 대표들의 入北저지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김○○일당의 한총련대표들에 대한 납치만행을 국제법과 초보적인 인권도 짓밟는 야만적인 테러행위로 낙인하면서 응당한 징벌을 가할 것을 국제인권단체들과 기구들에 호소함. ○ 만약 놈들이 한총련대표들의 평양방문길을 더이상 방해한다면 그로부터 빚어질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 <p>* 『조평통』 대변인 및 제7차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도 동일내용의 성명발표</p> <p>平放, 日 산케이신문의 北韓水害 誇張說 관련 論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케이신문 8. 3부는 한국 통일원의 견해라면서 북조선의 수해는 국부적이며 외부에 전해진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여론조작하였음. ○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인도주의적 이념으로부터 출발되는 문제이며 국제적인 관행임. ○ 남조선괴뢰들과 산케이신문의 매문집단에게는 저들의 반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가 수치와 모멸만을 가져다 줄것임. <p>『나진 제1호텔』 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위치한 同 호텔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북한·홍콩합작으로 운영됨. 	
8. 10		<p>北韓赤十字會 위원장대리 이성호, 대남 방송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지난 8.9 서해상에서 발견된 남측 주민 시신 1구를 우리측이 보관하고 있음을 알리는 바임. ○ 시신의 유품인 주민등록증에 의하면 이름은 강대회(남자),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99-9로 되어있음. ○ 우리측은 이 시신을 오는 8.12 	<p>美 國防情報局, 北韓 3년내 大政變 봉착 展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상원 정보위 보고 ○ 북한이 조만간 붕괴되지는 않더라도 계속 존속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특히 3년내 대정변을 겪을 자멸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0		<p>오후 4시 판문점을 통해 넘겨주려 하며, 관련하여 오후 3시 30분전 중감위 회의실에서 쌍방 적십자 연락대표들의 접촉을 제의함.</p> <p>中·平放, 『韓總聯』代表 평양도착 報道</p> <p>* 유세홍(조선대 치의대 본과4년) 도종화(연세대 기계공학4년휴학)</p> <p>김유순(64세) 病死</p> <p>* 국가체육위 위원장, 남북체육회 남북측단장, 루마니아 주재대사</p>	<p>의 과정에 접어들었음.</p> <p>○ 북한 지도부는 당면 식량난과 경제난국 등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 마련되지 않는 한 붕괴 또는 자멸하게 될 것임.</p> <p>○ 북한지도층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남도발 관련, 현재로서는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음.</p>
8. 12	<p>統一院 代辯人, 나진·선봉 投資說明會 참가관련 기사브리핑</p> <p>○ 전체 참가자 규모는 49명으로 24개 기업, 전경련·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경제단체 4명, KOTRA·KDI 등 전문가 5명, 통일원·재경원 등 정부 관계자 8명과 취재기자 8명으로 구성되었음.</p> <p>○ 참가기업 선정기준은 북한이 제시한 투자대상과</p>	<p>제6차 汎靑學聯 통일대축전 北側·海外側 대표단 共同보도문</p> <p>○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은 서울 개최 통일 대축전 행사에 북측·해외측 대표단을 정식 초청하였음.</p> <p>○ 북측 대표단과 해외측대표단은 각기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오는 14일 서울로 가기 위하여 판문점에 나갈 것임.</p> <p>○ 우리는 남측 당국이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북측·해외측 대표단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보</p>	<p>美 共和黨 全黨大會, 對北유화정책 中斷 綱領채택</p> <p>○ 공화당은 미군전쟁포로 및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진전시켜 나갈 것임.</p> <p>○ 북한의 핵계획과 관련 중유와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 미·북협정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2	<p>대북투자에 적합한 중견 기업으로 식·음료 3, 의류·직물9, 화학제품·수지5, 전자·기계5, 목재가공1, 종이·인쇄1 등으로 선정하였음.</p> <p>○ 앞으로 북한이 발급하는 초청장(신변안전보장 포함) 접수 및 방북승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임.</p> <p>姜英勳 『韓赤』總裁, 對北 전화통지문</p> <p>○ 8.12, 16:00 판문점에서 우리측 주민 시신을 인수할 것이며, 실무협의를 위해 同 15:3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임.</p> <p>姜英勳 『韓赤』總裁, 南北赤十字 총재(부총재)회담 對北提議 성명</p> <p>○ 남과 북의 적십자단체가 협력한다면 수재로 인한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이 훨씬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음.</p> <p>○ 대한적십자사는 작년 북한지역의 수해로 인해 고</p>	<p>장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함.</p> <p>『祖平統』대변인, 北韓水災에 대한 국제적 支援 남측이 妨害主張</p> <p>○ 홍수피해에 대한 대북지원관련, 4자회담 수용이 전제조건이라느니 국제공조 강화니하면서 국제적 지원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 있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4자회담 수용을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지원의 전제로 삼으려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p> <p>○ 우리는 큰물피해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방해하려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책동을 천추의 용납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인정함.</p> <p>中央通信, 8.12 신의주에 또다시 暴雨 報道</p> <p>○ 8.12일 새벽 평안북도 신의주지구와 의주지구에 갑자기 전례없는 큰물이 밀려들어 도시가 물에 잠겼음.</p> <p>○ 평안북도 북부지역에서는 11일 새벽부터 12일 아침 5시까지 24시간동안에 100~180mm까지 무더기 비가 내렸음.</p>	<p>파기, 클린턴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중단될 것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2	<p>통발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총 11억 8천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북한측에 제공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접시자 사이에는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하여 자연재난등 상부상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본인은 이러한 시급한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의 총재 또는 부총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가 어디에서든지 아무런 조건없이 회동할 것을 제의함. 	<p>汎靑學聯 中央委 제2차 會議 進行 (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청학련 북측·해외측 및 남측 대표(한총련)들이 참가 <p>민용항공총국 대변인, 영공개방조치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계의 모든 민용항공기들의 우리 영공통과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한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국제항로통과협정에 가입했음. ○ 국제항공운수협회는 우리가 올해 12월부터 모든 국제민용 비행기들에 영공통과를 허용하게 된다고 발표하였음. 이것은 우리의 영공개방조치가 실천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8. 13	<p>內務·法務·教育部장관, 韓總聯의 密入北 및 不法示威 엄단 합동담화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총련은 통일선봉대라는 시위대를 조직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등의 구호와 폭력시위로 공권력에 대한 중대도전을 계속하고 있음. 	<p>『北赤』 委員長代理 이성호, 對南 電話通知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31 새벽 우리나라 북부국경을 불법 침입한 남조선사람 김영을 조사한 결과 매우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판명되었음. ○ 그러나 그가 자기 본질을 솔직히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곧 해당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학생의 이같은 행동은 학생운동이나 시위의 의사표현의 한계를 넘어 폭력투쟁의 한단계로 삼고 있음. ○ 이들의 폭력적 체제도전 행위와 북한의 불안한 정세 등에 비춰 더 이상 관용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고 관계자를 모두 의법 처리할 것임. 	<p>경로를 통해 돌려보내기로 하였음.</p>	
8. 14		<p>제7차 汎民族大會 개막(판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 김용순, 유미영, 백인준, 여연구, 유세홍·도종화(한총련)등 ○ 참석자들은 제7차 범민족대회 개막 및 김일성의 통일유훈 관철을 위한 충성의 결의대회를 가졌음. *범청학련 제1차 회의(8.14 청년중앙회관) 	<p>中國當局, 入北 김영(38) 身柄 引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길림성 용정시 공안당국은 7. 31 입북했던 김영의 신병을 인수하여 출입국위반 등 혐의를 조사중임.
8. 15	<p>金泳三 大統領, 4자회담 實踐方向의 구체화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1회 광복절 경축사 ○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할 	<p>汎民族會議 進行(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 박성철, 양형섭, 김용순, 허창조, 유세홍·도종화(한총련)등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5	<p>경우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교역확대 및 한국 관광객의 방북을 허용할 용의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토의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체제 구축문제 · 군사적 신뢰문제 · 긴장완화조치 차원의 남북경협문제 등 협의를 제시함. ○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요체는 평화와 협력이며, 우리는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으며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는 조국 통일에 관한 과업을 토의하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p>汎民聯 北側·海外本部 대표단 共同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은 서울개최 제7차 범민족대회와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파탄시키기 위해 미친듯이 날뛰고 있음. ○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김○○일당의 유혈적 탄압만행을 용납치 않을 것임. <p>祖國半島 平和體制 구축을 위한 北·南·海外 青年學生 판문점 결의 대회(통일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 허창조, 同남측본부 대표 유세홍이 각각 연설하고 성토문이 낭독되었음. 	
8. 17	<p>入北 김영(38), 中國 경유 歸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31 중국 연길에서 불법 입북했던 소설가 김하기가 귀환, 수사당국으로부터 입북경위등을 조사받고 있음. 	<p>勞動新聞, 제7차 汎民族大會 성과적으로 開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통일세력의 임중한 도전을 물리치고 7차 범민족대회와 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조국통일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애국 역량을 말살하기 위해 날뛰는 김○○일당을 두고서는 언젠가도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모든 조선동포들은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기치따라 내외 호전세력의 새전쟁 도발책동을 저지시켜야 함. 	
8. 18		<p>中央通信, 金泳三 大統領의 8.15 慶祝辭 관련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의 8.15 경축사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기운을 무마하고 식민지 파쇼체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광설이었음. ○ 김○○일당은 야만적인 폭력에 의거해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억누르지 않고 서는 한시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임. ○ 특히 김○○역도가 조국통일을 외면하면서 누구의 안정이니, 독립이니 하고 우리를 걸고 든 것은 자기 처지도 모르는 주제넘은 소리임. ○ 경축사는 저들의 심각한 대내외적 고립, 사회적 혼란과 불안에 직면한 위기상을 가리우기 위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8		<p>것으로 김○○일당의 파멸은 확정적이며 시간문제임.</p>	
8. 19		<p>범청학련 북·남·해외본부 대표, 연합성명 발표 및 공동기자회견 진행(평양 고려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정부의 한총련과 그 소속 학생들에 대한 탄압행위에 대하여 분노함. ○ 자생적 통일운동 연합체인 범청학련을 북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이적단체니, 범민련의 청년학생조직이니, 한총련의 배후 세력이니하며 매도하려는데 대해 규탄함. ○ 한총련에 대한 와해 책동을 중단하고 체포 투옥한 학생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함. <p>평방, 金泳三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지배가 계속되어 참다운 의미의 광복이 존재하지 않고 자주 독립이 없는 남조선에서 경축할 것이란 없음. ○ 서울에서 있는 8.15 통일행사에 대해 야만적으로 탄압하면서 유혈 참극을 발생시킨 것 자체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9		<p>김○○의 심각한 위기상, 고립상을 확증하여 주는 것임.</p>	
8. 20	<p>權五琦 統一副總理, 8.15경 축사 후속조치 추진(통일고문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와 협력방안은 통일문제를 국정 최대현안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담은 것임. ○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p>한국토지공사, 북한 나진·선봉지구 입지조사단,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공단 조성에 원칙적 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조사단의 방북시(8. 10~16) 나진·선봉지역의 인문, 자연, 제도 및 투자환경 전반에 걸쳐 조사활동을 전개한 결과를 바탕으로, ○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를 보아가며 통일원과 건설 	<p>노동신문, 미 공화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는데 대한 반박문 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공화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것은 핵문제에 대한 미·북간 기본협정의 위협임. ○ 이는 공화당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원치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조선의 권위와 명성을 해치는 것임. 	<p>對北食糧支援 美 船 舶 첫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식량계획 발표 (8.23) ○ 미 선박 탐파베이호가 쌀 1만 3천톤외에 옥수수 식품 등을 싣고 남포항에 도착하였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0	<p>교통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아래 북한측과 사업의 향서를 교환할 방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의 입지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북한측과 사업의향서나 합의서를 채택하지도 않은 상태임. <p>金泳三 大統領, 새로운 이념 교육의 틀 마련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학생들의 폭력시위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지만 우리 교육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이념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반공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시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심어주기위해 새로운 이념 교육의 틀을 만들기 바람. <p>李壽成 國務總理, 한총련사태 관련 대책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가담자는 관용하고 부상학생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 도전 행위는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주동자를 철저히 찾아내 국가기반을 튼튼히 해야 함. 		
8. 21		<p>조평통, 한총련 탄압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정부의 한총련 핵심간부 전원 구속 및 동 조직 와해방침은 자주·민주·통일 애국역량을 말살하고 온 민족의 통일 지향에 도전하는 극악무도한 파쇼적 폭거임. <p>조선해외동포 원호위원회 대변인,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단의 일부 악질분자들과 남조선 괴뢰 도당이 결탁하여 벌이는 참정권운동은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일본의 정치세력에 맡기려는 매국매족적 범죄 행위임. ○ 김○○일당이 참정권 운동을 벌이는 것은 일본에서 총련을 허물고 나아가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려는 것임. <p>韓總聯 유세홍·도종화, 斷食鬪爭 기자회견(판문점 통일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총련에 대한 이적시비와 언론 	<p>미 국무부, 북한 주재 미국 연락사무소 초대소장에 칼 스펜스 리처드슨(전 국무부 한국과장) 임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처드슨 연락사무소장은 8.21 토니 홀 하원의원과 함께 방북 <p>유엔인도지원국(UND HA), 각종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 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7·8월중에 집중호우가 내려 최소 1백 16명이 사망하고 3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1		<p>의 왜곡 보도에 항의하여 무기 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음.</p> <p>中·平放, 美 하원의원 토니 홀 일행 平壤도착 報道</p>	
8. 23	<p>檢·警·安企部, 『韓總聯해체단』 구성방침</p> <p>*검·경 공안합동대책회의</p>	<p>外交部 代辯人, 美 공화당의 大選 公約關聯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조·미합의를 이행하려는 미국의 행정부와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행정부와는 구태여 거래할 생각이 없음. ○ 그 어떤 구속도 받음이 없이 자체의 자금과 기술, 원료에 의거하여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 길로 나가면 그만임. ○ 또한 4자회담을 포함한 우리와의 일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음. ○ 목적도 내용도 분명치 않은 4자회담 제안에 대하여 우리는 의연히 의심뿐이지 크게 관심없음. 	<p>데이비스 美 국무부 代辯人, 北韓의 核協定 파기위협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정부가 미국의 국내정치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못함.
8. 24	<p>金泳三 大統領, 北韓의 食糧難 위기심각 發言</p> <p>*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초청오찬</p>	<p>平放, 金泳三 大統領의 8.15 慶祝辭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은 4자회담문제를 운운하면서 경제협력 관련 남북당국자 	<p>KEDO, 大북경수로 96.11 착공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산케이신문 ○ 한반도에너지개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북한내부는 식량난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 ○ 한총련의 8.15폭력사태관련 우리사회 일각에서 위선적 논리나 양비론으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제넘은 소리를 하였음. ○ 그가 떠들어대는 4자회담은 반평화적 전쟁채동과 민족분열주의적인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광고외에 다른 것이 아님.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오직 우리와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음. 	<p>기구는 96.11 대 북경수로 착공식을 갖는다는 계획 아래 일정을 가속화하고 있음.</p>
8. 25	<p>訪韓 美 하원의원 토니 홀 對北관련 기자회견</p> <p>* 8.21~24 북한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구조적인 기근때문에 주민전체가 영양부족 상태에 빠졌으며 면역체계가 하락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음. ○ 북한의 상황은 실질적인 재난(real disaster)으로서 향후 한·미·일 3국 정부가 북한을 지원토록 촉구해 나갈 것임. 		<p>中國, 安承運목사 拉致犯 2년刑 宣告 우리측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사법 당국은 최근 안승운목사 납치범(95.7 연변) 이경춘(북한인, 41)에 대해 징역 2년과 강제추방 판결을 내렸음. ○ 1심 판결을 받은 납치범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중심재판 절차가 진행중임.
8. 26		<p>平放, 金泳三 大統領의 韓總聯 발본 색원 發言관련 論評</p>	<p>데이비스 美 국무부 代辯人, 추가적 對北 食糧援助 검토 發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은 8.24 한총련의 투쟁을 도시게릴라전으로, 그 성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면서 한총련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하였음. ○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8.15 통일대축전을 벌인 것은 그 누구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음. ○ 놈의 수작은 제2의 광주사태를 빚어낸 저들의 범죄적 책임을 청년학생들에게 넘겨썩워 한총련을 없애버리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95년 9월과 10월에 각각 2만5천불 및 20만불, '96.2이후 820만불 등 지금까지 모두 842.5만불의 현금과 물자를 제공했음. ○ 우리는 WFP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추가원조 요청시 이를 검토할 것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8. 27	<p>權五琦 統一副總理, 제23차 통일관계장관회의의主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참가를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대북경수로 지원관련 『부지인수 및 서비스 분야』 후속의정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필요한 제 	<p>訪北 韓總聯 대표의 斷食鬪爭 終了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청학련 남측·북측·해외본부 대표단이 전개한 단식투쟁은 김○○정권의 한총련에 대한 탄압의 부당성과 한총련 투쟁의 정당성, 이를 왜곡하는 남측언론의 비열성을 널리 알렸음. ○ 우리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세계 진보적 역량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속에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결의를 다졌음. 	<p>美 民主黨 全黨大會, 『한반도統一·非核化』 지지 政綱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전에는 북한이 핵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으나 오늘날은 국제사찰, 핵계획 동결로 모든 핵시설의 해체가 예정되어 있음. ○ 한반도의 통일과 비핵이라는 목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7	<p>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함.</p> <p>○ 통일관계장관회의 내에 『통일·대화』, 『경제』, 『사회·문화』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 현안문제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p>	<p>○ 한총련의 투쟁은 7천만 거래의 염원을 담고 있기에 정당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효과적 투쟁으로 우리의 목적을 끝까지 달성할 것임.</p>	<p>달성을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도록 함.</p>
8. 28		<p>『祖平統』 副委員長 양형섭, 南韓當局의 韓總聯 對應관련 談話</p> <p>○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8.15 통일투쟁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광기어린 대응은 북남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p> <p>○ 특히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을 우리와 연관시켜 친북행위니, 이적행위니 하는 반민족적 입장에 대하여 수수방관할 수 없음.</p> <p>○ 남조선 당국자가 청년학생들을 적으로 대하고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며 전면대결을 추구하는 이상 더는 선의를 가지고 대할 수 없음.</p> <p>○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가 북남 관계를 극단적인 대결관계로 몰아가고 있는 한 그 어떤 대화나 화</p>	<p>北·日 수교교섭 關 聯實務接觸 재개 (28~29 북경)</p> <p>○ 북·일 수교교섭 재개를 위한 이번 접촉에는 북한 외교부 이철진 일본 과장과 일본 외무성의 벳쇼고로 동 북아 과장이 참석함.</p> <p>美國무부 前한국과장 리처드슨, 訪北관련 發言</p> <p>* 8.21~27 북한방문</p> <p>○ 미·북한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관련, 북한이 외교행낭의</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8		<p>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함.</p> <p>基督教徒 聯盟 · 天主教人 協會 · 佛 教徒 聯盟, 韓總聯 탄압 糾彈聲明 각각 발표</p>	<p>관문점 통과 등에 여전히 난색을 보 이고 있어 조만간 타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p> <p>美 · 北韓, 4者會談 등 현안협의 實務 接觸</p> <p>* 미국무부 마크 민 턴 한국과장, 북 한외교부 이근 미 국과장</p> <p>○ 쌍방은 접촉에서 4자회담문제, 대 북 추가식량 원 조, 연락사무소 개설, 미군유해 발굴등 주요현안 을 협의하였으며, ○ 미국측은 특히 4 자회담에 대한 북 한측의 조속하고 도 긍정적인 호응 을 촉구하였음.</p>
8. 29	<p>大宇, 北韓 南浦工團에 職 員 첫 常駐</p> <p>* 통일원 교류협력국장</p>	<p>노동新聞, 金泳三 大統領의 8.15 慶祝辭 관련 論評</p> <p>* 『개꿈을 꾸는 반통일 호전광』</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최근 남·북간 최초 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南 : 대우, 北 : 삼천리총회사) 근무 대우 측 경리직원의 상주를 허용하였음. ○ 북측은 현재 4번째 방북 중인 대우기술자들의 체류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조치하였으나, ○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지급과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지급등 인세티브제 도입문제는 거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은 8.15 경축사라는데서 미완의 광복 <완성하지 못한 광복>을 진정한 광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떠벌였음. ○ 그것은 남조선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우리 공화국에까지 확대 연장시키겠다느니, 외세와 작당하여 우리를 어찌해 보겠다는 폭언임. ○ 김○○이 운운하는 평화체제 구축이요, 남북대화요, 협력이요 하는 것도 단지 반통일 분열주의자, 호전광으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것에 불과함. 	
8. 30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이성호, 對南 電話通知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29 심한 뇌출혈로 김인서 노인은 왼쪽 전신마비에 중풍현상까지 나타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중태에 빠져있다 함. ○ 나는 귀측이 뇌출혈로 신음하는 김인서 노인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공화국 북반부로 즉시 돌려 보낼 것을 요청함. 	<p>데이비스 美國務部 代辯人, 『3자회담』 관련 立場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3자회담 제의설 관련,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4자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음. ○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4자회담이 이루어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0			<p>저야하며 우리는 이에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음.</p>
8. 31		<p>勞動新聞, 8.15 韓總聯 事態에 대한 美·日 反應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행정부는 김○○일당의 8.15 유혈탄압을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하였고, 日本 출판물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과격한 운동이었다고 시비하였음. ○ 이것은 美日반동들이 김○○에게 지원포를 쏘아 궁지에서 벗어나게하고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막아보려는 부당한 대조선 정책임. <p>教育委員會 委員長 최기룡, 南韓당국의 韓總聯 대응관련 談話</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	<p>統一院, 北韓外交部 代辯人의 駐韓美軍 철수주장 관련 論評</p> <p>* 당국자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96. 9. 2자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 미군 철수를 되풀이 주장 하였음. ○ 이는 북한이 매년 9. 8~14간 주한미군 철수 투쟁기간을 앞두고 되풀이하여 오던 주장에 불과 함. ○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주한미군 철수 등 비현실적인 주장에 집착하지 말고 4자회담에 호응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임. <p>姜英勳 『韓赤』總裁, 對北 電話通知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은 김인서노인이 거동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와병중이라고 하였으나, 김노인은 지금 광주에서 	<p>外交部 代辯人, 駐韓美軍 주둔 51년 즈음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윤곽도 똑똑치않고 언제 성사될지 알 수도 없는 4자회담을 들고나와 우리의 잠정협정 제안에 대치시키려하고 있음. ○ 미국은 4자회담의 목적이 항구적인 평화협정 마련에 있다 하였으므로 회담 주의제는 미군철거 문제로 되어야 할 것임. ○ 미국측이 4자회담에서 남조선 주둔 미군의 즉시적 철수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없다면 그런 회담은 쓸모가 없음. ○ 현 단계에서 미국이 우리의 잠정협정체결 제안에 응해나오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됨. <p>非轉向 長期囚 구원대책 조선위 代辯人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측이 우리의 김인서 송환 요구를 실제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의 구급치료를 위해 의료진을 파견하며 두 딸도 보내어 돌보도록 할 것임. ○ 우리는 남조선의 해당기관이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담보 및 편의를 보장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p>世界民間航空機構 (ICAO) 北韓領空 시험비행 96.10 實施 예정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전문지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 96.12까지는 북한 경유 새로운 노선을 확정시킬 계획으로서 오는 10월 중 첫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임. ○ 서울·미국간 운항 항공편이 북한 해안 상공을 질러갈 경우 최고 1시간 30분을 단축할 수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	<p>침술 등 한방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93년 이인모노인 무조건 송환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귀측은 이를 정치선전에 이용해 왔음. ○ 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지난 8.12 제의 이산가족 재회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 적십자단체 총재 또는 부총재 회담에 지체 없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9. 3	<p>統一院 代辯人, 北韓의 非轉向 長期囚 구원대책 朝鮮委 談話關聯 記者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김인서 구급치료 및 간호를 위한 의료진과 두 딸을 보낼 것이라는 방송보도는 우리사회에 인도적 문제를 제기 국론분열 등을 조장하며 특히 한총련 체결 분위기를 희석시켜 보려는 의도로 보임. 	<p>中放, 南韓當局의 韓總聯 核心幹部 검거관련 論評</p> <p>*『극도에 이른 폭압광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괴뢰들은 한총련의 이적 폭력성이 드러났다느니 그 누구에 의해 배후조종되고 있다느니 하면서 한총련 해체를 떠벌이고 있음. ○ 그들은 그 누구의 배후조종을 받아서가 아니라 반목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단합을 위해 그들이 스스로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정치적 선전에 계속 활용하고 다단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는 이에 일일이 맞대응 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임. 	<p>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뢰도당은 한총련 말살과 통일 애국세력 거세로 저들의 통치위기를 수습해 보려하고 있으나 결국 파멸을 재촉할 뿐임. <p>北韓天道教會 위원장 유미영, 南韓天道教 교령·대종교 총전교 訪北 招請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배달겨레는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슬기로운 단일민족으로서 개천절을 다같이 기념하는 것은 북과 남의 단합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의의 있는 일로 될 것임. ○ 나는 10.3 개천절에 거행될 단군제를 단군릉이 있는 평양에서 북과 남의 민족종교인들이 공동으로 지내자는 것을 제안하면서 귀하를 비롯한 귀측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함. ○ 귀측 대표들의 평양 체류기간 우리의 해당기관에서는 모든 편의와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해 드릴 것임. 	
9. 4	<p>韓國自由總聯盟, 北側의 김인서 送還·의료진 파견 主張관련 聲明</p>		<p>이케다 日本외상 4者 會談 側面지원 容의 表明</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우리측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를 외면한 채 의료진 파견을 제안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깔린 선전공작에 불과함. ○ 북한은 김인서의 병을 핑계삼아 의료진 파견을 제의하는 등 상투적인 선전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p>「韓總聯」, 8.15 延世大 事態 관련 謝過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들을 국민과 함께 모아 나가는데 실패했음을 고백함. ○ 국민의 사랑과 신뢰속에서 가치를 빛냈던 학생운동의 오랜전통에 열정과 미숙함으로 생채기를 낸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점임. ○ 이번 사태로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데 주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포럼 제4차 회의 ○ 남북대화와 4자회담이 잘 되어야 일·북 수교협상 재개등 양국관계가 잘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전달 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5		<p>中放, 김인서 送還 · 의료진 派遣 주장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한민족, 한동포라는 견지에서 김인서노인의 신상 문제를 대하여 할 것임. ○ 우리인민은 미구에 김인서노인에게 다가올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리의 긴급조치가 조속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음. ○ 남조선 적십자사가 우리의 거듭되는 제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김인서노인의 병치료문제에 속수무책으로 강건너 볼보듯 한다면 그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p>訪北 안토니 휴엣 UNICEF대표,北韓 食糧難 관련 記者會見 (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8 하순 북한 방문 ○ 지난 홍수로 끊어진 다리와 파괴된 농가가 곳곳에 남아 있었으며, 올 가을 식량 수확량으로는 겨울을 넘기기가 힘들 것으로 보였음. ○ 북한의 홍수복구 위원회 성원조차 비피해가 심한지역에서의 수확량은 예년의 10%에도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9. 6		<p>『青年同盟』, 『聯盟』 김인서 送還 主張 관련 各各 聲明</p> <p>平壤市, 韓總聯 대표(유세홍, 도종화) 歡迎 청년학생 集會</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7	<p>統一院 代辯人, 북한의 나진 · 선봉 투자설명회 選別 招 請 관련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 · 선봉 투자설명회 (9.13~15) 우리측 참가 자들에 대한 초청장이 아 직 오지 않음에도 정부는 국제기구 등과 긴밀 협의 참가문제에 성의 있는 노 력을 다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측이 우리 참 가기업들을 선별 초청하 고 정부 관계자와 취재기 자들의 참여를 배제하려 는 움직임이 있음. ○ 이는 북한측이 모든 나라 의 지위 등에 상관치 않 고 참가를 보장하겠다는 UNIDO 등과 의 약정서 를 스스로 어기는 일임. ○ 정부는 현재 이같은 북한 측의 입장을 최종적인 것 인가를, 그리고 그 진의 가 무엇인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끝난후 참 가 여부를 결정할 것임. 		
9. 8	<p>金泳三 大統領, 對北북구비 35만불 支援 聲明(산티아고)</p>	<p>北韓政權 창건 48돌 慶祝 중앙보고 대회(4.25 문화회관)</p>	<p>北韓, 유엔에 食糧援 助 공식요청</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3백만불 상당의 이유식과 분유를 제공한바 있음. ○ 대북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탈수방지약 제조공장 복구비 35만불을 UNICEF를 통해 지원코자 함. *'95 수해로 同공장 가동 중단 <p>統一院 代辯人, 나진 · 선봉 투자포럼 참가문제 UNDP에 협조요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9.7 UNDP 한국대표(Mr. Hla) 를 초치, UNDP가 북한에 대해 한국이 제시한 53명 전원을 그대로 접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북측의 최종 입장을 조속 확인해 줄 것을 요망했음. ○ 이에 대해 Hla 대표는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와 같은 우리측 입장을 바로 북한측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욱, 최광, 김영남, 계응태, 한성용, 이을설 등 참가 <p>〈경축보고, 당비서 한성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통일문제는 민족적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제적 문제임. ○ 미국은 냉전시대의 힘의 정책을 버려야 하며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할데 대한 제의에 응해나서야 함. <p>※ 중국 강택민 주석, 김정일에 축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가입국인 북한이 원조를 공식 요청해 옴에 따라 WFP · FAO등이 머지 않아 북한의 피해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9	<p>『韓赤』 제8차 對北수해 物 資 支 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은 구호밀가루 220톤을 북한에 보냈으며, 9. 16에는 同 500톤을 보낼 예정임. * 95.11이후 7차례에 걸쳐 담요, 라면, 식용유, 밀가루 등 11.8억 상당의 물품 지원 	<p>勞動新聞, 政權創建 즈음 『김일성은 곧 김정일, 김정일은 곧 우리조국』 強調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공화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 	
9.10	<p>統一院, '96 北韓穀物생산량 10% 減少 分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분석실장 ○ 북한은 수해에 의한 경작지 감소, 농업기반시설취약 등으로 평년 생산량 410만톤에서 10% 가량 줄어든 370만톤 생산이 예상됨. ○ 올해 북한곡물 총소요량은 489만톤, 공급량은 435만톤(작년 생산량 345만톤+도입량 90만톤)으로 추정되어 50여만톤 부족이 예상됨. ○ 해외도입 90만톤은 일본 20만톤, 중국 34만톤, 시 	<p>『農勤盟』 『女盟』, 김인서 送還拒否 關聯 各各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인서 노인의 송환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김○○일당의 책동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임. <p>勞動新聞, 韓總聯 大學生 立件 수사 關聯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총련에 대한 김○○도당의 탄압공세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보다 큰 항거를 일으킬 것이며 그로부터 괴뢰들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 	<p>北韓, 개인農·工 政 策 轉 換 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소식통 ○ 북한당국은 2개월 전 개인이 논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개혁 조치를 취했음. ○ 개인경작 유효기간은 15년이며 수확량은 국가에 팔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도 있도록 하였음. ○ 북한의 공장경영제도와 관련 오는 10월부터 공장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0	<p>리아 14만톤, 베트남 10만톤, 국제기구 4만여톤, WFP 추가지원계획 7만톤, 기타 1.4만톤 등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식량사정은 총량적인 부족보다는 북한내부의 지역간 계층간 분배의 불균형이 심하다는데 문제가 있음. <p>統一院 代辯人, 나진·선봉 투자포럼 不參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당초 이번 투자설명회에의 참여를 통해 경제협력의 틀을 형성해 나간다는 취지에 따라 우리측 참가단을 파견키로 한바 있음. ○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53명 참가단 신청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인 25명만을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초청장을 발송하였음. ○ 우리는 북한측의 이러한 선별초청과 약속파기 행위를 수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 참가단을 		<p>급제가 시험도입될 예정임.</p> <p>유엔總會,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 採擇</p> <p>*북한 불참</p> <p>北韓·러 相互 友好條約 時效 滿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러시아간 군사동맹관계(자동개입)를 규정한 상호우호원조 조약의 기한이 만료되어 공식 폐기되었음. ○ 러시아측은 95. 8 우호조약을 대체하는 새조약案을 북한에 제시했으며, 쌍방은 연내 체결할 것으로 예상됨. <p>KEDO 제2차 定期總會 開幕 (9.10~12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에서는 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0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미·일 원회원국 등 50여개국이 참석하여 경수로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함.
9.11			<p>國際赤十字社聯盟 (IFRC)北韓水害 상황보고서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월하순 폭우로 북한 곡창지대 전체 농경지의 40%가 침수되었으며, 올해 북한의 전체 곡물 수확량은 '94 대비 15~20% 감소될 것으로 보임. ○ 식량난외에도 도로·교량 등 사회간접 시설의 파괴도 심각하며 특히, 관개시설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파괴됨으로써 이들 복구에는 4년이 걸릴 것임. ○ 國赤의 주요 구호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1			<p>활동지역은 평북의 신의주, 박천, 정주, 자강도의 희천, 고평, 동신, 황북의 은파, 인산, 신평, 신계, 황남의 배천, 강원도 이천, 철원 등임.</p>
9.12		<p>外交部 代辯人, 최근의 미군장비 南韓搬入 關聯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에도 미국은 모든 계기에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미국이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외면해 온 진의도 바로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것임. ○ 우리는 미 군사당국의 일거 일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상응한 조치로 엄숙히 대처해 나아갈 것임. 	<p>美 國務部 마크 민튼 韓國課長, 對韓半島 政策關聯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동아·태소위 청문회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4자회담 등을 통해 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유도하는 것임. ○ 미·북한 기본협정, KEDO, 4자회담제의, 미사일 회담, 유해 회담, 인도적 지원등은 결국 한반도의 평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2			화적 재통일을 위한 대결과 전쟁위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9.13		<p>나진·선봉 國際投資 및 企業討論會 개최(9.13~15, 현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일·영·불등 26개국 대표단들과 500여명의 투자가 및 기업인들이 참가하였음. <p><기조연설,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 정부는 나진 선봉지대의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투자가들과 동포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투자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음. ○ 우리는 이 지대의 개발을 통해서 여러나라들과의 협력과 교류관계를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임. 	
9.14	<p>統一院, 北韓脫出住民 保護法案 확정</p> <p>*『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귀순북한동포보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4	<p>호법'의 대체 입법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현재 각부처 산재 탈북자 업무를 통일원산하에 『북한탈출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 총괄관리토록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안에서는 탈북주민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 탈북자들을 보호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 3년동안 보호토록 했음. ○ 보호시설에서는 탈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음. 		
9.15		<p>中通, 나진·선봉 投資說明會 投資契約 체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기간 법적 효력을 가지는 1억8천만 달러분의 호텔건립등 총 6개분야 2억3천4백만달러분에 대한 투자 계약서가 서명되었음. - 호텔 : 1.8억달러(홍콩) - 은행 : 3천만달러(홍콩) - 오토바이공장 : 5백만달러(중국) 	<p>日방위청,北韓 崩壞 2단계 진입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3단계 붕괴 가능성』 ○ 북한붕괴의 가능성이 높은 3가지 모델 즉, 김정일이 실각하는 『정권붕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5		- 수산물가공공장 : 4백만달러(홍콩) - 관광봉사시설 : 5백만달러(중국) - 블록크공장·통신설비 : 1천만달러(태국) 金正日, 金剛山 發電所 시찰 * 계응태·최태복·김기남·김국태(이상 당비서),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등 동행 * 조업 앞두고 시찰	『정치체제 붕괴』, 북한 자체가 소멸되는 붕괴의 유형을 들 수 있다. ○ 김정일 정권의 안정도 관련 1단계(필요물자, 서비스제공 불능상태)를 넘어 2단계(통제불능 상태)에 진입하였음. ○ 북한이 붕괴 3단계에 들어설 경우 김정일은 내란 또는 군부 쿠데타에 의해 실각할 것임. ○ 북한체제 및 김정일 정권의 존속여부는 향후 식량사정의 향방에 달려 있음.
9.16	統一院 代辯人, 안승운 強制拉致事件 관련 對北 聲明 ○ 중국 당국은 안승운 납치 주범 리경춘이 항소를 포기 함으로써 『불법감금 및 불법출경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9.13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代理 이성호, 김인서 送還 재요청 對南電通文 ○ 귀축이 김인서 긴급송환 제의를 탄 문제와 억지로 결부시켜 거부한 것은 그의 귀향을 반대하는 남조선 당국의 불순한 기도에 추종한 것임.	제96차 國際議員聯盟 (IPU) 總會 개막(9.16~18, 북경) ○ 회의에는 133개국 대표·국제기구 대표·수행원등 1,400여명이 참석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6	<p>알려 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범 리경춘에 대한 실행이 확정됨으로써 안승운이 자유의사로 입북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 무근임이 확인되었음. ○ 안승운씨가 북한당국에 의한 강제 납치가 분명한 이상 그의 즉각 송환·관계자처벌·불법감금 납치 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함. ○ 아울로 고상문씨와 동진호 선원 등 그동안 강제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 송환을 강력히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김인서 송환문제는 어떠한 부대조건도 없이 무조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그의 송환 및 의료진·두팔 파견제외에 조속 호응할 것을 촉구함. <p>外交部 副部長 최수현, 유엔總會 제 51차 會議 참가차 평양출발</p>	<p>하였으며, 북측에서는 이몽호(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단장 등 7명이 참석하였음.</p> <p>北韓旅客機 마카오 첫취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163명의 고려항공 여객기는 평양 마카오 노선을 주 1회 운항함.
9.17	<p>姜英勳 『韓赤』총재, 김인서 문제관련 對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이미 여러차례 김인서문제 관련 우리측 입장을 밝혔음에도 귀측이 9.16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김인서노인은 한때 하반신 마비증세가 있었으나 매우 빠른 속도로 치유되 	<p>勞動新聞, 나진·선봉 投資說明會 남측대표단 不參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통치배들은 여러가지 터무니없는 부대 조건을 들고나와 남조선 기업인들의 복행 길을 강권으로 차단하였음. ○ 괴뢰들의 악랄한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는 예상외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른나라 투자자들의 열의도 더욱 높여주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7	<p>어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지난 8.12 성명과 9.2 전통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 인도주의 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조건없이 개최할 것을 거듭 제의함. <p>서울地檢, 韓總聯 事態 종합 수사결과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자 465명 가운데 438명을 집시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27명은 석방하였음. ○ 범청학련 남측분부는 북측분부의 지도를 받고, 북측분부는 조평통 산하 단체로서 당 통일전선부 지휘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범청학련은 노동당의 지원과 지도를 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면에 남조선 괴뢰들은 세계 앞에 툭툭히 망신을 하고 황금의 삼각지로 쏠리는 국제적 흐름에서 배제당하는 국제고아의 가련한 신세에 처해졌음. <p>제6차 朝·美 專門家 協商 미국대표단 평양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연료 처리 전문가 	
9.18	<p>權五琦 副總理겸 統一院長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主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잠수함 이용 북한 	<p>勞動新聞, 金泳三 大統領의 中南美 순방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은 위기에 처한 남조선 경제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중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8	<p>의 무장공비 침투행위는 군사정전협정 위반 뿐 아니라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행위로서 단호히 대응키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생존 무장공비가 계속 활동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색출 수색작전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정부는 우선 군정위를 통해 관계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북측에 엄중 항의하는 한편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음. <p>國防部 代辯人, 북한 潛水艦 동해상 침투 聲明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새벽 북한군의 잠수함 동해안 침투 사건은 명확한 대남도발행위로서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임. ○ 북한의 위협적인 잠수함 침투행위는 우리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행위임. 	<p>미 지역 당국자들은 물론 경제인들에게까지 경협을 구걸해 나섰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김○○은 위기에 처한 식민지 예속경제의 가련한 처지를 드러냈을 뿐 경제를 되살릴 처방을 얻지 못했음. <p>金剛山發電所 2단계 操業式 진행</p> <p>*참가자 : 이종욱, 최광, 한성용, 홍성남, 조명록 등</p> <p>북한사회단체들, 김인서 송환협조 요청 국제기구에 편지</p> <p>*북한 적십자회, 인권연구협회,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 조선위원회 등</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견된 잠수함에는 승무원 6명과 침투요원 5~6명이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군은 침투한 북한 공작원 사살 및 체포를 위해 철저한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음. 		
9.19	<p>與野 領袖會談, 안보문제 超黨協力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김종필 총재, 이홍구 대표 등 초청오찬 ○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일종의 무력도발행위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대북 경고와 국민경각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에서 채택키로 함. 	<p>『祖平統』서기국장 한시해, 김인서 送還問題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남조선 적십자사측에 김인서노인을 아무런 부대조건없이 조속 송환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 아울러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김인서노인 송환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의 목소리를 높여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p>白頭山 密營 창설 60돌 기념보고회 (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욱, 박성철, 최광, 김영남, 계응태, 이을설 등 참석 <p style="text-align: center;">〈박성철 기념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상징인 붉은기를 휘날리며 백두의 혁명 	<p>유엔식량기구, '96북한식량부족 62만톤 집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 · WFP 의 『북한수해 상황보고서』 ○ 북한은 95.11이후 해외조달분 84만8천톤(국제기구 원조 52.3만톤, 국경 무역 25만톤, 수입 등)을 조달하더라도 62만톤(3개월분)이 부족함. ○ 지난 7월 하순 폭우로 인해 북한은 논벼 36만톤과 옥수수 9만2천톤 등이 피해를 본것으로 추산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9		정신으로 억세게 싸워 나가야 할 것임.	<p>유엔사, 北韓 武裝間諜浸透 抗議 대북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 접수거부 ○ 북한측 무장인원들의 침투 행위는 명백하고도 악랄한 정전협정위반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임.
9.20	<p>權寧海 安企部長, 북한 武裝共匪 침투는 게릴라戰 목적 發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정보위원회 ○ 同 침투사건은 단순한 정찰이 아닌 게릴라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정전협정을 심각히 위 	<p>勞動新聞, 美·北간 제네바 합의 파기위협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느니, 4자 회담을 통한 평화 통일에도 유도할 것이라느니 하는 발언들이 있음. 	<p>유엔安保理, 北韓武裝 잠수함 침투관련 議長 聲明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잠수함 이용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0	<p>반한 사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공비중 인민무력부 정찰국산하 해상처장(대좌)과 부처장(상좌)의 포함이 특이점임.(상어급 잠수함의 함장은 통상 중좌로 편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들고 나온 4자회담이라는 것은 목적도 내용도 분명치 않고 따라서 언제 성사될지도 알 수 없는 것임. ○ 미국이 조·미 기본합의문에 어긋나게 계속 반공화국소동을 벌이는 조건에서 우리도 언제까지나 조·미 기본합의문에만 매달려 허송세월 할 수 없음. ○ 우리는 조·미 기본합의문에서 손을 떼도 손해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자체의 자금과 기술, 원료에 의거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수 있음. 	<p>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안보리 의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북한 대사를 불러 사건 해명을 요청토록 함. <p>*북측 거부</p> <p>데이비스 美 국무부 代辯人, 잠수함사건 『重大한 도발행위』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중대한 도발행위임. <p>*빌 리처드슨의원의 방북계획 취소</p> <p>IAEA, 北韓過去核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p> <p>*제40차 총회</p>
9.22		<p>人民武力部 代辯人, 북한 잠수함 및 무장공비 송환촉구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알아본데 의하면 9.13 한군부대가 훈련용 소형잠수함을 타고 원산항을 출항해 동해에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2		<p>훈련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강릉앞 해상에서 좌초된 것으로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군인들은 배가 좌초되자 부득이 육지에 오른 것으로 보아지며 적지대이므로 무장총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잠수함에는 훈련용 저격 무기만 있었음. ○ 남측은 우리의 소형잠수함과 생존군인들과 사망자들을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함. 	
9.23	<p>國防部, 북측의 潛水艦, 침투인원 送還要求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이 도발사건 발생 6일이 지나서야 『정상적 훈련』운운하면서 송환을 요구한 것은 내외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대북 규탄 여론을 희석시켜 보려는 기만책략임. ○ 이번 사건은 훈련중에 일어난 단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도발 사건임이 확인되었음. ○ 이러한 사실은 잠수함 동원, 중무장 전투요원으로 구성, 생포공비 『이광수』 	<p>中放, 李壽成 國務總理의 統一教育 內實化 發言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는 통일문제는 정권과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후손의 문제인 것인만큼 통일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음. ○ 그가 운운한 통일교육 법적 기반 마련이란 관계법 개정과 교육을 통해서 청년학생들속에 반통일 분열주의 독초를 심어주기 위한 것임. <p>국제무역촉진위 代辯人, 對시리아 武器密賣說 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괴뢰들은 정상적 대외무역업무 수행 우리 무역집배 	<p>데이비스 美 國무부 代辯人, 北韓의 잠수함 조난주장 관련 言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문제의 잠수함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한 국해안에 떠내려 갔다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함. ○ 이번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며 이같은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함. <p>KEDO - 北韓, 敷地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3	<p>의 진술 등 제반 정황에 의해서도 그 실체가 드러났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훈련』이라는 구실을 붙여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음. <p>國會,北韓武裝共匪 침투관련 對北決議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는 우리의 대북화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수십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킨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함. ○ 북한의 군용함정에 의한 무장병력 침투행위는 단순한 간첩행위가 아니라 무력적화 통일을 획책하는 군사도발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 ○ 국회는 모든 자유우방국가는 물론 아직도 북한정권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고 이같은 책동을 억제하는데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함. 	<p>를 무기밀매사건으로 조작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경유 시리아로 반출하려 했다는 물자들이란 건설기계를 만들기위한 자재와 부품들임. <p>평양-마카오-방콕간 정기항로 開設 첫운항</p>	<p>受 및 서비스議定書 2次協商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2~9.23 까 지 진행된 경수로건설을 위한 『부지인수 및 북한이 제공할 서비스』의 정서 2차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음. ○ 이로인해 경수로 사업 연내착공등 대북지원 일정이 불투명해졌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는 북한정권이 지금이라도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에서 민족공동체를 이루기위한 우리의 정책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함. 		
9.24	<p>金泳三 大統領, 對北政策 재검토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언론 정치부장단 접견 ○ 만일 일본의 오사카나 아오모리에,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에서 좀 떨어진 곳에 무장 잠수함이 침투했다면 아마 미국과 일본은 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을 것임. ○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국가 보위의 책임과 군의 최고통치권자로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겠음. ○ 이번 침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으로서 우리 軍·민간인으로 위장하였으며, 지금 동해의 해류가 남쪽으로 흐르지 않음에 	<p>勞動新聞, 金泳三 大統領의 對北警戒態勢 강화지시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며칠 전 김○○은 신한국당의 주요당직자 60여명을 청와대에 불러들여 대북경계태세 강화, 안보태세 강화에 대해 떠들어댔음. ○ 이것은 저들의 통치위기가 막다른 고비에 처할 때마다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내들리는 남침위협소동의 변종임. 	<p>클리턴 美 대통령, 『북한의 도발적 행위』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1차 유엔총회 연설 ○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를 추구해야 함. <p>데이비스 美 국무부 대변인, T/S훈련 재개 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잠수함 침투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는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배제하지 않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4	<p>도 훈련중 떠내려 왔다는 건 2중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임.</p> <p>權五琦 統一副總理, 統一問題보다 平和定着 우선 強調</p> <p>* 국회 통일외무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문제의 국제적 성격과 무장공비 침투사건재발방지를 위해서도 4자회담 및 경수로 사업등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 ○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통일문제보다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임을 강조할 것임. <p>韓·美, 武裝共匪 침투사건 관련 高位協議會 개최</p> <p>* 공로명 외무, 이양호 국방, 레이니 주한미대사, 킬릴리 유엔군 사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군사 정전협정 위반인 동시에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북한이 무력에 의한 시대착오적인 대남적 화 통일을 달성하려는 망상을 버리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함. ○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하기 위하여 경계 태세를 더욱 높이고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9.25		<p>북한적십자회 대변인, 안승운 목사 남북문제 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승운 목사는 그 누구의 강요와 납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의거해온 사람이며 목사 자신이 직접 방송과 TV를 통해 명백히 밝혔음. 	<p>美·日 頂上, 한반도 문제 등 협의(유엔 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클린턴대통령, 日 하시모토총리 ○ 북한무장간첩 침투사건 관련, 한반도 긴장을 최소한으로 하며 긴장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간다는데 의견이 일치함.
9.26		<p>政府·政黨·團體 비상연합회의 개최</p> <p>* 참석자 : 박성철, 양형섭, 김병식, 유미영 등</p>	<p>유엔사·북한군, 북한무장공비침투관련 비상장급 접촉(판문점)</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정상적인 훈련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강릉해안에 오른 우리 군인들을 학살한 남조선괴뢰들에게서 비싼 대가를 받아내며, ○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데 이용하고 있는 김○○일당의 책동에 대처하여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음. <p>外交部 副部長 최수현, 유엔총회 제 51차 회의 연설(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94.4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과 96.2에는 구체적 조치로서 조미간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음. <p>『祖平統』 서기국 대변인, 김인서 송환 거부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은 온민족과 인류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노인의 신상에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로 진행된 접촉에서 북한은 훈련중 표류잠수함 및 승무원의 즉시 송환을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응분의 대응조치를 위협하였음. ○ 유엔사측은 무장공비침투는 분명한 도발이며 도망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투항할 것을 요구하였음.
9.27	孔魯明 외무장관,北韓 무장공비 침투는 무력적화통일확책 입증	中央通信社, 무장공비 침투사건관련 성명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7	<p>* 유엔총회 제51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최근 무력도발행위는 우리의 영해에 대한 심각한 침범행위이며 정전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 ○ 이는 아직도 북한이 무력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함. ○ 북한은 4자회담을 수락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에 임해올 것을 재촉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천배의 것으로도 될 수 있음. ○ 남조선 당국자들은 훈련중 좌초된 우리 배를 가지고 그 무엇을 얻어보려는 책동을 중지하고 잠수함과 함께 승조원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내야 함. 	
9.28		<p>여연구(69, 여운형차녀) 사망</p> <p>*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전선』 의장</p> <p>平放, 중국의 對北食糧 원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우리나라 큰물피해관련 중국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10만 톤의 식량이 전량 들어왔음. 	
9.29	<p>國防部,北韓武裝共匪 침투 관련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사건은 잠수함과 특수무장병력을 동원한 무 	<p>中放, 북한-KEDO간 경수로 의정서 합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2~9.26 뉴욕에서 진행된 부지·봉사의정서 협상에서는 국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9	<p>력도발로서, 수중침투, 공격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전투전력인 잠수함을 동원한 침투행위는 정규전과 다를 바 없는 도발행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제2, 제3의 군사도발을 겨냥한 전투정찰행위로서, 노획물중에는 강릉주변 고속도로, 강릉비행장 활주로의 접근로 추가확인 표기지도 등이 발견됨으로써 또다른 군사도발을 위한 전투정찰활동으로 분석됨. ○ 북측이 적반하장격으로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위협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와 군은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도발도 즉각 응징할 것임. ○ 무력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기도는 한반도 긴장고조로 현재 처해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는 것으로서, 금번과 같은 예측불허의 무력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p>제관례와 특수상황에 맞게 토의되고 합의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합의로 경수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게 되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30	<p>權五琦 統一副總理, 對北 경수로 議定書 假署名 유보 발언</p> <p>*국정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 북한간 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 협상에서 일단 의정서 문안에는 합의하였으나, 관련국 정부의 검토 및 승인 절차, 서명 · 발효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 정부는 미 · 일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서명시기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것임. 	<p>金正日, 중국 창건절 즈음 강택민 주석에 축전</p> <p>중앙통신, 러시아의 對韓國 무기반출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장갑차와 탱크를 비롯한 최신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었음. ○ 조선반도에서 군사장비의 반입은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정치군사적 문제임. ○ 러시아는 조선의 분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에 대한 계산을 똑똑히 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	<p>金泳三 大統領, 對北 힘의 優位政策 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의 날 제48주년 축하 메시지 ○ 북한은 동포애에 바탕한 우리의 지원과 성의를 저버리고 또다시 잠수함까지 동원하는 무력도발을 자행했음. ○ 이는 조국의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도전이며 평화애호 세계인의 이름으로 응징되어야 할 도발임. ○ 우리군은 확고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모험주의도 사전제압할 수 있는 정예강군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임. <p>국방부, T/ S훈련 재개방침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감사 ○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명백한 대남도발 행위뿐만 아니라 제네바 합의에 명시된 남북대화 노력을 기만하고 있음. ○ 우리는 T/S훈련 문제에 일관한 입장을 가지고 있 	<p>中·平放, 中國創建 47돌 즈음 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親善강조 * 『투쟁과 승리의 47년』 ○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계속 공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임, ○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 친선은 두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대를 이어 강화 발전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	<p>으며, 11.1 미국개최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 M)에서 이문제를 논의 할 예정임.</p> <p>金泳三 大統領, 施惠的 대북 지원 再考발언</p> <p>*국군의 날 경축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무력도발은 우리의 동포를 돕고자한 따뜻한 동포애에 응대해 나선 것으로서 반민족적, 반통일적 배신행위임. ○ 북한의 명확한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방시혜적이거나 교섭에 의하지 않는 대북지원은 재고할 것임. ○ 북한의 어떤 도발과 침투 행위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의 기동성과 능력성 제고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임. 		
10. 2	<p>國防部, 全軍에 비상경계령 하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대남보복 가능성에 대비 북한군 동태를 24시간 감시하는 위기 감시팀 가동에 들어감. 	<p>중앙인민위, E · C결성 70돌 記念 鑄貨발행 결정</p> <p>*금화, 은화</p>	<p>유엔사 · 北韓軍, 쌍방 비서장급 접촉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요구로 개최된 접촉에서 북측은 훈련중 표류 잠수함과 승무원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서해5도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함. 		<p>들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가까운 시일내 남한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측은 북한 공비침투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정전협정 위반임을 강조하고 잔당의 조속투항을 요청하였음. <p>美 국무부 代辯人, 북한의 『가까운 시일내 대남보복』 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거부함. ○ 한·미 양국은 북한에 의한 어떠한 도발도 공동대처할 준비태세가 되어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4	<p>權五琦 통일부총리,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는 북한의 보복 발언 및 최덕근 영사피살 사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함. ○ 정부는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 및 경수로부지조사단의 방북 등을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늦추기로 함. 	<p>주유엔 북한대사 김형우, 대남보복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안보리의장 소환 ○ 남측은 잠수함사건을 사악한 정치적 목적에 계속 이용하고 있음. ○ 남측이 잠수함, 생존자, 시체들을 즉각 송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에 대해 보복할 권리가 있음. 	
10. 5		<p>평방, 나진·선봉 군인 폭동설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남조선 중앙일보 10.2부가 라진·선봉지대에서 8월 하순 군인폭동이 발생했다는 허위보도를 했음. ○ 이것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킬 목적밑에 꾸며낸 날조극임. <p>平放, 블라디보스토크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피뢰들은 덮어놓고 북의 공작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라는니 독침사용이라는니 하며 소동을 일으키고 있음. 	<p>日 적십자사 국제부 국장, 북한 긴급식량 원조요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홍수재건위원회는 금년 수확이 나빠 150만톤의 곡물이 부족하다면서 식량과 겨울옷 등 긴급원조를 요청하여 왔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모략적인 잠수함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행위임. 	
10. 6		<p>中央通信社, 미국인 현지크 간첩혐의 체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8.24 우리 사회안전기관에서는 압록강을 건너 비법 입국한 미국 공민 에반 칼 현지크를 체포 구류하고 있음. ○ 지금까지 조사한데 의하면 그는 남조선 안기부로부터 간첩임무를 받고 정탐행위를 목적으로 비법 침입하였음 ○ 그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지게 될 것임. <p>平放, 『美해군 침투 간첩사건』제하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버트 김 간첩혐의 관련 ○ 지난 9.24 미국에서는 미해군 정보부에 침투해서 간첩행위를 하던 괴뢰 안기부의 첩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음. ○ 남조선 괴뢰들은 저들에게 쏘리는 비난을 판데로 돌릴 목적밑에 그 누구의 무장잠수함 침투사건이란 것을 유엔에까지 끌고 갔음. ○ 가해자인 남조선 괴뢰들이 사죄할 대신 국제무대에까지 잠수함 	<p>러 연해주, 북한농업 대표부 폐쇄 연방정부에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 인테르팍스 통신 ○ 북한 농업대표부가 농업부문 공동협력이라는 당초 목적을 어기고 북한노동자 불법 이주등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러 폐쇄를 요청함. <p>매커리 美백악관 대변인, 북한의 미국인 체포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북한의 보도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갖고 있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 협조를 스웨덴에 요청하였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6		<p>사건을 끌고 간 조건에서 보복은 불가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값은 피로서 치러야 하며 우리의 보복은 천배가 될 수도 있고 만배가 될 수도 있음. 	
10. 7	<p>金泳三 대통령, 3당대표 招請 여야 領袖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국민회의), 김종필(자민련), 이홍구(신한국당) ○ 현 안보상황의 심각성과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함. ○ 북한은 적반하장의 대남 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어떠한 도발 행위도 준엄한 응징을 받을 것임을 경고함. ○ 여야 정치권은 최근 안보 비상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p>번스 美 國 務 部 代 辯 人, 北 韓 的 現 址 記 載 報 告 關 聯 發 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 주유엔 북한대표부와 수차례 접촉을 가졌으며 즉시 석방을 요구 하였음. ○ 북한이 8월말 체포하고도 최근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과 관련 다른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임. ○ 다행히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를 어기지 않았으며 KEDO도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8	<p>權五琦 통일부총리, 최근 북한동향과 대응방향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고문회의 ○ 국가안보가 모든 것에 기초된다는 인식아래 국가안보태세 강화를 정부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것임. ○ 정부의 대북지원 재고방침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은 자제되고 있으며 『한적』의 대북지원도 사실상 중단 상태임. ○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에서도 경수로 후속서비스의 정서 문안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최종서명은 유보상태이며 제7차 부지조사단 방북도 연기되고 있음. 	<p>高麗聯邦制 제시 16돌紀念 평양시보 교회(인민 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성철, 김병식, 양형섭, 김용순, 백남준 등 참석 〈최고인민회의장 양형섭 보고〉 ○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이 우리에게 군사적 도발을 가해온 이상 우리는 피해자로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보복할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지금 남조선에서 전례없는 반공화국 모략 소동과 전쟁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로 됨. ○ 남조선 통치배들이 계속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며 분노를 야기시키는 길로 나가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백배 천배의 비싼 대가를 받아 낼 것임. 	<p>유엔시·北側, 군정위 일직장교급 접촉(관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측은 지난 10.2 비서장급접촉에서의 북측 대남보복 발언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이의 접수를 거부하였음. <p>틸렐리 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의 대남보복 위협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연합 방위팀의 전투준비태세는 그 어떤 북한의 모험주의에도 확실한 억제력을 작용하고 있음. ○ 북한의 역습에 대하여 한미군사동맹과 고도의 선진한미연합군사력은 강력하고도 신뢰할만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9	<p>韓·美聯合司, 『독수리 연습』실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독수리 연습을 10.28부터 11.10까지 실시함. ○ 올해로 31회를 맞는 同연습은 방어목적의 훈련으로서 후방지역 방어작전과 주요 지휘통제, 통신체제를 평가하는 등 야전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한것임. 	<p>中通, 崔德根영사 被殺사건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안기부는 이번 테러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 잠수함 승조원들을 살해한 남조선 만행에 대한 보복과 연결시키고 있음 ○ 우리의 보복은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정정당당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보복조치로 될 것임. ○ 러시아의 일부 출판물들과 원동지방 사법당국자들도 남조선과 함께 우리에게 테러혐의를 넘겨 씌우려고 소동을 벌리고 있음 <p>조총련, 대북쌀지원 기증식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포항에서 애국미 1만톤 전달 	
10.10	<p>金泳三 대통령, 민간인 3명 살해 대북응징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왔으나 이제는 결코 과거와 같은 시혜를 베풀 수 없음. ○ 북한무장공비가 순박한 농민 3명을 학살한 것은 결코 용서될 수 없으며 무모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응징할 것임. 	<p>金正日, 당창건 51돌즈음 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 공연관람</p> <p>*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등 동석</p> <p>사회민주당, 북측의 잠수함 및 승무원 송환요구 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잠수함 사건은 원래 북과 남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남조선 당국은 처음부터 무장간첩선, 침투간첩으로 조작, 학살하였음. 	<p>沈國放 中외교부 대변인,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피뢰들은 수색작전에서 아무런 전과도 없게 되자 우리측 인원들에 의한 세 명의 민간인 피살이라는 것까지 날조하였음. ○ 우리는 어느 때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로서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낼 것이며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가를 반드시 증명하게 될 것임. <p>勞動新聞, 黨創建 51돌 즈음 사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당은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날 것이다. ○ 우리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인민위천사상으로 구현해 나가 는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우리는 통일유훈을 가슴깊이 새 기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함.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영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당은 영원히 김일성의 당으로 빛날 것이며 사회 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임. 	<p>원스틴 로드 美國무 부 차관보, 訪韓도착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최근 북한 의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은 분명하고 명확함.
10.11		<p>中放, 韓美合同 독수리훈련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남조선피뢰들이 있지도 않 는 그 누구의 간첩사건이요, 보 복위협이요 하면서 우리가 당장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1		<p>내칠것처럼 여론을 내들리고 있으나 그러한 선전이 완전거짓임이 드러났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이겠다고 하는 독수리합동 군사연습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운운하고 있으나 그것은 꾀변임. ○ 우리는 그들이 우리조국의 일목일초를 건드린다면 일격에 몇천배의 보복타격으로 짓몽개버릴 것임. 	
10.12	<p>한·미, 북한무장공비 침투 대응방안 논의</p> <p>*공로명 외무장관, 윈스턴 로드 미국무차관보</p> <p><공동언론 발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은 최근 북한의 침투 및 대남보복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연합방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미측은 대한안보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미간 최상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어 나갈 것임을 설명함. ○ 양측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관련 유엔 안보 	<p>『조국전선』, 北韓潛水艦 및 승무원 送還要求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통치배들은 우리측 인원을 살해한 범죄행위를 사죄하여야 하며 잠수함과 인원, 희생자들을 당장 돌려보내야 함. ○ 만일 김○○일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확대하는 길로 나간다면 우리의 보복과 징벌은 보다 무자비할 것임. 	<p>로드 미국무부 차관보, 對北關係 速度조정 언급</p> <p>(離韓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관계 개선은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만큼 나아갈 수 있으며 남북대화가 되지 않으면 미북관계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음 ○ 장기적 차원에서 제네바 핵합의가 준수되어 북한핵 동결이 유지되며 4자회담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북한이 대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2	<p>리에서의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며 추가도발에 대처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 북대화 재개 및 미북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고 4자회담 수락을 계속촉구하기로 함. <p>국회, 북한무장공비침투 및 보복협박관련 제2차 대북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정권은 하루빨리 대 남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 하고 각종 도발책동의 즉 각 중지를 거듭 촉구함. ○ 북한정권은 명백한 무장 공비침투 사실을 솔직히 사과하고 더 이상의 재발 방지를 온세계에 다짐할 것을 촉구함. ○ 북한정권은 후안무치한 보복협박이 도리어 자신 들의 호전성만을 드러냄 을 자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 국회는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하여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p>침투 및 보복위협 등 상황에서 대북 정상추진은 어려우며 냉각기를 갖고 보폭을 조정할 계획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4		<p>金正日, 金剛山發電所 건설참가 군장병 · 건설자들과 기념촬영</p> <p>* 최광,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등 참가</p> <p>『職盟』 『青年同盟』 『農勤盟』, 북한 잠수함 및 승무원 送還要求 각각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들은 조선인민군 군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남조선괴뢰들을 천백배로 징벌할 복수의 피가 끓어번지고 있음. ○ 괴뢰들이 우리측 잠수함과 인원, 희생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전쟁소동에 매달린다면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영영 쓸어버릴 것임. <p>김정일, 제963 군부대 시찰</p> <p>* 평양근교 호위사령부 소속</p>	
10.15		<p>外交部 代辯人, 韓美側의 잠수함침투 對應관련 기자회견</p> <p>* 미 국무부 로드 차관보 방한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측은 경수로 제공사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남조선측은 잠수함 사건을 결코 미룬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함. 	<p>유엔安保理, 潛水艦 침투 對北警告 議長 聲明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리는 이 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전협정이 준수될 것과 한반도에서의 평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잠수함 문제를 조미기본합의문 이행과 직결시켜 우리에게 대한 압력 공간을 만들려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이 미국측에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중지하려 한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으며, 로드의 남조선 행각 결과 설명을 미국측에 요구하였음. <p>조선천도교회 · 기독교도연맹 · 불교도연맹, 북한잠수함 등 송환요구 각각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잠수함과 인원, 희생자들을 송환하지 않고 계속 우리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행위를 거듭한다면 준엄한 보복의 철추를 면치 못할 것임. <p>駐유엔 차석대사 김창국,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관련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함 사건은 순수 엔진고장 사건인데도 남측은 이를 정치쟁점화하여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승조원들을 사살 하였음. ○ 이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평화협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님. 	<p>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리는 정전협정이 새로운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해야함을 강조함. ○ 안보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양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함. <p>번스 美국무부 代辯人, 북한의 미북합의 파기 위협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미북합의의 기본틀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없으며, 핵동결 합의가 위협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 북한이 합의파기가 초래할 중대한 결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5		<p>金正日, 구월산 문화휴양지 건설참가 軍部隊 시찰</p> <p>* 황해남도 소재</p> <p>○ 험한 지역지대를 극복 120여만 m²의 압반굴착, 16개의 다리, 119개의 암굴, 140여개의 구조물 등을 건설하였음.</p>	<p>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이상 핵합의가 깨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p>
10.16	<p>權寧海 인기부장, 向後 1~2년내 安保重大時期 발언</p> <p>* 국회정보위 감사</p> <p>○ 현재 북한사회는 체제의 총체적 위기가 누적되고 있어 향후 1~2년이 안보의 중대시기로 북한의 군사적 모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p> <p>○ 북한 공직사회에는 직권남용, 이권개입, 횡령 등이 급증하고 일반사회에는 열차 및 은행강도 등 신종범죄가 등장하여 사회일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p> <p>○ 북한은 대남공작원 1,700여명과 특수부대원 12만여명을 보유하고 국제테러단체와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음.</p>	<p>E, C 結成 70돌紀念 중앙보고대회(평양 체육관)</p> <p>*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최광, 김영남, 계응태 등 참가</p> <p><기념보고, 강석승 당역사연구소장></p> <p>○ 김일성의 주체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혁명과 건설 등 모든 사업을 오직 김일성식으로 해야 하며, 김정일은 당과 혁명의 최고 수뇌이며 사회주의 위업의 운명이고 모든 승리의 상징임.</p> <p>※ 당·국가 간부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10.17)</p>	<p>駐日美軍 代辯人, 북한노동1호 발사실험 관련 언급</p> <p>○ 북한이 동해에서 사정 1천km의 신형 노동1호 발사 실험에 대비 관련 정보수집 및 감시 태세에 들어 갔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7			<p>번스 美국무부 대변인, 노동1호 발사 대북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미사일 계획은 주변 국가와 전세계에 위협이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은 美외교의 최우선목표로서 이를 위반하는 어떤 나라도 그대가를 치를 것임.
10.18	<p>權五琦 통일부총리, 對南정책 변화前 대북지원 불가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신문 주최 국제포럼 기조연설 ○ 북한은 현재 국제적 고립, 경제난등 총체적 체제위기를 대남적대전략을 통해 타개하려하나 이는 잘못된 선택이며 북한은 생존전략을 바꾸어야 함. ○ 북한의 무장공비침투는 극명한 정전협정위반 도발행위로서 북한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정부는 북한의 분명한 태 	<p>訪北 韓總聯 대표 유세홍·도종화 베를린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청학련 총회 참석차 8.10밀입북 	<p>美평화연구소, 북한 난민 대량유출대비 긴급계획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북한은 난민 유출을 저지하고 있으나 식량위기가 영양실조에서 기아로 진행될 경우 대량난민 가능성이 있음. ○ 북한난민의 잠재적 탈출방법으로 북·중 국경을 통한 중국입국, 일본으로의 선박탈출, DMZ를 통한 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8	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방시혜나 교섭에 의하지 않는 대북지원은 재고할 것임.		<p>국유입 등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중·일 등 관련국은 한반도 유사시 대비 각료급 또는 수뇌급 정책조정협회가 필요함.
10.19		<p>中通, 『美國의 시대착오적 대북정책』 題下 비난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로드의 행각 끝에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미북관계는 남북관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느니, 남조선에 대한 연합방위태세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음 ○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조미기본합의문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며 극히 모험적인 성격을 띤 호전적인 망발임. ○ 미국은 우리인민과 인민군대가 자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천백배의 징벌을 안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함. 	
10.20		<p>金正日, 西海岸 전방초소 제765 군부대 시찰</p> <p>*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장성우, 박재경 등 동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1	<p>金泳三 大統領, 무장공비침투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조치 대책 촉구</p> <p>*제181회 정기국회 시정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무장공비침투 사건에 대해 시인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북한이 우리의 인내와 의지를 무시하고 또 도발한다면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의거 단호조치 할 것임. ○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약속을 지켜 정전협정 관리 기구에 복귀하는 동시에 4자회담에 조속 호응할 것을 촉구함. 		<p>두만강 개발계획 5개국위 제2차회의 개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나진·선봉 지구개발을 위한 동회의에는 남·북한, 중, 러, 몽골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 한국측에서는 장건상 재경원 지역협력담당관 등 7명이, 북측에서는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등 8명이 참가하였음.
10.22		북한적십자회 창립 50돌 기념집회 (천리마 문화회관)	<p>두만강개발계획(TRADP)會員國으로 日本영입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및 중, 러, 몽골참가 두만강 개발계획 5개국위원회 제2차 회의는 6번째 회원국으로 일본을 영입하였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3		<p>外交部 代辯人, 미사일 시험발사보도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일 발사시험은 철두철미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누구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음. ○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미사일 시험으로 정세를 긴장시킨다고 하는데 그들 자신부터 공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행위부터 자제해야 함. ○ 자기의 자주권을 행사하고 수호하는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간섭할 권한이 없음. 	<p>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 남북간 평화會談 추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5개 주제 가운데 하나임. ○ 미정부는 남북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에 평화적 미래 조성을 위해 중국과 함께 남북한 평화회담이 성사되도록 도와야 함.
10.24		<p>北韓, 不法入北 미국인 현지크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크가 안기부의 지령을 받고 침입한 간첩이라는 것은 그가 입북한 목적이 군대의 실정, 주민생활, 경제형편, 사회실정 등 탐지라고 자필로 진술, 서명 한 데서 드러남. ○ 이 밖에도 우리에게서 괴뢰 안기부로부터 임무를 받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이는 적당한 시기에 공개될 것임. 	<p>美·北韓, 쌍방현안협의 실무접촉(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외교부 미주국장 이형철의 미국방문(10.23)을 계기로 美 국무부 한국과장 마크 민튼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음. ○ 이번 접촉에서는 잠수함사건 이후의 주요현안에 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히 말하건데 현지크는 공화국의 법을 위반하고 불법침입한 범죄자로서 마땅히 이 법에 따라 엄격히 다스려질 것임. <p>中央人民委, 국토환경 보호 모범郡 · 市 · 區域 칭호제정 정령발표</p>	<p>해 폭넓게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음.</p>
10.25		<p>北韓, 잠수함 침투사건관련 反北소동 중지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10.15) 관련 ○ 괴뢰들은 동포들을 무참히 살해한데 대해 사과할 대신 채택된 의장성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으나 안보리 성원들에 의해 거부되었음. ○ 의장성명은 괴뢰들의 잠수함 사건 과장으로 격화된 조선반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남조선 괴뢰들은 이제라도 反공화국 대결소동을 그만두고 우리 군인들의 시체와 잠수함을 돌려보내며 사죄하여야 함. <p>당중앙위 · 중앙인민위 · 정무원, 『우의탑』에 화환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군 참전 46돌 즈음 	<p>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 핵동결 파기시 군사대응 對北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최근 수년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는 힘든 외교를 통하여 이를 중단시켜 왔음. ○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제네바 핵합의 파기 위협 관련, 우리는 국익수호를 위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5		<p>韓總聯 유세홍·도종화 기자회견 (베를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권의 탄압으로 성사되지 못한 범청학련 총회와 청년학생 연석회의를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방북하였음. ○ 공동사무국 활동을 통하여 남과 북 청년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과 북의 연대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할 것임. 	
10.26		<p>金正日, E·C결성 70돌 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 『높이들자 E·C의 기치』 관람(만수대 예술극장)</p> <p>* 계웅태,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등 참가</p>	
10.27			<p>美 국무부 찰스 카트만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訪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의 한반도 정세 분석과 韓·美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협의하게 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8		<p>外交部 代辯人, 독수리 '96 합동군사연습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독수리군사연습은 명백히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반대하여 연례적으로 벌여놓았던 T/S훈련의 복사판임. ○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은 결코 누구의 미사일시험이나 그 무슨 사건에서 생기는 것은 아님. ○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에서 낡은 정전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할 것을 미국측에 제기하였음. ○ 미국이 끝끝내 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조·미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 <p>金正日, 인민군 제512군부대 건설 『월비산발전소』 視察</p> <p>*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장성택 등 동행</p>	<p>韓-EU, 기본협력협정 체결(룩셈부르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EU)과의 대화채널은 상설화되며, 특히 정치와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임. ○ 필요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으며 EU의장단 국가와의 외무회담이 연례적으로 개최됨.
10.29	<p>生捕무장간첩 이광수(31, 조타수)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찰국의 임무는 군사기지에 대한 정찰 및 파괴, 중요인물 납치 또는 살해, 	<p>北韓, 독수리 '96合同軍事訓練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힘의 방법은 백해무익하다.』 ○ 미국은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담보한 조·미 기 	<p>번스 美 국무부 代辯人, 미사일實驗 中斷 對北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실험을 단행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9	<p>후방교란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번 정찰 목적은 큰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15 침투 정찰조의 안전복귀를 위해 9. 17 잠수함이 후진으로 해안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려 좌초되었음. ○ 북한은 대남침투용으로 80여명 승선 1천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무력통일에 관한 교양을 강화하고 있음. ○ 잠수함 침투는 전쟁준비를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모래배낭을 메고 50리 구보, 1천리 산악행군 등의 훈련을 받았음. ○ 북한은 민간인뿐 아니라 군인도 공개처형하고 남파요원들이 투항하지 못하도록 자폭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p>본합의문을 배신하고 유린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무모한 전쟁연습에 매달리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 우리도 응당 자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 ○ 미국이 지금처럼 군사적 모험에 매달린다면 조·미관계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치닫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함. 	<p>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미사일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노동1호 발사계획의 중단을 거듭 촉구함. <p>유엔總會, 핵안전협정 이행촉구 對北決議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IAEA와의 유효한 핵안전협정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함. ○ 핵안전협정 이행 관련 모든 정보를 IAEA에 제공하는등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북한에게 촉구함.
10.30	<p>黨·政, 북한탈출주민 보호 법안 確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탈출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존의 귀순북한동포보호 	<p>『祖平統』, 독수리 합동군사훈련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은 것은 그들이 끝끝내 새전쟁 	<p>ESCAP 閣僚會議, 南北韓 철도복원 노력 키로 합의(뉴델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 참석 ○ 유엔아·태경제사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30	<p>법을 대체하는 同법안은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주민들은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등 총 3년 동안 보호받게 됨. ○ 탈북자들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도 일정한 검정을 거치면 인정받을 수 있음. 	<p>의 불집을 터치려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자들에게 천백배의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임. 	<p>회이사회(ESCAP) 각료회의는 시베리아·중국 횡단 철도와 관련하여 현재 단절된 남북한 철도를 복원하는데 최대한 노력키로 합의하였음.</p> <p>美·北韓, 쌍방현안 협의 제2차 실무접촉(뉴욕)</p> <p>*美 국무부 마크민튼 한국과장, 외교부 이형철 미주국장</p>
10.31	<p>제18차 韓·美 軍事委員會 회의(MCM) 개최(워싱턴)</p> <p>*윤용남 합참의장, 美 존 샬리캐시빌리 합참의장</p>		<p>레이니 駐韓 美대사, 북한이 사과해야 4자 회담 성사언급(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동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정전협정을 더이상 위반하지 않아야 4자회담 추진이 가능할 것임. <p>유엔총회, 한국을 유엔 經濟社會理事會理事國으로 선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	<p>韓·美 제28차 연례안보協 議會(SCM) 개최(워싱턴)</p> <p>*金東鎭·윌리엄 페리 국 방장관</p> <p>〈공 동 성 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확립은 한국인의 임무이 며 미·북간 개별협상은 고려될 수 없음. ○ 한·미 제안 4자회담에의 호응을 대북 촉구하며, 남북합의서에 기초하여 한국정부와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함. ○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서 이에 단호히 공 동대처기로 하며, 재발방 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북 촉구함. ○ 미국은 한국이 무력침략 을 받을 경우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즉각 지 원하고 핵우산도 계속 제 공할 것임. <p>〈공동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수락이 있기전까지 한미 	<p>김정일, 창립50돌 즈음 차광수 비 행군관학교 시찰</p> <p>*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등 동행</p>	<p>中國, 좌초북한어선 및 북한인 84명 구조</p> <p>*북경청년보(1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요녕성 어선 1척이 좌초북한어 선을 발견, 신고하 였으며 탑승 북한 인들은 구조되었 음. ○ 지난 10.24 출항 한 이어선에는 대 부분 어린이와 부 녀자들이 탑승하 고 있었으며 식량 과 식수는 바닥난 상태이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	<p>는 연합군의 현대화와 훈련을 강도높게 지속할 것임.</p> <p>○ T/S 재개문제는 한반도 내 상황변화에 따라 금년 말이나 내년초 양국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p>		
11. 2		<p>勞動新聞, 『독수리로 변한 팀스피리트』 제하 論評</p> <p>○ 독수리 '96 합동군사연습은 그 목적과 규모, 내용에 있어서 T/S훈련의 재개이며 그 복사판임.</p> <p>○ 미국이 구태의연하게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는 것은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는 처사로서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임.</p> <p>金正日, 칠보산 文化遊園地 조성 現地指導</p> <p>*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 김시학, 장성택 등 동행</p>	
11. 3		<p>外交部 代辯人, 美·北 실무협정 관련 記者會見</p> <p>○ 유엔총회 참가차 뉴욕체류 우리 외교부 미국담당 국장일행은 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3		<p>행정부 관리들과 실무 협상(10. 24~30)을 진행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측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중유납입과 경수로제공 사업을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추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음. ○ 쌍방은 앞으로 조·미관계 진전에서 관심사로 되는 제반 문제들을 계속 토의하기로 하였음. ○ 우리측은 비법 입국한 미국 공민에반 칼 현지크의 문제를 조·미관계의 진전에 부합되게 처리할데 대해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11. 4	<p>韓·러, 북한잠수함 침투는 주권 침해행위 규정 (모스크바)</p> <p>*金東鎮·이고르 로디오노프 국방장관 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잠수함 침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중대한 주권침해행위로 규정함. ○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현정전체제는 준수되어야 하며 유엔 	<p>平放, 美·日 육해공군 통합실동훈련 관련 論評</p> <p>*훈련기간 : 11.5~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조선반도에는 T/S 훈련의 복사판인 독수리 96전쟁연습으로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음. ○ 이와 때를 같이해서 일본주변해역에서 미·일 통합실동연습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이치라고 볼 수 없음. ○ 조선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전쟁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4	<p>안보리 의장의 대북경고 성명을 지지함.</p> <p>〈군사협력 양해각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요원 및 부대의 훈련 - 제공된 무기와 장비의 운용 - 군사 통신 등 	<p>연습을 벌여놓고 위협하는데 대 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자주권을 건드리 는 자들에게는 천백배의 보복타 격을 안길 것임.</p>	
11. 5	<p>合同參謀本部, 武裝共匪 잔 당 2명 射殺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침투 북한무장공비 잔당을 추적중 11.5, 10:30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인근 야산에 서 정찰조원 2명을 사살 하였음. ○ 이로써 지난 9. 18 침투 무장공비 26명 가운데 현 재까지 사살 13명, 생포 1명, 자폭 11명등 총 25 명이 소탕되었음. 	<p>『祖國戰線』 중앙위 議長團 확대회 의 진행(인민문화궁전)</p> <p>(議題) 남조선당국의 남북폐쇄 정책을 분쇄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할데 대하여</p> <p>*양형섭, 김용순, 류미영, 염태준, 정두환, 백남준 등 참가</p> <p>〈정두환 의장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이 그 무슨 동결이니 중단이니 폐쇄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평화적 통일지향적 노력에 대한 도전행 위임. ○ 남조선당국은 오래 전부터 당국 대화는 물론 각계각층 민간급 대화와 접촉도 국가보안법을 휘 둘러 차단하여 왔음. ○ 그들은 세계화라는 환상밑에 남 조선을 외세에 깃밟히게 하면서 도 동족간에는 콘크리트 장벽외 에 남북폐쇄정책이라는 정치적 장벽까지 덧쌓아 놓고 있음. 	<p>美·北韓, 뉴욕실무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무부 마크 민 튼 한국과장, 한성 렬 주유엔 공사 ○ 북측은 경수로건 설사업이 계속 지 연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사용후 연료봉 안전처리 작업을 유보할 것 임을 밝히고, ○ 현재 간첩혐의로 붙잡힌 미국인 에 반 현지크를 11월 중순께 석방할 계 획임을 미측에 전 달하였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은 북과 남의 동족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면서 T/S훈련의 재판인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 등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고 있음. ○ 회의에서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정당·단체들이 남조선 당국의 남북 폐쇄정책을 분쇄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할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채택하였음. 	
11. 6		<p>勞動新聞, '96 독수리 합동군사훈련 관련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사실상 간판만 바꾼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 현실은 조선반도의 긴박한 정세가 누구의 미사일시험이나 그 무슨 사건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증해 주고 있음. ○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와 전쟁의 화근을 없애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자면 낡은 정전장치를 새로운 평화보장장치로 구축하여야 하며, 당면하여 조·미잠정협정을 발족시켜야 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7		<p>勞動新聞, 韓·美 연례안보협의회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뢰들은 있지도 않은 북의 도발 위협을 코에 걸고 조·미관계개선에 제동을 걸며 외세와 야합 우리를 모해, 압살해 보려 하고 있음. ○ 최근 김○○집단은 정세를 계획적으로 긴장시키면서 북남관계를 전면 차단하는 것을 정책으로 선포하였음. ○ 조·미기본합의문의 이행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고 있음. ○ 미국은 괴뢰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에 놀아나지말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함. <p>平放, 美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재선 사실 보도</p>	<p>카트먼 美국무부 副次官補, 北韓 미사일 실험계획 中斷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를 위한 준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음.
11. 8	<p>金泳三 大統領, 잠수함 침투 謝過前 對北輕水爐 지원불가 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잠수함 침투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8	<p>한 어떠한 형태의 대북지원도 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국민감정이 북한의 사과없이 경수로 지원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현재 그 이행이 유보된 상태임. ○ 우리는 여전히 4자회담을 지지하지만 이는 북한의 사과가 선행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임. 		
11. 9		<p>勞動新聞, 『통일염원에 대한 노골적 도전』 제하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김○○은 남북협력동결, 인도주의사업 중단 등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망동을 부렸음. ○ 괴뢰들의 남북폐쇄정책은 민족적 단합을 막고 불신을 조장하는 대결 정책이며 지금 이 시각에도 T/S 훈련의 변종인 독수리 '96이라는 전쟁불장난을 벌여 각일각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음. ○ 우리는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참화를 몰아오는 괴뢰들의 남북폐쇄정책을 용납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통일에 역행하는 남북폐쇄정책을 완강한 투쟁으로 짓부셔 버려야 함. 	<p>美 국무부 분석관, 北韓今年食糧 170만톤 부족분석</p> <p>* 日 산케이 신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은 300만~350만톤인 반면 수요는 600만~650만톤에 이르고 있음. ○ 각국의 식량지원 약 80만톤을 합쳐도 최저 170만톤이 부족하며 올겨울 수만명이 아사할 우려가 있음.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0			<p>레이니 주한미대사, 北韓潛水艦浸透 사과해야 4자회담 가능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과거 도끼 만행사건이나 버마폭파사건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큰 사건에 대해 사과한 전례가 있음. ○ 이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4자회담을 위한 공동설명회 개최도 가능할 것임.
11. 11		<p>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공동설명회 거부시사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미국측은 남조선과 함께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4자회담 제안에 대한 공동설명에 나오지 않겠다고 여론화하고 있음. ○ 미국측이 이제 와서 4자회담 공동설명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4자회담 자체를 그만 두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p>퀴노네스 美국무부 분석관, 남북·미북 관계 내년 봄 해빙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내년 봄 해빙되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군유해 송환작업도 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1		<p>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기자가 스스로 자기의 제안을 철회하려 한다면 우리로서도 구태여 그에 대한 설명을 꼭 들어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p>중방, KEDO 제공 '96년분 중유 50만톤 전량 납입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주도 KEDO는 금년분 중유 50만톤을 10.31 현재 전량 납입하였으며, 제네바 합의 이후 총 65만톤을 납입하였음. <p>민항총국장 김요웅, 북한영공 개방 시 남한포함 언급</p> <p>*중앙일보 (1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달부터 발효되는 북한영공 개방은 국제민항의 신행로 개설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여기에는 남한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임. 	<p>작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올해 곡물 생산량이 줄어 내년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11. 12	<p>대법원, 북한국적 중국교포 대한민국 국민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은 중국여권소지 북한주민 이영순(56, 여)의 퇴거명령처분 무효소청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음. ○ 재판부는 헌법제3조와 국 	<p>노동신문, 김영삼 대통령의 美W.P 지 회견 관련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뢰역도는 며칠전 미 W.P지의 회견에서 당국간 대화를 포함하여 북과의 모든 대화를 차단하겠다는니 북의 침투에 대비하여 전쟁준비를 완료하겠다는니 하였음. 	<p>데이비스 美국무부 대변인, 잠수함 침투 사건 긍정적 조치 대북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으로 남북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북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2	<p>적법 제2조에 따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뢰들은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앞길에 600여리 콘크리트분열장벽보다 더 높은 정치적 장벽을 쌓으려 하고 있음. ○ 김○○이 북과 남 사이의 폐쇄의 장벽을 높이 쌓고 조·미기 본합의문 이행에 훼방을 놓으려 해도 소용없음. ○ 우리와의 대결과 전쟁을 이중 삼중으로 선포해나서는 김○○일당을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도발자들에게 천백배의 징벌을 안길 것임. 	<p>은 잠수함사건 이후 대화분위기 개선을 위해 긍정조치를 취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잠수함침투사건의 해독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11. 13	<p>정부, 판문점 『자유의 집』 신축 착공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자유의 집』은 지상 4층, 연건평 1,500평 규모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남한측 기존위치에 세워짐. ○ 97. 12 완공되는 이 건물에는 남북교류 지원시설, 남북연락사무소,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 이산가족 상봉센터, 프레스센터 등이 입주, 사실상 남북출입국 관리센터의 	<p>勞動新聞, 민주노총 창립 1돌 노동자대회 관련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들이 투쟁의 불을 지폈다』 ○ 노동자들은 파쇼적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만약 당국이 이에 저축되게 개정을 강행한다면 남조선 전역에서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남조선 노동자들이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법에 대해 말하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노예적 노동을 강요하는 반인민적 파쇼악법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3	기능을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청년학생등 각계층 민주세력과 김○○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의 불을 계속 지펴야 할 것임. 	
11. 14		<p>조선불교도연맹 대변인, 남한의 진관스님등 구속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활동은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 살건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거족적인 운동으로서 이에 대하여 죄를 논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임. ○ 북과 남의 불교도들이 각각 자기측 사찰들에서 통일을 기원하며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팩스를 주고 받은 것이 죄로 될 수 있는가. ○ 김○○일당은 위협천만한 남북 폐쇄정책을 당장 걷어치우고 부당하게 체포 구속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여야 함. 	유엔사·북한, 무장잠수함사건 관련 비서장급 접촉(판문점)
11. 15	<p>權五琦 統一副總理, 5, 6개월내 남북간 접촉전망</p> <p>*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명백한 시인사과와 재 	<p>부총리겸 인민봉사위원장 공진태, 국제사회 식량원조 요청(로마)</p> <p>* 세계식량정상회의(WF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 대표가 대안을 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5	<p>발방지조치 없이는 어떠한 대북지원도 할 수 없으며, 북한은 결국 사과하게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웅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이 체육회담 등을 제의해온 전례를 볼 때 5~6개월내 남북간 접촉의 길이 열릴것으로 전망함. ○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에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와관련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p>때문에 각국 대표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압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여야 함. <p>中通, 核凍結 해제위협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남조선 괴뢰들의 남북폐쇄정책에 맞장구를 치면서 합의문의 핵심사항인 경수로 제공문제에 전제를 붙여 그 이행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음. ○ 우리의 핵동력 개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며 여기에서 시간은 사활적인 것임. ○ 우리는 경수로 제공관련 시한문제를 차요시한채 언제 중단될지 모를 중유나 제공받으면서 핵활동을 무한정 동결시킬 수 없음. 	
11. 16	<p>權五琦 統一副總理, 統一安保政策調整會議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는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및 남북접촉 등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명시적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보 	<p>『조평통』, 조건부 대북지원 유보방침 관련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이 북남전쟁 책동에 열을 올리고 공공연한 폐쇄정책에 뒤이어 책임있는 당국자가 직접 대화부정선언을 한 것은 방임해 버릴 문제가 아님. ○ 남조선통치배들이 폐쇄정책과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6	<p>장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음.</p> <p>○ 또한 4자회담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되 미·북 제네바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 APEC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p>	<p>전쟁도발책동으로 대결을 강요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자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p>	
11. 17			<p>中國 張庭廷 주한대사, 4자회담 성사기 대 표명</p> <p>○ 4자회담이 성사돼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길 희망하며 중국은 이 과정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임.</p> <p>○ 남북간 협의를 통해 정전협정이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그전까지는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무력충돌 가능성관련 중·미·일 등이 원치않고 북한도 이를 잘알고 있기 때문에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11. 18	<p>統一院 대변인, 北韓의 潛水艦·승무원시신 送還要求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이른바 『조선중앙통신사』 명의로 최근의 무장공비 침투관련 잠수함과 승무원시신 송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재차 위협해 나왔음. ○ 이번 사건은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북한이 중무장한 잠수함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 정탐행위를 하고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함으로써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유린한 무력도발 행위임. ○ 북한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면서 상습적으로 보 	<p>中央通信社, 潛水艦등 송환거부시 대남보복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구실로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2중 3중의 반민족적,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남조선 당국은 우리측 인원들을 무참히 살해한 살륙만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희생된 우리측 인원과 잠수함을 빠른 시일안으로 무조건 돌려보내야 함. ○ 우리는 빈말을 좋아하지 않으며 보복을 한다면 하고 피값을 받아낸다면 받아내는 것이 우리군대와 인민의 기질임. <p>金正日, 조선인민군 제185군 부대 視察</p> <p>*이을설, 현철해, 이명수 등 동행</p>	<p>국제적십자사연맹, 對北 제3차 구호금 모금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구호금으로 1,050만달러를 모금키로 하였으며, 북한의 식량부족은 거의 불가항력 상태임. ○ 북한의 금년 수확량은 내년 동기까지 필요량 5백여만톤의 60%인 3백만톤 가량에 불과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8	<p>북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해야 할 것임</p>	<p>勞動新聞, 日당국의 對北關係 개선 표명 관련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제2기 하시모토정부의 외교당국자가 남조선 괴뢰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의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의향을 표명하였음. ○ 조·일관계에서 전진이 없는 것은 지난 시기 일본이 독자성이 없는 대조선정책을 실시하여 온 것과 관련되어 있음. ○ 일본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조·일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면 제정신을 가지고 독자적 입장에서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임. 	
11. 19	<p>統一院 대변인, 北韓의 판문점 연락사무소 撤收 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북한의 조치는 남북 	<p>中央通信,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및 업무중지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 남북폐쇄정책을 방침으로 확정한 남조선 당국자는 지난 11월 9일 워싱턴 포스트지와 의 회견에서 우리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음. ○ 이러한 형편에서 북과 남 사이의 대화 연락과 실무적 협의를 말아보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그 존재 의미가 없게 되었음. ○ 우리는 1996년 11월 20일부터 	<p>IAEA 데이비드 키드 代辯人, 북한핵동결 준수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최근 핵합의 파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IAEA 사찰활동에 협조적임. ○ 북한의 핵동결 계획에 변동사항은 없으며 '94체결 제네바 핵합의는 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9	<p>대화의 중단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남북당국이 함께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유린하려는 행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북한이 이같은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북측 연락사무소를 원상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관련 비이성적 행위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재발장지를 약속할 것을 재차 촉구함. 	<p>잠정적으로 판문점 우리측 연락사무소 대표들을 철수하고 그 업무를 중지할 것임.</p> <p>사회민주당 대변인, 남북 폐쇄정책 관련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자들이 추구하는 남북폐쇄정책이란 북과 남의 민족적 유대를 끊어 남남끼리 만드는 회세의 민족분열 정책임. ○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남조선통치배들의 남북폐쇄정책을 분쇄하고 평화통일 투쟁에 떨쳐나서야 함. <p>金正日 名題碑 『조선아 너를 빛내리』 제막식(김일성대학)</p> <p>* 계응태, 김기남, 김복신, 장철 등 참석</p>	<p>수되고 있음.</p> <p>데이비스 美국무부 대변인, 북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지난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설치된 실무창구임. ○ 지난 5년동안 합의서에 규정된 남북한 접촉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으로 보임. <p>유엔사·북한, 무장잠수함침투관련 비서장급 접촉(판문점)</p> <p>*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옴스대령,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부대표 박임수 대좌 등 참석, 11.26 재개합의</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0		<p>中放,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는 응당한 조치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도당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물론 민간급의 대화나 접촉까지 봉쇄함으로써 동족사이의 혈연적 유대는 끊어질 위협에 처하였음. ○ 대화분위기는 고사하고 대화라는 말조차 필요가 없게 된 조건에서 우리가 판문점 우리측 연락사무소 대표철수 및 업무를 중지시킨 것은 응당한 조치임. ○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김○○집단의 대화부정, 통일부정적 채동을 짓부셔버리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서야 함. 	<p>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중국 4자회담 참여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택민 주석, 이봉총리, 전기침 외교부장 등과 연쇄 회담 ○ 우리는 중국의 한반도 4자회담 참여 용의를 확인해왔으며, 중국에 대해 4자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11. 21		<p>金正日, 북한군 제3차 청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금수산 기념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광, 이을설, 조명록, 현철해, 김하규 등 참가 <p>勞動新聞,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조치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괴뢰들은 11.19 통일원 대변인 성명에서 대화중단 책임을 전가하고 도리어 우리보고 	<p>日 요미우리신문, 북한 잠수함 사건 유감 표명 가능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10.23 뉴욕에서의 미·북 실무협약에서 한국의 유감표명 용의를 전달한 바 있음. ○ 북한이 명확하게 사죄표현을 쓸 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1		<p>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원상회복 시키라고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괴뢰들은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휴지화하고 대화중단 책임이요, 남북합의서 유린이요 하는 것은 철면피한 짓임. ○ 괴뢰들은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남북폐쇄정책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p>능성은 적으나 어떤 형태로든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할 가능성이 높음.</p>
11. 22		<p>『적십자회』 중앙위, 남북폐쇄정책 관련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통치배들의 남북폐쇄 정책으로 북남간 접촉과 대화는 물론 민간인들의 인도주의 사업까지도 일체 봉쇄되고 있음. ○ 북과 남 해외의 온겨레는 굳게 뭉쳐 남북폐쇄정책을 짓부셔 버리고, 세계 적십자단체들과 인권 기구들은 우리 통일위업에 연대성을 보내주리라 기대함. <p>※ 『직맹』위원장 담화(11.24)</p> <p>※ 기독교도연맹위원장 담화(11.24)</p>	<p>日 NHK-TV, 북한핵 연료봉 저장작업 중지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 연료봉 저장작업은 96. 5부터 미국인 기술자 등 10여명이 북측에 협력형식으로 진행, 현재 절반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11월초 북한은 봉인 작업원에게 휴가형식으로 작업을 중단시켰으나 휴가종료후에도 여전히 작업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2			재개를 하지않고 있음.
11. 23	<p>國防部 代辯人, 서해상표류 북한군 1명 救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해경정은 서해 연평도 서남방 21마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전마선 1척과 승선 북한군 병사 정광선을 구조하였음. ○ 구조된 북한군 병사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군사정전위를 통해 조속 송환할 예정임. 	<p>金正日, 서해안 전방초소 초도방어대 視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록, 현철해, 김하규, 장성우, 박재경 등 동행 <p>적십자회 대변인, 표류북한사병 송환 요구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일 황해남도 응진 앞 바다에서 조선 인민경비대 7605군부대 상등병 정광선이 파도에 밀려 1.5톤 소형어선과 함께 장시간 표류하던 중 22일 남측에 억류되었음. ○ 남측은 뜻하지 않게 남쪽으로 떠 내려간 우리 조선인민경비대 병사를 즉시 돌려보내야 할 것임. <p>金正日, 조선인민군 해군 제154군부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록, 김일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심상대등 동행 	
11. 24	<p>金泳三 대통령, 美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마닐라)</p> <p>〈공동 언론발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대통령은 제네바 합 	<p>金正日, 北韓軍 판문점대표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록,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등 동행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4	<p>의가 계속 이행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또한 4자회담을 계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제반상황으로 볼 때 4자회담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증대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이를 수락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기로 함. ○ 북한이 잠수함 사건을 해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앞으로 유사한 도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측이 수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은 판문점대표부에 이어 김일성 친필비, 판문각, 통일각, 정전담판회의장, 정전협정 조인장 등을 돌아보았음. 	
11. 25	<p>外務部, 한미정상회담 관련 언론설명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꼭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며 사과와 재발방지가 없이는 잠수함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 ○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실제 받기 	<p>빌 리처드슨 美하원의원 일행 평양 도착</p> <p>*'94. 12, '96. 5에 이어 3번째 방북</p>	<p>데이비스 美국무부 대변인, 『의미있는 제스처』 대북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잠수함의 한국영해 침범 및 수십명의 요원들이 상륙한 것은 매우 도발적인 행동임. ○ 북한이 한국에 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5	<p>위해서는 미국의 동참이 긴요하며 그것이 바로 금 번 한·미 공동발표의 초 점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기 하고 경수로 합의이행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 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 와 재발방지 약속이 불가 결함. ○ 4자회담이 개최되는 경우 첫번째 처리해야 할 과제 는 북한잠수함 침투에 대 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 을 받는 문제가 될 것임. 		<p>해 의미있는 제스 처를 취하면 남북 관계는 치유되어 종전과 같은 단계 로 돌아오게 될 것임.</p> <p>주일 미대사관, 북한 억류 현지커 석방에 정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하원 리처드슨 의원이 군용기편 으로 日요코다 미 군기지를 출발하 여 11.25 입북하 였음. ○ 북한억류 현지커 (26)와 함께 11. 26 북한을 떠나 도쿄로 돌아올 예 정임. <p>제4차 아태경제협력 체(APEC) 정상회의 개최(마닐라)</p>
11. 26	<p>北韓軍人 정광선(20) 북한 송환(판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정광선 본인의 회 망에 따라 판문점 군사정 	<p>『문예총』 委員長 백인준, 남북폐쇄 정책 관련 談話</p> <p>中·平放, 북한군인 정광선 송환 보도</p>	<p>유엔사·북한, 잠수 함 사건 관련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 (판문점)</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6	<p>전위를 통해 송환됨.</p>	<p>○ 군사업무 수행중 표류 남측에 의해 납치, 억류되었던 정광선이 11.26 판문점을 거쳐 돌아옴.</p> <p>노동新聞, 『분단장벽을 폭파해야 한다』 제하 논평</p> <p>○ 김○○이 최근 남북폐쇄를 정책으로 선포한데 이어 대화포기 선언까지 하면서 북남대결과 전쟁책동을 감행했음.</p>	<p>* 12.3 재접촉 합의</p> <p>로드 美국무부 차관보, 대북경수로 지원 수주내 진전표명</p> <p>○ 지금 당장 북한에 기술자가 파견되는 않더라도 수주내 대북경수로 사업은 진전될 것임.</p> <p>○ 북한은 한반도 주변의 분위기 개선을 위해 적절한 제스처를 취해야 할 것임.</p>
11. 27	<p>金泳三 大統領, 4者會談에서 사과맨 수용 표명 기자회견 (팔리룸푸르)</p> <p>○ 한미공동발표문의 『수락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 국민이 수락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의미함.</p> <p>○ 4자회담에서 잠수함침투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함.</p>	<p>中·平放, 리처드슨 美 하원의원 방북 관련보도</p> <p>○ 체류기간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등과 조미기본합의문 이행문제, 미국인 불법 입국자문제, 기타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관련 행동조치를 취하기로 했음.</p> <p>* 11.27 평양출발</p>	<p>리처드슨 美 하원의원, 방북후 일본 요코다 기지 도착 기자회견</p> <p>○ 현지커(26) 석방은 전제조건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잠수함 침투사건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p> <p>○ 북한 강석주 부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남북대화가 없이는 경수로 건설도, 식량 문제 해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 		<p>장 등과 접촉하여 석방교섭을 벌였으며 체북기간 잠수함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미군유해 발굴 제2차 미북 합동조사단 입북을 연내 허용할 것임을 밝혔음.
11. 28		<p>平放,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의 4자회담 중재요구 관련 論評</p> <p>* 11.20 중국 방문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미 국무장관이 4자회담과 북남대화에 응해 나오도록 우리에게 대한 설득을 누구에게 청하는 등 이러저러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음. ○ 우리는 미국측이 회담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없다면 그러한 형식의 회담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는 데 대해서 명백히 밝혔음. ○ 미국은 조선반도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이라면 제3자를 끌어들이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수립제안에 응해 나서야 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9		<p>중통, 경수로제공 지연시 미북합의문 파기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착공단계에 들어갔어야 할 경수로 제공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조미기본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 ○ 주지하는바와 같이 조미기본합의문의 핵심사항은 미국의 경수로제공 對 우리의 핵동결임. ○ 경수로제공이 지연되거나 파탄된다면 조미기본합의문도 깨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KEDO의 존재명분도 없음. 	
11. 30		<p>노동신문, 『누구의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제하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4자회담과 북남대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대한 제3자의 설득이니 뭐니하며 돌아치고 있음. ○ 애당초 우리는 목적도 내용도 분명치 않은 4자회담 제안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거기에 기대를 가져본적도 없음. ○ 우리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으며 4자회담문제도 북남대화문제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임. 	<p>리처드슨 美 하원의원, 북한 유감표명 가능성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잠수함침투 사건관련 막대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주내 유감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만약 유감이나 회개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당한 진전이 일탈될 것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	<p>통계청, 남북한 전체인구의 83.9%가 전후세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올해 남북한 총인구는 68,806천명(북한 23,558천명)이며 이중 83.9%가 전후세대임. ○ '95현재 남한의 GNP는 북한의 20.3배, 1인당 GNP는 10.5배, 무역총액은 126.9배이며 '90이후 6년째 연평균 마이너스 4.5% 성장임. ○ '96. 5 기준 북한암시장에서의 쌀가격은 국정가격보다 무려 1,238배나 달해(1kg당 국정가격 31원, 암시장 38,400원) 북한식량난을 시사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지침에 따라 89~96.6기간 북한방문은 93건에 1,321명, 남한방문은 12건에 575명, 제3국 접촉은 1,831건에 5,674명이 성사되었음. 	<p>金正日, 조선인민군 유경수 105탱크부대 視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행자 : 현철해, 박재경,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등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3		<p>中放, 무장공비 사과문제 관련 논평</p> <p>*『비열한 책임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사건이란 황당하기 그지없는 모략극을 꾸며놓고 사과가 있기전에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떠드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격의 파렴치한 수작임. ○ 대화를 통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임. ○ 문제는 남북폐쇄정책을 취소하고 우리의 유고시 저지른 반대화적 반인륜적 야만행위에 대해 민족앞에 사죄해야 함. 	<p>유엔사·北韓, 제6차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판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측 움스대령, 북측 박임수 대좌 ○ 양측은 사살된 무장공비 시신 송환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음.
12. 4		<p>中放, 이른바 남북폐쇄정책관련 대남 선동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폐쇄정책에 따라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 사이의 대화는 물론 민간급의 그 어떤 접촉이나 지어 해외에서의 접촉마저 완전히 봉쇄되고 있음. ○ 김○○일당이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적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초토화공세를 벌이고 반공화국 모략사건들을 날조하고 있는 것도 남북 폐쇄정책의 일환임. ○ 만약 김○○일당의 이러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들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4		<p>저지 분쇄하지 못한다면 우리 겨레는 통일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도 보존할 수 없음.</p> <p>정광선 환영 평양시청년학생집회 (평양체육관)</p> <p>* 표류중 구조송환(11.26)</p>	
12. 5	<p>金泳三 大統領, 북한의 사과 없이 대북지원 不可 언명</p> <p>* 통합방위 중앙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우리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북한이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마무리 될 수 없음. ○ 남·북한간 직접대화 없이는 어떠한 남북경제협력이나 지원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 ○ 우리 국민과 정부, 군은 내부결속을 단단히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함. <p>外務部 代辯人, 탈북북한인 17명 홍콩경유 귀순요청 발표</p>	<p>勞動新聞, 南韓의 노동법 개정문제 관련 선동 논평</p> <p>* 『노동자들을 기만우롱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뢰들은 이번에 확정한 노동법 개정안에서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도 박탈하고 있는 노동3권 금지조항들을 하나도 폐지하지 않았음. ○ 남조선 노동자들은 괴뢰들의 기만적인 노동법 개정안에 유혹됨이 없이 노동의 권리와 생존권에 대한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함. 	<p>日 NHK, 崔德根 영사 屍身 毒극물 검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0.1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살해된 최영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부검결과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란 독극물이 검출되었음. ○ 이 독극물은 '95. 10 한국에서 체포된 북한특수공작원이 갖고 있던 만년필형 총기속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형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0.26 북한을 脫出한 재미교포 최영도(79세)의 재북 딸 최현실(57세)일가족 등 北韓人 17명이 11.23 홍콩에 밀입국 귀순을 요청하였음. ○ 동 탈북자들은 함북 회령 거주 최현실 부부와 이들의 5자녀 가족 16명 및 탈북을 도와준 사회안전부 안전원 최영호 등임. ○ 최현실의 남편 김경호(62세)는 6.25 당시 拉北된 자이며 탈북자들 중에는 1명의 임신부와 5명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음. 		
12. 7		<p>『조평통』 대변인, 잠수함 및 유해 승환 促求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통치배들이 잔인하게 학살한 것만도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인데 그 시체마저 정치적 흥정의 제물로 삼으려는데 용납할 수 없음. ○ 우리는 이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군인들을 잃은 피해자로써 가해자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음. ○ 그들이 시체마저 돌려보내지 않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7		<p>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살인마들에 대한 우리의 보복 의지는 보다 커지게 될 뿐임.</p> <p>金正日, 창립 50돌 즈음 김일성종합대학 訪問</p> <p>* 계웅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등 동행</p> <p>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위, 김인서 등 송환운동관련 공보발표</p> <p>* 계웅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등 동행</p>	
12. 8		<p>金正日, 강건종합군관학교 視察</p> <p>*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계웅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이용철 등 동행</p>	
12. 9	<p>脫北 北韓人 17명 入京</p> <p>○ 지난 10.26 북한을 탈출한 김경호(62) 일가족 등 17명이 홍콩을 출발 서울에 도착하였음.</p> <p>任台淳 남북회담사무국장, 김정일 '97. 9~10월 권력승계 발언</p>	<p>노동신문, 대북경수로 지연 관련 논평</p> <p>○ 최근 남조선괴뢰들이 기술인원들의 신변위협을 떠들면서 경수로건설 사업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음.</p> <p>○ 우리와 KEDO 사이에는 이미 영사보호에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고 합의되어 신변위협이란 제</p>	<p>美·北韓, 잠수함사건등 관련 실무 接觸 (뉴욕)</p> <p>* 美 국무부 마크민튼 한국과장, 북한 외교부 미주국장 이형철</p> <p>○ 양측은 북한잠수함사건으로 교착</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9	<p>* 남북문제 원로지도자 간 담회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황장엽 당비서가 金正日이 '97.9~10월경 당총비서직을 공식 승계할 것이라고 중국측 인사에게 밝혔음. ○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궁극적 해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 유지하는 넓고 긴 안목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마닐라 韓美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정부입장은 4者회담과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해결의 병행추진임. 	<p>기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실정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북남관계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해 보려 하고 있음. ○ 만일 미국이 기본당사자로서 남조선괴뢰들의 풍에 놀아나다가는 조미기본합의문의 이행뿐 아니라 기본현안문제도 기대할 수 없게 될것임. <p>北韓赤十字會, 잠수함 등 송환요구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사과'가 없이는 북남관계의 개선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잠수함과 희생된 군인들의 시체까지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음. ○ 우리는 지난시기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측 지역에 불법침입적대행위를 일삼은 도발자들의 시체들도 돌려보냈으며 또한 40여년전 조선전쟁시 유골들까지 보내주고 있음. ○ 남조선 당국자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하며, 시간을 끌면서 복잡하게 만들면 좋은 결과가 차려지지 않을 것임. 	<p>상태에 빠진 남북한 및 미북관계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였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0	<p>權五琦 통일부총리, 통일관 계장관회의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에서는 '97 통일대비 요원 양성계획 및 통일관 계장관회의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토의가 있었음. 		
12. 11		<p>平放, 이른바 남북폐쇄정책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당이 동족 사이에 반목과 대결을 더욱 조장시키는 길로 나아감으로써 오늘 북남 사이에는 대화의 분위기는 고사하고 대화와 접촉의 가능성마저 사라졌음. 김○○일당의 남북 폐쇄정책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불신을 조장하는 대결정책이며 전쟁도발 정책임. <p>外交部長 김영남, 북한경제위기 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獨 ZDF TV 회견 지난해부터 발생한 홍수와 동유럽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해 대외무역 상대국이 사라지면서 북한 경제가 붕괴위기에 놓여있음. 독일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시키 	<p>美·北韓, 제2차 실무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 국무부 마크민튼 한국과장, 북한 외교부 미주국장 이형철 양측은 잠수함사건, 4자회담, 대북 경수로지원 등 현안문제를 협의하였음. <p>美 CIA 도이치 국장, 북한진로 3가지 시나리오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장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특정한 사안 때문에 한국을 침공하든가, ii)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자체붕괴하든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1		<p>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독일기업들의 적극적인 對北투자를 희망함.</p>	<p>가, iii) 뒤늦게 한국과의 평화적 해결이나 통일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p> <p>○ 앞으로 북한이 이중 어떤 진로를 택할지는 불확실하나 향후 2~3년 내에 가려질 것으로 보임.</p>
12. 13	<p>統一院 代辯人,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즈음 대북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일은 어떤 구실로도 정당할 될 수 없음. ○ 북한은 기본합의서 실천 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으며 핵위협과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였음. ○ 최근에는 잠수함을 이용, 	<p>北韓赤十字會 위원장대리 이성호, 김인서 송환촉구 대남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월말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인서노인이 그동안 전문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10월중순에 이르러 겨우 병원에 옮겨졌으나 병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함. ○ 김인서노인의 병이 계속 악화되는 형편에서 만일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 북남관계개선에도 이롭지 못하고 적십자인으로서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임. ○ 나는 이미 우리가 제의한대로 김인서노인의 두딸과 의료진이 현지에 나가 응급치료하도록 하며 그를 송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3	<p>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관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p> <p>○ 우리는 잠수함 침투사건 관련 사과와 재발방지약속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p>	<p>勞働新聞,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5돌 즈음 논평</p> <p>* 『북남합의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p> <p>○ 김○○일당은 북남합의서 정신을 난폭하게 짓밟고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대결전쟁책동에 미쳐 날뛰며 그 무슨 간첩사건이라는 반공화국 모략사건을 조작하였음.</p> <p>○ 괴뢰도당은 북남 관계를 전면 폐쇄한다는 것을 정책으로까지 선포하고 북남 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가로막으며 대결전쟁 소동을 일으키고 있음.</p> <p>○ 현실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대결전쟁책동이 중지되고 조·미간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위기도 마련될 수 있음.</p>	
12. 14		<p>勞働新聞, 『부당한 기도는 통할 수 없다』 제하 논평</p> <p>○ 일본 자민당의 4자회담을 보완하는 『동북아 안보대화연단 설치』 표명관련 4자회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지 그 누가 여기에 끼어들 문제가 아님.</p>	<p>일·북 과장급접촉 4개월만에 재개</p> <p>* 日 마이니치신문 12. 18 보도</p> <p>○ 이철진 외교부 일본과장과 벳쇼 고로 외무성 동북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조선반도 문제를 국제화 하여 거기에 끼어들어 동북아시아에서 저들의 영향력과 세력권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보려하고 있음. ○ 북남 대결상태가 완화되지 않고 그리고 조·일, 조·미간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조선문제의 논의를 포함한 그 어떤 4자회담이나 4자간 안보대화도 이룩될 수 없음. 	<p>시아과장 간 진행, 을들어 네번째 접촉</p>
12. 15	<p>韓·日의원연맹 서울총회, 잠수함침투 사과 대북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및 세계 전체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4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임을 재확인함. ○ 북한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북한은 한국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p>金正日, 김일성정치대학 視察</p> <p>*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장성우, 박재경, 이명수, 김대식 동행</p>	
12. 16		<p>勞動新聞, 『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행동』제하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일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과 함께 오끼나와 미 공군기지 	<p>中 新華通信, 북한점경지역 불법무역 집중단속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8월말부터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6		<p>에서 출격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참가하에 남조선의 전방지역에서 저고도 침투비행기대처 합동훈련이라는 또하나의 도발적인 전쟁불장난을 감행하였음.</p> <p>○ 오늘날 조선반도에서 실제로 위협을 조성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의세와 야합하여북침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김○○호전집단임.</p>	<p>최근까지 3개월간 중·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불법무역, 밀수, 밀항, 월경어로 등에 대한 집중단속, 불법활동 414건 적발</p> <p>제3차 미·북실무접촉 진행(뉴욕)</p>
12. 17	<p>유종하 외무장관, “대북경수로사업 정상화 위해 북한사와 필수” 언급</p> <p>*국회 안보·통일정책연구회 초청 오찬 간담회 주제발표</p> <p>○ 대북 경수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필수적임.</p> <p>○ 한반도 4자회담이 개최되면 경제협력 테두리내에서 북한의 식량문제 협의가 가능할 것임.</p> <p>탈북 김경호씨 일가, 기자회견</p>	<p>김정일, 강동정밀기계공장 노동계급이 지은 주택마을 시찰</p> <p>*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용순, 최용해, 박송봉, 이용철, 문성술 등 동행</p>	<p>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 대북현안 관련 포괄타결 언급</p> <p>*이탈리아 외무장관 회담전 기자질문에 답변</p> <p>○ 북한이 입장을 바꿀 경우 북한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문제 검토 중</p> <p>제4차 미·북 실무접촉 진행(뉴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식량사정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 지난 1월 식량배급이후 지금까지 중단됐음. ○ 양식과 피복 등 전쟁물자 100% 완비, 군의 사기차원에서 외제담배 지급 <p>『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p> <p>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의 『통일정책 선언』 발표</p> <p>* 한국교회의 통일정책 선언을 위한 공개정책회의 (한국교회 1백주년기념관)</p>		
12. 18	<p>김석우 통일원 차관, 『민주평통』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정책 추진방향』 ○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등 납득할 만한 조치 재촉구 <p>※ 민주평통 운영·상임위</p>	<p>『조평통』 대변인, 탈북자 수용시설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괴뢰들이 군사분계선 가까운 지역에 그 무슨 탈북자수용시설이라는 것을 내년부터 시작하여 내후년까지 완공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 ○ 남조선 괴뢰들이 범죄자들을 난민으로 보호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민에 대한 노골적 	<p>북한 인권상황 “전세계 최악” 보고(미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 연례평가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자유롭지 못한(not free) 국가로 분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부정되고 주민들이 모든 면에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8	<p>원, 『통일정책에 관한 건의안』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함사건 관련 북의 사과·재발방지 약속없이는 경수로 지원을 포함한 협력 유보 ○ 한반도 안보 관련사항의 미·북협상 반대, 북한의 기본합의서 이행 및 남북 대화 호응 촉구 ○ 남북대화·경협, 경수로 지원은 상호주의에 입각 신중한 접근 촉구 	<p>인 도전이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띤 반공화국 도발행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반공화국 모략소동을 만들어낸다면 모든 후과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임. <p>金正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5돌 기념중앙연구회 진행(12. 18, 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성철, 최대북, 김기남, 장철 등 참가 	<p>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자유스러운(free) 국가’로 분류 <p>북한역류서 석방된 현지커씨 숨진채 발견, 현지경찰 자살추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NBC방송 보도
12. 19			<p>장성택, 김정일 내년 7월 주석취임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교도통신 ○ 지난 11월말 중국 비밀 방문시 중국 측에 설명 <p>제5차 미·북실무접촉 진행(뉴욕)</p>
12. 20	<p>권오기 통일부총리, “잠수함 사건 해결되면 식량지원 검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총리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p>전국 『농근맹』 모범초급단체 위원장대회 진행(12.19~20, 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중린, 최성숙 등 참가 	<p>번스 美국무부 대변인, 미·북실무접촉 장기화 가능성 언급</p> <p>제6차 미·북실무접촉 진행(뉴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1	<p>김영삼 대통령, 잠수함 사건 관련 북한의 분명한 사과, 재발방지약속없는 한 대북 지원 불가 강조</p> <p>*특전사·동부전선 시찰시</p>		<p>제7차 미·북 실무접촉 진행(뉴욕)</p> <p>북 외교관 몽골서 10만 불어치 위폐사용 보도(日 교도통신)</p> <p>*몽골 정부기관지 『국민의 권리』 인용 보도</p>
12. 22		<p>『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 호소문 발표</p> <p>*『일본군에 의한 중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피해자 단체들, 세계 진보적인 단체와 인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p> <p>○ 우리는 일본정부가 지난 시기처럼 반성이요, 사죄요 하면서 빈말만 하지 말고 국민기금을 즉각 철회하며 국가적 법률적 책임으로 20여만의 전체 중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함.</p> <p>○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와 유엔의 결의대로 국가적 책임인정과 국가적 법적 배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성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자는 것을 피해자들과 피해자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2		체 인사들, 전세계 여성들에게 호소함.	
12. 23	<p>권오기 통일부총리, 미·북 실무접촉 및 최근 북한정세, 러·독 방문결과 청와대 보고</p> <p>○ 러 방문중 열린 대통령에 김대통령 친서 전달, 4자 회담 성사 및 잠수함 사건 해결을 위한 북한 설득에 협조 요청</p>	<p>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5돌경축 중앙보고대회(4·25 문화회관)</p> <p>*당·정·군 고위간부 참석, 조명록 보고</p> <p>○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군 건설과 함께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음.</p> <p>○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혁명전사들의 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첫째가는 의무임.</p> <p>○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도당의 광란적 전쟁도발책동을 결코 무심히 대할 수 없으며,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사소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임.</p>	<p>제8차 미·북 실무접촉 진행(뉴욕)</p> <p>북한, 대만 핵폐기물 인수 강력희망(대만 『自由時報』 보도)</p> <p>○ 북 노동당 중앙위원 등 대표단(12. 11 대만 도착), 대만 전력공사와 협의 진행, 조만간 추가협의 예정</p>
12. 24	<p>통일원, 『남북교역추진현황(1988~1996)』 발표</p> <p>○ 남북교역 시작 7년6개월 만에 교역총액 10억달러 돌파 밝힘.</p> <p>○ 올 6월말까지 반입 3천</p>	<p>김정일, 조선인민군협주단·공훈합창단 공연 관람</p> <p>영화제작업자 백홍룡(30세, 남누리영상), 부인과 함께 『의거입북』 보도</p>	<p>김정일 내년여름 중국 공식방문의사 통보 보도(日 산케이신문)</p> <p>*장성택 당중앙위 제1부부장 비밀방중시(11.26~30) 전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4	8백38건에 9억5천9백만 달러, 반출 3천1백6건에 1억4천3백만 달러로 총교역액은 11억2백만 달러였음.		<p>中·北, 최초로 해상 무역 합법화(연합통신 현지신문 인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은 최근 요녕성 단둥시 大臺子항과 평안북도 선천군 牛里島를 『해상무역 통행지역』으로 지정, 합법화 ○ 금년 하반기들어 단둥시 寬田 滿族자치현 압록강변에 대북한 변경무역 거래지점 두곳을 새로 설치 ○ 요녕성 변방국(국경관리사무소) 대표와 평북사회안전보위부 대표간 내년 1.1부터 해상무역지역의 양국 국민 출입허용에 관한 협정 체결
12. 25	『민변』, 대북 쌀지원 성금 1천1백20만원 전달 방침 발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북한 쌀 보내기 운동’ 모금액 전부를 26일 스위스의 세계 기독교교회협의회(WCC)를 통해 북측 ‘큰물피해 대책위’에 전달할 계획임. 		
12. 26	<p>통일원 대변인, 『민변』의 대북 쌀지원계획 일단 유보 발표</p> <p>權五琦 통일부총리,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주재</p>	<p>노동신문, 김인서 송환요구 관련 논평</p> <p>*「송환요구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2.13자 적십자회의 긴급서한에서 요구한 사항에 오늘까지도 남측은 아무런 응대도 없으며 김인서노인의 병치료와 송환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음. ○ 김인서 노인을 지금상태로 방치할 때 그의 생명이 담보될 수 없음이 명백함. ○ 만일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경우 북남관계는 더욱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남측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 <p>큰물피해대책위원회 식량 상무 남영애, 내년 3월이후 식량문제 곤란 시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6		<p>*내외통신 『조선신보』 인터뷰 인 용보도</p> <p>북·러 정부간 문화협조에 관한 협 정 조인(평양)</p>	
12. 27		<p>『범민련』 북측본부·남조선 통일애 국인사 석방대책 북측위원회, 공동 성명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2.23 대법원은 범민련 남 측본부 강희남의장을 비롯한 범 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고 그들에게 징역 형을 확정하는 만해를 감행했음. ○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이 남조 선에서 미군의 철수와 연방제통 일을 주장한 것은 민족의 지향 을 반영한 것으로 지극히 정당 한 것이었음. ○ 남조선 통치배들은 강의남의장 을 비롯한 범민련 남측성원들에 대한 탄압을 즉시 철회하고 그 들을 당장 석방해야 함. 	<p>제9차 미·북실무접 촉진행(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함사건 사과 문안타결, 유해송 환 합의 보도(연 합통신 뉴욕발) <p>중·러, 국경병력 감 축합의(모스크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러 李鵬 총리 엘 친대통령과 회담 시 합의, 내년 4월 江澤民 주석 방러 시 서명 예정
12. 28			<p>제10차 미·북실무접 촉 진행(뉴욕)</p> <p>*사과성명문안(국·영문), 방법 등 최 중 확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9	<p>유종하 외무장관, 북 사과성명 수락할만한 수준 평가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성명은 우리가 입을 막대한 고통과 피해에 대응할만한 것은 아니나 우리가 요구한 시인·사과·재발방지약속 조건이 다 반영된 것으로 수락할만한 수준으로 평가함. <p>통일원 대변인, 북 사과성명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뒤늦게나마 사과성명을 통해 시인·사과,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함. ○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 이행으로 남북간 신뢰회복과 긴장완화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함. ○ 북한이 남북대화과 4자회담에 하루속히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p>외교부 대변인, 잠수함 침투사건 사과성명 발표(평방, 중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은 위임에 의하여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96. 9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함.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유관측들과 함께 힘쓸 것임. 	<p>클린턴 美대통령, 북 사과성명 환영의사 표명(12.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양국이 잠수함 사건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것과 김대통령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사의 표명
12 30	<p>김영삼 대통령, 잠수함사건 관련 클린턴 美대통령에 메세지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뒤늦게나마 잠수 	<p>북한군, 무장공비 시신 인수후 「추도식」 진행</p> <p>*「추도식」 弔辭</p>	<p>UNC-북한군간 군정 위 비서장급접촉 진행, 무장공비 시신(유골) 24구 송환(판문점)</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30	<p>함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결과임. ○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미 두나라의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임. <p>국방부 대변인 성명, 잠수함 침투 무장공비사신(유골) 24구 송환방침 발표(12.30)</p> <p>* 30일 하오 시신송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인 훈련업무 도중 기관고장으로 강원도 강릉지역에 좌초한 잠수함 승조원들을 남조선에서 무참히 살해했음. <p>中通, 4자회담 공동설명회 참가용 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실무접촉(12.9~29) 사실 보도 ○ 양측은 회담에서 경수로 계획 이행문제, 양측간 미해결문제, 4자회담 공동설명회, 잠수함사건 등을 건설적 분위기속에서 논의 ○ 미국측은 공화국에 대한 제재완화 추가조치와 식량제공 약속 ○ 우리측은 폐연료 저장재개를 허용할 용의가 있으며, 4자회담 공동설명회를 경청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C측 음스대령 외, 북측 박임수 대좌 외 <p>로드 美국무부 차관보, 4자회담 계기로 남북대화 본격화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브리핑 ○ 4자회담은 앞으로 남북한간 다양한 현안 논의의 장을 제공할 것 ○ 미·북간에도 광범위한 문제관련 토론을 갖게 될 것 ○ 적절한 시점에 중국도 4자회담에 참여할 것임.
12. 31	<p>권오기 통일부총리,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주재</p>	<p>『조국전선』·『조평통』 대변인, 유해송환 관련 각각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군인들의 유해가 조·미협상을 통해 인도된 것은 우리측의 일관한 평화애호 노력의 결과임. ○ 이번 유해 인도는 사실상 남조선당국이 자기들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시인하고 사죄한 것으로 됨. 	

南北對話 年表

(1996年 1月 ~ 12月)

發行日：1996年 12月 日

發行處：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

